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음악학석사 학위논문

박록주제 홍보가 中 진양조의 내드름 연구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국악성악전공
심 상 윤

국문 초록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반주에 맞추어 소리와 아니리, 발림으로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이다. 판소리는 내용의 전개에 따른 대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목은 여러 단락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단락들은 '내드름'을 가지고 있는데, 판소리에서 내드름이란 각 단락의 첫 장단에 나타나는 선율이다.

본고에서는 판소리 박록주제 홍보가 中 진양조 10대목을 '기경결해'의 단락별로 각각의 내드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음악적인 내용을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각 진양조 대목들의 내드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양조에서 내드름은 '기경결해' 중 '기'에 해당한다. 내드름은 '기경결해'의 단락마다 그 시작 선율을 보여주는 역할과 동시에 기준음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음악적 흐름의 파악이 가능하다.

둘째, 내드름은 대부분 동일한 음을 반복하거나 한 음으로 지속하며, 진양조 장단의 간결한 리듬꼴로 나타난다.

셋째, 내드름은 단락 안에서 다른 장단들에 영향력을 갖는데, 내드름의 기준음 또는 내드름의 선율을 토대로 선율이 축소되거나 꾸밈음이 더해지는 등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넷째, 내드름은 단락 내 다른 장단(경, 결, 해)에서 반복, 변형되어 나타날 선율 또는 리듬꼴을 예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단락 내에서 선율이 전개되거나 발전되는 부분, 또는 단락을 이완시켜주는 장단에서는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현상은 대목이 길어져서 단락 수가 많아지면, 대목의 뒷부분에 위치한 단락에서 나타난다. 또한, 단락의 구성 장단 수가 5장단(6박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보인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판소리 '박록주제 홍보가'의 진양조 대목 내드름의 특성과 영향에 관한 것으로, 판소리 내드름의 음악적 내용에 대해 연구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박록주, 홍보가, 진양조, 내드름, 기경결해.
학번: 2010-21752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Ⅱ. 본론 ····· 8
1. ‘어따 이놈아’ ····· 8
2. ‘가지마오’ ····· 13
3. ‘두 손 합장’ ····· 19
4. ‘여보 형수씨’ ····· 28
5. ‘박흥보가 좋아라고’ ····· 34
6. ‘떴다 보아라’ ····· 42
7. ‘시르렁 실건’ ····· 52
8. ‘시리렁 실건’ ····· 62
9. ‘동산 앞’ ····· 71
10. ‘여보시오 시숙님’ ····· 77

Ⅲ. 결론 ····· 83

참고문헌
부록악보
ABSTRACT

악보 목차

[악보 1] ‘어따 이놈아’ 대목의 제 1단락 ····· 9
[악보 2] ‘어따 이놈아’ 대목의 제 2단락 ····· 11
[악보 3] ‘가지마오’ 대목의 제 1단락 ····· 14
[악보 4] ‘가지마오’ 대목의 제 2단락 ····· 15
[악보 5] ‘가지마오’ 대목의 제 3단락 ····· 17
[악보 6]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1단락 ····· 20
[악보 7]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2단락 ····· 21
[악보 8]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3단락 ····· 23
[악보 9]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4단락 ····· 24
[악보 10]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5단락 ····· 25
[악보 11]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6단락 ····· 26
[악보 12] ‘여보 형수씨’ 대목의 제 1단락 ····· 29
[악보 13] ‘여보 형수씨’ 대목의 제 2단락 ····· 30
[악보 14] ‘여보 형수씨’ 대목의 제 3단락 ····· 31
[악보 15] ‘여보 형수씨’ 대목의 제 4단락 ····· 32
[악보 16]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1단락 ····· 35
[악보 17]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2단락 ····· 36
[악보 18]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3단락 ····· 37
[악보 19]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4단락 ····· 38
[악보 20]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5단락 ····· 39
[악보 21]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6단락 ····· 40
[악보 22]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1단락 ····· 43
[악보 23]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2단락 ····· 44
[악보 24]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3단락 ····· 45
[악보 25]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4단락 ····· 46
[악보 26]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5단락 ····· 47
[악보 27]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6단락 ····· 49
[악보 28]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7단락 ····· 50
[악보 29]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1단락 ····· 53

[악보 30]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2단락 ····· 54
[악보 31]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3단락 ····· 56
[악보 32]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4단락 ····· 58
[악보 33]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5단락 ····· 59
[악보 34]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6단락 ····· 60
[악보 35]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1단락 ····· 63
[악보 36]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2단락 ····· 64
[악보 37]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3단락 ····· 65
[악보 38]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4단락 ····· 67
[악보 39]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5단락 ····· 68
[악보 40]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6단락 ····· 70
[악보 41] ‘동산 앞’ 대목의 제 1단락 ····· 72
[악보 42] ′동산 앞‘ 대목의 제 2단락 ····· 73
[악보 43] ‘동산 앞’ 대목의 제 3단락 ····· 74
[악보 44] ‘동산 앞’ 대목의 제 4단락 ····· 75
[악보 45] ‘여보시오 시숙님’ 대목의 제 1단락 ····· 78
[악보 46] ‘여보시오 시숙님’ 대목의 제 2단락 ····· 79
[악보 47] ‘여보시오 시숙님’ 대목의 제 3단락 ····· 80
[악보 48] ‘여보시오 시숙님’ 대목의 제 4단락 ····· 81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판소리는 한 사람의 소리꾼이 고수의 반주에 맞추어 소리와 아니리, 발림으로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이다. 하나의 이야기가 소리와 아니리로 짜여진 판소리는 몇 시간 동안이나 진행되는데, 소리꾼은 부채를 이용하여 다양한 극적 상황들을 묘사하며 서사적인 줄거리와 노래를 이끌어 나간다. 판소리는 본래 열두 마당이었다고 하나 사설이 부적절하고 청중들의 의식이나 감성에 맞지 않는 몇몇 바탕들의 전승이 끊기게 되면서 현재까지 다섯 마당[1]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었다.

판소리는 산조처럼 장단의 순서가 빠르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목의 상황에 따라 한 바탕 안에 장단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다. 가령, 분위기나 내용이 담담하거나 슬픈 대목은 주로 진양조와 중모리 장단을 사용하고, 흥겹거나 급박한 장면이 있는 대목은 중중모리나 자진모리를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대목마다 장단을 달리 한다. 대목이란 하나의 이슈가 있는 노래로, 사랑가나 이별가처럼 같은 이슈인 2~3곡을 총칭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본래 1대목은 1곡을 말한다.

각각의 대목들은 내드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드름이란 음악에서 첫머리 시작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전통 용어로, '내'는 '낸다' 즉 '제시한다'는 말이고, '드름'은 '경드름' '짝드름'에서 보이듯이 가락양식 및 곡조양식이라는 말[2]이다. 이재화의 연구에서 내드름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으며, 한갑득 명인이 진양조 매 가락의 첫 6박을 내드름이라 칭하였다고 한다[3]. 또한, 이보형은 판소리에서 내드름이라 할 때에는 장단의 종류로

---

1)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2) 이보형.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 한국음악연구, Vol.29 No.1, 한국국악학회, 2001, 7쪽.

3) 이재화, "거문고산조의 선율구조: 한갑득류 진양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변별되는 각 대목의 첫 장단에 나타나는 음악을 지시하는 말[4]이라 하였다. 여기서 지시하는 것, 즉 내드름에 대한 음악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판소리 내드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음악적인 내용을 규명하려 한다.

1985, 2쪽.

4) 이보형.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 한국음악연구, Vol.29 No.1, 한국국악학회, 2001, 7쪽.

2. 선행연구 검토

판소리는 그동안 독특한 양식으로 인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연구되었다. 판소리계 소설과 창본 및 판소리 사설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둔 문학적 연구와 판소리의 선율과 장단 등의 음악 어법을 주제로 한 음악학적 연구, 그리고 판소리를 공연예술로 보는 공연학적 연구이다.[5] 특히 음악학적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판소리의 '내드름'에 대한 연구는 4편뿐이다.

판소리 내드름에 관한 연구로는 이보형의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6]이 유일하게 판소리 내드름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이다. 이보형은 이 연구에서 판소리 내드름이란 고수에게 장단 종류를 지시하는 것으로, 내드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장단 리듬 구조가 장단별로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보형은 "단모리 내드름의 리듬 확대현상 연구"[7]에서 판소리의 단모리(휘모리) 내드름에 나타나는 리듬의 통사구조를 살폈다. 그리하여 판소리의 단모리(휘모리)대목은 내용이 급박하게 진행됨으로 인해 단모리 내드름의 리듬이 확대되지 못함을 밝혔다.

김기홍도 "판소리 진양조 장단과 세마치 장단의 비교연구"[8]에서, 내드름의 특징이 장단의 원형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판소리의 자진진양조 장단과 세마치 장단이 다른 장단임을 밝혔다.

유선미의 "판소리를 수용한 산조의 음악 양식에 관한 연구"[9]에서는 판소리와 산조의 각 장단별 내드름을, 리듬형을 이용하여 판소리와 산조의 각 장단 내드름 형식이 같음을 밝혔다.

---

5) 채수정, "판소리 다섯 바탕의 중모리 대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3쪽.
6) 이보형,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 한국음악연구, Vol.29 No.1, 한국국악학회, 2001.
7) 이보형, 「단모리 내드름의 리듬 확대현상 연구」, 한국음반학, Vol.- No.11, 한국고음반연구회, 2001.
8) 김기홍, "판소리 진양조 장단과 세마치 장단의 비교연구: 판소리 고법적 측면에서",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9) 유선미, 「판소리를 수용한 산조의 음악 양식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Vol.29 No.-, 판소리학회, 2010.

이와 같이 4편의 선행연구는 판소리 내드름의 리듬에 관한 내용에 치중되어 있다. 내드름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산조 연구[10]에서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판소리 내드름에 관한 연구는 선율에 관한 분석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그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10) 김애라, “한범수류 해금 산조의 종지형과 내드름의 유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0.
김영임,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의 내드름 연구: 진양조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 2002.
김정미, “서용석류 해금산조의 종지형과 내드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박신정, “산조 진양조의 내드름과 본청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2011.
주윤정, “거문고 산조 자진모리의 내드름 비교 연구: 한갑득류와 신쾌동류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연구범위를 판소리 한 바탕 안의 내드름으로 박록주제 흥보가[11] 中 진양조 전 대목에 한정하고자 한다. 박록주제 흥보가 한바탕 전체 대목 수는 총 38대목이며, 그 중 진양조는 10대목[12]이다.

박록주제 흥보가는 송흥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김정문-박록주-박송희로 이어지는 소리이다. 박록주는 판소리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처음 지정될 때,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될 만큼 명실상부한 당대의 명창이었다. 그러나 이 때 박록주는 '춘향가'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1973년 '흥보가' 보유자로 재지정되면서 그는 주로 흥보가를 불렀다. 그리하여 박록주는 흥보가 명창으로 널리 알려졌다[13]. 박록주제 흥보가는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예술성과 보존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까지도 많은 소리꾼들이 부르고 있다. 한편, 박록주제 흥보가는 통상적으로 '놀보가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를 말하며, '놀보가 박 타는 대목'을 포함하지 않는다[14].

본고에서 진양조만을 연구범위로 삼으려 하는 이유는, 진양조가 판소리에서 장단의 빠르기가 제일 느림으로 인해 음악적 완성도가 집약된 장단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흥보가의 눈대목[15]들이 진양조에 다수 포함

---

11) 박록주제 흥보가는 송흥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김정문-박록주로 이어지는 동편제 판소리의 확실한 계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12) 10대목은 대목 구성의 순서상 '어따 이놈아' 대목, '가지마오' 대목, '두 손 합장' 대목, '여보 형수씨' 대목,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 '떴다 보아라' 대목, '시르렁 실건(첫 번째 박타령)' 대목, '시리렁 실건(두 번째 박타령)' 대목, '동산 앞' 대목, '여보시오 시숙님' 대목이다.

13) 김석배, 「박록주 <흥보가>의 정립과 사설의 특징」, 판소리연구, Vol.21 No.-, 판소리학회, 2006, 124쪽.

14) 박록주의 제자 박송희(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는 흥보가 지도시, '놀보가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까지를 '박록주제 흥보가' 라고 일러준다. 박록주가 노래한 '놀보가 박을 타는 대목'은 부분적으로 음원에 남아있기는 하나, 박록주가 말년에는 부르지 않았다. 또한 흥보가에서 '놀보가 박을 타는 대목'은 '흥보가 박을 타는 대목'의 줄거리와 대목 구성, 소리가 유사하여 사실상 '흥보가 박을 타는 대목'의 반복이라 보아도 무관하다.

15) 박록주제 흥보가의 백미인 박 타는 대목을 비롯하여 흥보가 놀보에게 비는 대목, 흥

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각각의 대목을 음악적인 종지에 따라 '기경결해[16]'의 단락으로 구분하고, 단락의 새로운 선율을 내드름으로 보아 분석하는 것이다. 판소리는 한 대목 안에 내용과 가사의 흐름상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추어 음악이 구성되어 있다. 진양조 장단에서 '기경결해'의 한 단락은 보통 4장단이 한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장에 따라 3장단 또는 5장단 이상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내드름은 '기경결해' 중 '기'에 해당하며, '기경결해'의 단락으로 인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다. 각각의 내드름이 단락 안에서 나타나는 연관성을 선율과 리듬꼴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드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악보가 필요하므로, 본고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채보한 악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출판된 박록주제 흥보가 악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에 사용된 악보도 그 악곡 수가 일부 대목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정확한 분석 결과를 위해 동일한 기준으로 채보된 악보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채보는 실음을 기준으로 채보하였고, 각 대목의 조에 따라서 조표를 각각 적용하였다.

채보에 사용된 음원 자료는 1967년에 녹음되어 1994년 재발매된 지구레코드의 박록주 흥보가[17]를 기준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기준음[18]'이란 선율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보 제비가 강남 가는 대목 등이 있다.

16) '기경결해'에서 '기'란 내는 소리, '경'은 다는 소리, '결'은 맺는 소리, '해'는 푸는 소리를 뜻한다.

17) 박록주, 『판소리 명창 박록주 홍보가』, 지구레코드, 1994.

18) '기준'이라는 것은 예컨대 체육시간에 좌, 우 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열이 펼쳐질 때 쓰인다. 이와 같이 어느 대목의 선율에서 제일 높은 음이나 중간 음 또는 제일 낮은 음 등 순서에 상관없이 '기준음'을 토대로 선율이 펼쳐진다. 그리하여 '기준음'은 대목의 선율에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 기준음은 같은 조에서도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c본청 계면조에서의 기준음은 대목에 따라 g음이 될 수도 있고, e♭음이

음[19]을 지칭한다. 기준음은 선율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여 선율이 이 음을 기준으로 전개되며, 본청과는 다른 의미이다.

될 수도 있다. 내드름 선율에서는 선율 진행에 기준이 되는 기준음이 가장 중요한 음이라 할 수 있다.

19) 문숙희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는,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의 보유자였던 함동정월이 '중심 잡는 부분'을 "아직 곡을 만들지 않는다." "죄기 위하여 준비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문숙희는 그의 논문에서, 처음에 곡선을 밟아 중심을(기초를) 잡아나오면서 중심잡는 것을 완수한 후 맺어맺어 나오면서(곡을 만들면서) 완전히 맺고 풀어풀어 나오면서 완전히 풀어야 곡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심 잡는다'는 '낸다'와 '율려(성음)와 한배를 정하여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였다. 문숙희, "가야금산조의 긴장과 이완: 최옥산류 진양조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6~8쪽.

Ⅱ. 본론

본론에서는 흥보가에서 진양조로 소리하는 대목인 ‘어따 이놈아’, ‘가지 마오’, ‘두 손 합장’, ‘여보 형수씨’, ‘박흥보가 좋아라고’, ‘떴다 보아라’, ‘시르렁 실건(첫 번째 박타령)’, ‘시리렁 실건(두 번째 박타령)’, ‘동산 앞’, ‘여보시오 시숙님’ 이상 10대목을 대상으로, 각 대목을 ‘기경결해’의 단락으로 나누어 각 단락의 ‘기’ 부분을 내드름으로 보고 분석한다. 각 단락 안에서 드러나는 내드름의 영향을 대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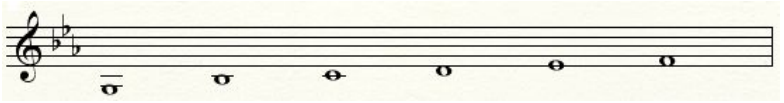
1. ‘어따 이놈아’

‘어따 이놈아’는 박록주제 흥보가의 진양조 대목 중 첫 대목으로, 곤궁 중에 장가를 보내달라는 큰 아들의 철없음에 흥보 마누라가 탄식을 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c본청 계면조[20]로 총 8장단이며, ‘기경결해’를 갖춘 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제 1단락

다음 [악보 1]의 제 1장단은 제 1단락의 ‘기’ 부분으로, ‘어따 이놈아’ 대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은 g음이다. 이 장단에서 출현하는 음은 g음과 e♭음이나, e♭음은 선율의 중심을 잡는 g음를 연결해 주거나 꾸며주는 음에 불과하다. 내드름은 간결한 리듬꼴

20) 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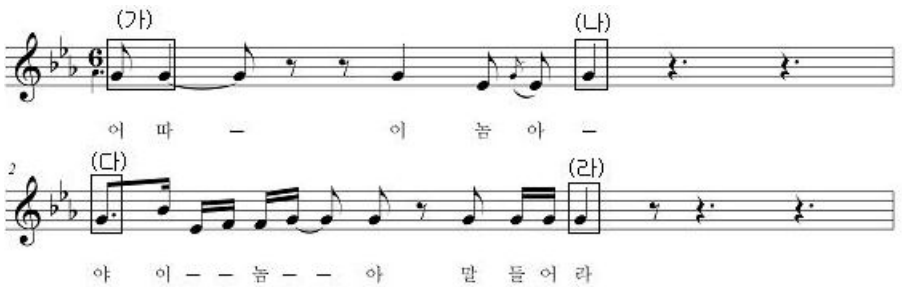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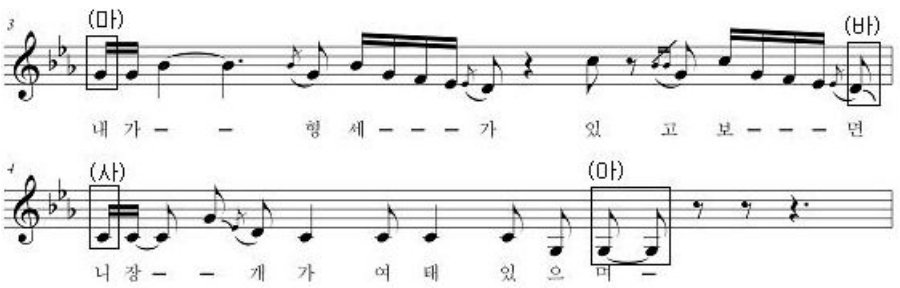
제 2장단은 '기경결해' 중 '경'에 해당하며 음악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다. 이 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첫 번째 내드름과 같은 g음으로 시작해서 g음으로 끝나는 선율이다. 제 1박에서부터 리듬꼴이 작은 단위로 분할되어 시작되고,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이 장단의 제 1-2박 선율 진행은, g음에서 e♭음을 거쳐 g음으로 끝나는 첫 번째 내드름과 유사하다. 제 2장단의 선율은 첫 번째 내드름의 선율형에서 변형된 형태로, 이는 사실상 내드름의 선율을 반복하는 것이다. 한편, 제 2장단의 가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내드름의 가사 '어따 이놈아'와 의미가 상통하는 '야 이놈아'이다. 제 2장단의 가사는 첫 번째 내드름과 유사한 가사이기 때문에, 선율도 내드름과 유사한 선율을 가지고 있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선율이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결'에 해당하는데, 음악의 절정인 부분이다. 그리하여 제 1박에서 보듯이 g음에서 b♭음으로 올라가면서부터 다양하게 꾸며진 선율과 세분된 리듬꼴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 3장단은 선율이 변화되면서 내드름의 선율 진행과는 다르게 선율이 진행된다.

제 4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 부분이다. 이 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본청 c음으로 시작하여 내드름 선율의 기준음인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맺는다. 선율이 점차 하행 진행하는 형태로 선율을 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악보 1] '어따 이놈아' 대목의 제 1단락





(2) 제 2단락

다음 [악보 2]의 제 5장단은 새로운 '기경결해' 단락의 '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대목의 두 번째 단락의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하여 점차 하행하여 c음으로 끝나는 선율 진행을 보인다. 두 번째 내드름의 선율은 시작부터 꾸밈음을 계속 사용하는데, 이는 제 1장단인 첫 번째 내드름 선율보다 확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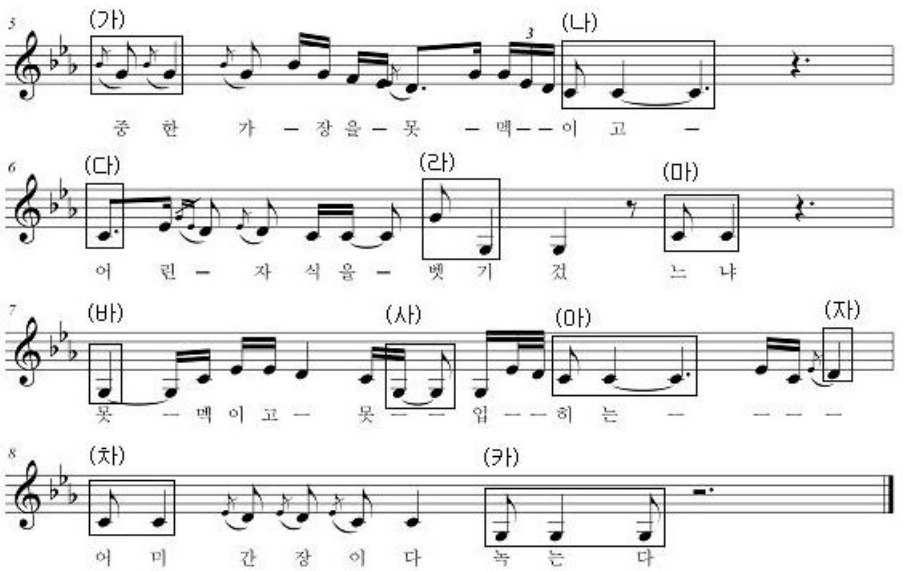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부터 (마)에서 보듯이, 본청 c음으로 시작해서 g음을 거쳐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 선율 진행과 반대로, c음에서 g음으로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편, 제 3-4박에서 두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래 악보의 (라)에서 보듯이 제 3박의 가사 '벳기겄'에서 기준음 g음과 그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이 출현한다. 이는 기준음인 g음과 그 가사를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와 (마)에서 보듯이, 제 6장단의 선율이 끝날 때 두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과 일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 7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바)와 (자)에서 보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변화가 많은 선율 진행으로, 앞의 제 5장단, 제 6장단과는 다른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는 제 7장단이 음악의 절정인 '결' 부분이기 때문에 선율이 변화무쌍하게 나타난다. (바)와 (사)에서 나타나듯이, 가

사가 '못'으로 된 제 1박과 제 3박은 g음으로 강조하는 형태이다. 또한 제 4-5박에서는 (나)와 (아)에서 보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4-5박과 같은 선율과 리듬꼴이 나타난다. 한편, 제 6박에서는 제 3장단의 제 6박과 마찬가지로 e♭음에서 d음으로 선율을 끝낸다. 이는 제 3장단과 제 7장단이 기경결해 중 '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한 끝 선율을 보인다 하겠다.

제 8장단은 이 대목의 마지막 장단으로 '기경결해' 중 '해' 부분이다.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선율이 끝난다. 앞의 제 5장단, 제 6장단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제 1박에서는 (가)와 (차)에서 나타나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시작 리듬이 동일하게 출현한다. 한편, 이 장단은 첫 단락의 '해' 부분인 제 4장단과 선율 진행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악보 2] '어따 이놈아' 대목의 제 2단락



요컨대, ‘어따 이놈아’ 대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인 g음으로 시작하며, 기준음을 토대로 단락 내 다른 장단의 선율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 나타난다. 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으로, 단락 전체에 기준음이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각 장단에서 선율적으로 발전된 내드름의 모습이 나타난다.

2. ‘가지마오’

‘가지마오’는 매품 팔러 간다는 홍보의 말에 홍보 마누라가 만류하며 우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b본청 계면조[21]로 총 12장단이며, ‘기경결해’를 갖춘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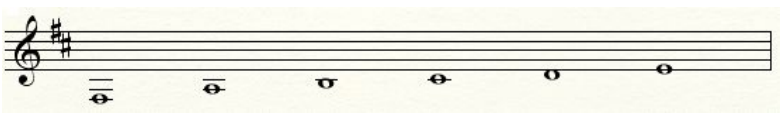
(1) 제 1단락

다음 [악보 3]의 제 1장단은 첫 번째 ‘기경결해’ 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로 끝난다. 그리하여 첫 번째 내드름 선율의 기준음은 b음이며, b음은 이 곡의 본청이다. 첫 번째 내드름은 한 음으로 계속 선율이 진행되는 구조이다. (가)와 (나)는 같은 가사가 반복되면서 똑같은 선율과 유사한 리듬꼴로 나타난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d음으로 시작해서 f# 음으로 끝난다. 기준음 b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진행되며, 선율이 점차 하행하면서 전개되는 구조이다. 한편, (라)에서 보듯이 제 3-4박의 가사는 ‘가지를 마오’로 내드름의 가사와 유사하다. 이 가사의 시작음은 b음으로 유사한 가사를 가진 내드름의 시작음과 같다. 이를 통해 같은 가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선율이 유사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장단은 (마)와 (사)에서 보듯이 f#음으로 시작해서 c#음으로 끝나는 선율이다. 또한 (바)에서 나타나듯이, 제 3박에서 내드름의 제 3박과 유사한 선율과 같은 리듬꼴이 나타난다. 앞의 제 1, 2장단과 다르게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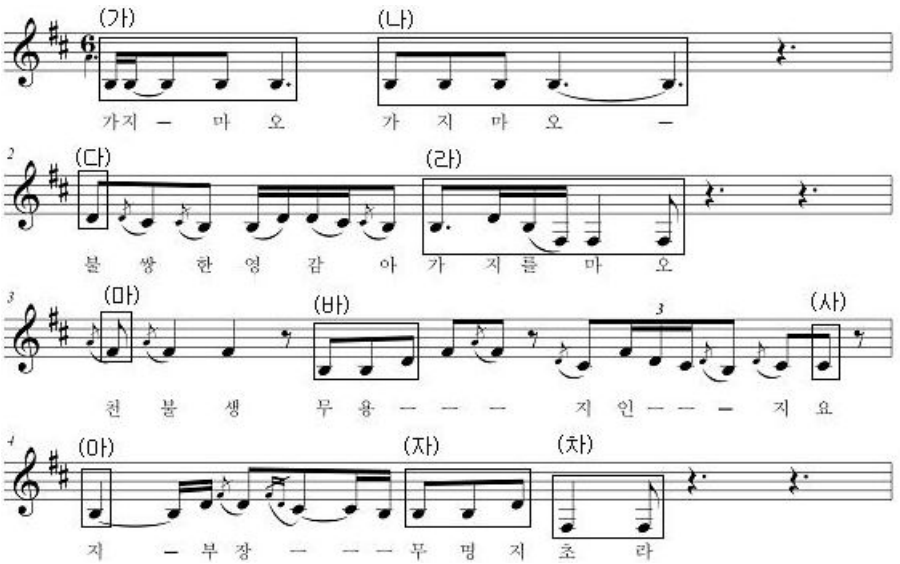
21) b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5-6박까지 소리하며, 제 5-6박은 내드름 선율과 관계없는 선율로 나타난다. 이는 제 3장단이 '기경결해' 중 '결'에 해당하여 변화가 많은 선율 진행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율은 f#음으로 시작했으나, (바)에서 보듯이 내드름의 기준음인 b음에서부터 선율이 발전된다.

제 4장단은 (아)와 (차)에서 보듯이,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에 해당하여 선율이 하행 진행되면서 단락을 이완시킨다. 또한 (자)에서 보듯이, 제3박에서 제 3장단의 제 3박에 나타난 선율과 리듬꼴이 동일하게 출현한다.

[악보 3] '가지마오' 대목의 제 1단락



(2) 제 2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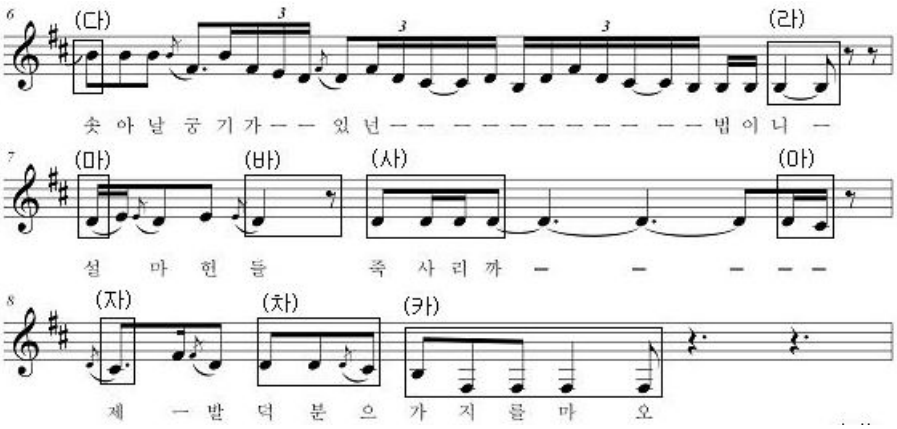
다음 [악보 4]의 제 5장단은 두 번째 '기경결해' 단락의 '기'에 해당하며, 이 대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시작음인 d음은 이 단락의 기준음이다. 두 번째 내드름은 점차 선율이 상행했다 하행 진행되는데, 동일한 음을 반복하는 첫 번째 내드름과는 다른 선율 진행이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b음으로 도약한 채 시작하여 그보다 한 옥타브 낮은 b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b음에서부터 한 옥타브 아래 b음으로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을 보인다. 이는 두 번째 내드름에서 제 3박부터 선율이 상행한 후 하행 진행되는 것과 유사한 선율 진행이다. 이를 통해 내드름의 선율 진행이 다음에 나올 선율 진행을 미리 예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제 6장단에서는 이 곡의 가장 높은 음인 b음이 출현하여 음악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또한 긴장의 효과를 위해 많은 시김새를 사용하여 선율의 긴장을 강조하였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에서 보듯이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기준음인 d음으로 시작한다. 한편 (바)에서 보듯이 제 2박에서 두 번째 내드름의 제 2박과 같은 음과 리듬꼴이 나타난다. (사)에서 보듯이 제 3박에서부터는 두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d음을 지속하여 강조한다. 또한 (아)에서 보듯이, 제 6박에서는 d음을 거쳐 c음으로 짧게 종지하는데, 이는 (나)에서 보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6박 선율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내드름 끝 선율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제 8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의 기준음은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d음이며, 선율이 d음을 기준으로 하행 진행한다. 또한 제 8장단은 선율의 하행 진행과 제 4박까지 소리하는 구조가 첫 단락의 제 4장단과 유사하다. 이는 제 4장단과 제 8장단이 '기경결해' 중 '해' 부분으로, 단락의 이완을 위해 유사한 선율 진행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장단에서는 (카)에서 보듯이 '가지를 마오'라는 가사가 제 2장단에 이어 다시 등장한다. 제 2장단의 제 3-4박처럼 b음으로 시작되며, 하행하여 f#음으로 끝나는 선율 진행도 유사하다.

[악보 4] '가지마오 대목의 제 2단락



(3) 제 3단락

다음 [악보 5]의 제 9장단은 세 번째 단락의 '기'에 해당하며, 이 대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d음은 세 번째 내드름 선율의 기준음이다. 선율이 평평하게 진행되나, 제 4-5박에서 음이 한 옥타브 도약하였다가 하행한다. 이는 첫 번째, 두 번째 내드름과 다른 선율 진행으로, 이를 통해 내드름의 또 다른 선율 진행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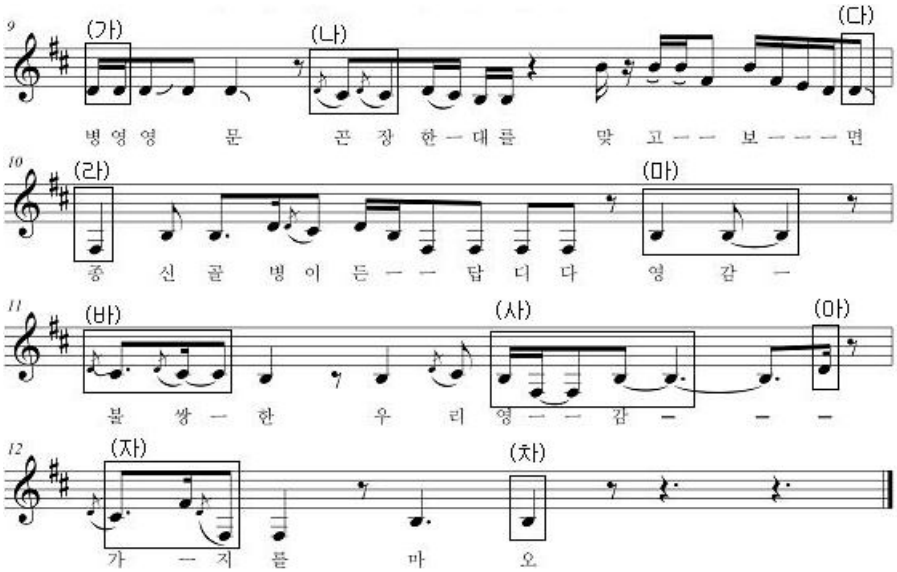
제 10장단은 (라)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b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은 약하다. 이는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전개되는 부분도 늘어나면서, 선율이 내드름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해서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d음으로 끝난다. (바)에서 보듯이 꺾는 음으로 꾸며서 선율을 시작하는데, 이 시작 선율은 (나)에서 나타나듯 세 번째 내드름 선율의 제 3박과 같다. 또한, 이 장단은 (사)에서 보듯이 b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다. 한편, (사)에서 나타나듯이 제 4박의 가사 '영감'은 제 10장

단의 제 6박에서 나왔던 가사 '영감'과 같다. 제 10장단의 제 6박과 마찬가지로 b음을 기준으로 하여 선율이 진행되고, f음을 거치는 변형된 선율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같은 가사가 반복될 때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2장단은 (자)와 (차)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로 끝난다. b음은 '가지마오'의 본청으로, 이 대목은 본청으로 시작[22]하여 본청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자)에서 나타나듯 선율이 시작된 후 급격히 하행하였다가 b음으로 상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또한, 제 12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에 해당하여 단락을 이완시키는 역할로, 세 번째 내드름 선율의 영향력이 약하다. 한편, 제 12장단의 가사는 '가지를 마오'로 제 2장단, 제 8장단의 가사와 같다. 그리하여 (자)에서 보듯이 f# 음까지 하행하는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같은 가사가 반복될 때 마다 유사한 선율 진행으로 그 가사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복되는 가사는 그 곡의 상징적인 내용을 내포하는데, 이 곡의 주된 내용이 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를 마지막 장단까지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악보 5] '가지마오' 대목의 제 3단락



22) 제 1장단인 첫 번째 내드름에서 b음으로 이 대목의 첫 선율을 시작하였다.

요컨대, ‘가지마오’ 대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b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 다른 장단에서 기준음 b음을 기준으로 하여 선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d음으로, 선율이 상행하였다 하행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또한 제 2단락은 단락 내에서 기준음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내드름이 다음 장단의 선율 진행을 예시한다. 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d음으로, 단락 내에서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단락은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전개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3. ‘두 손 합장’

‘두 손 합장’은 흥보가 놀보에게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놀보가 흥보를 모른 체 하자 흥보가 처지를 알리며 비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c본청 계면조[23]로 총 24장단이며, ‘기경결해’를 갖춘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제 1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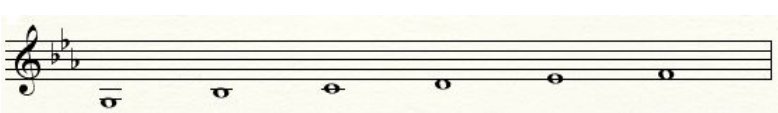
다음 [악보 6]의 제 1장단은 첫 번째 ‘기경결해’ 단락에서 ‘기’에 해당하며, 첫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f음으로 시작하여 e♭ 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e♭ 음이 기준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하여 다시 g음으로 끝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 장단은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율은 내드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내드름 선율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한 음을 반복,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3장단의 가사는 ‘비나이다’로 반복되는데, 이는 비는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 가사와 c음이 반복하여 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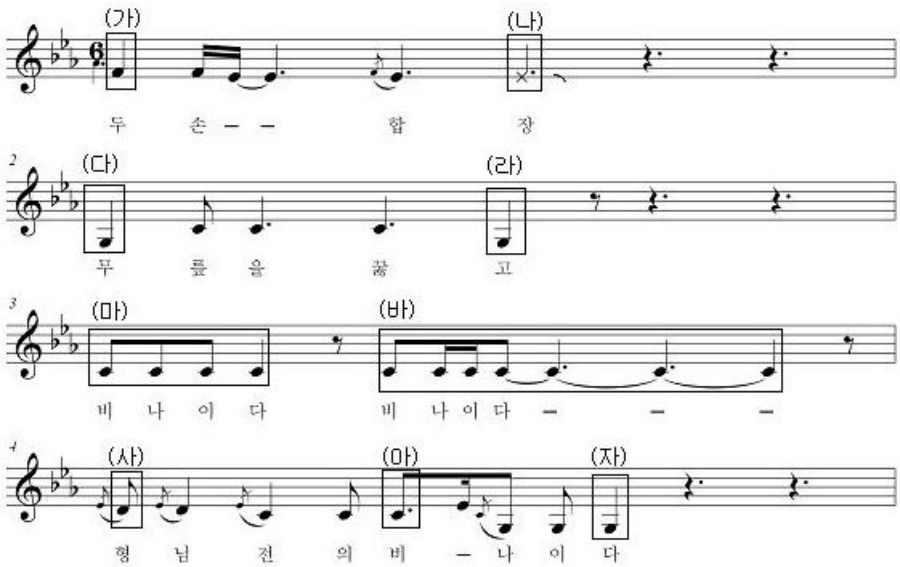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자)에서 보듯이, d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 부분으로, 단락의 이완을 위

23) 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해 선율이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또한 내드름 선율의 기준음인 e♭음이 꺾는 음으로 출현하나, 제 4장단은 내드름 선율과의 큰 연관성은 없다. 한편, (아)에서 보듯이, 제 3박에서부터의 가사는 '비나이다'로, 앞의 제 3장단의 가사 '비나이다'와 같다. 제 3박에서는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제 3장단에서 가사 '비나이다'의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할 때와 같다.

[악보 6]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1단락



(2) 제 2단락

다음 [악보 7]의 제 5장단은 문장의 흐름상 새로 시작되는 '기경결해' 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 이 장단은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기준음은 f음으로 계속 이 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며, 리듬꼴은 세분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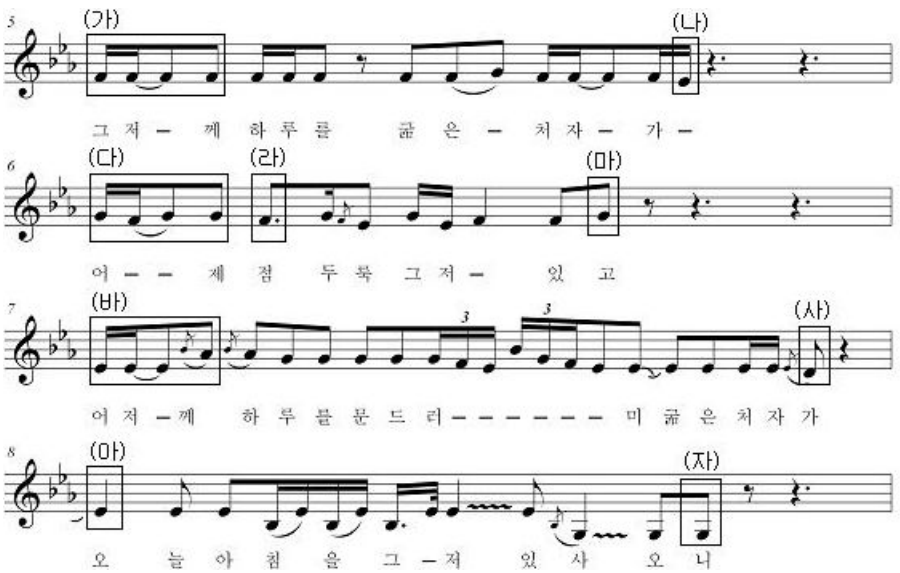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

하여 g음으로 끝난다. 그러나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f음을 기준으로 하여 선율이 전개된다. 한편, 제 1박의 리듬은 두 번째 내드름의 제 1박 리듬과 동일하며,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 7장단이 '기경결해' 중 음악의 절정인 '결' 부분으로 많은 시김새를 포함하여 복잡한 선율 진행을 보이나, 선율이 발전되면서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한편, (바)에서 보듯이 이 장단의 제 1박 리듬은, (가)에서 나타나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1박 리듬과 같다.

제 8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에 해당하여, 선율이 하행 진행되면서 단락을 이완시킨다. 제 8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면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과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악보 7]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2단락



(3) 제 3단락

다음 [악보 8]의 제 9장단은 세 번째 '기경결해' 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부터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세 번째 내드름은 기준음인 g음을 반복,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 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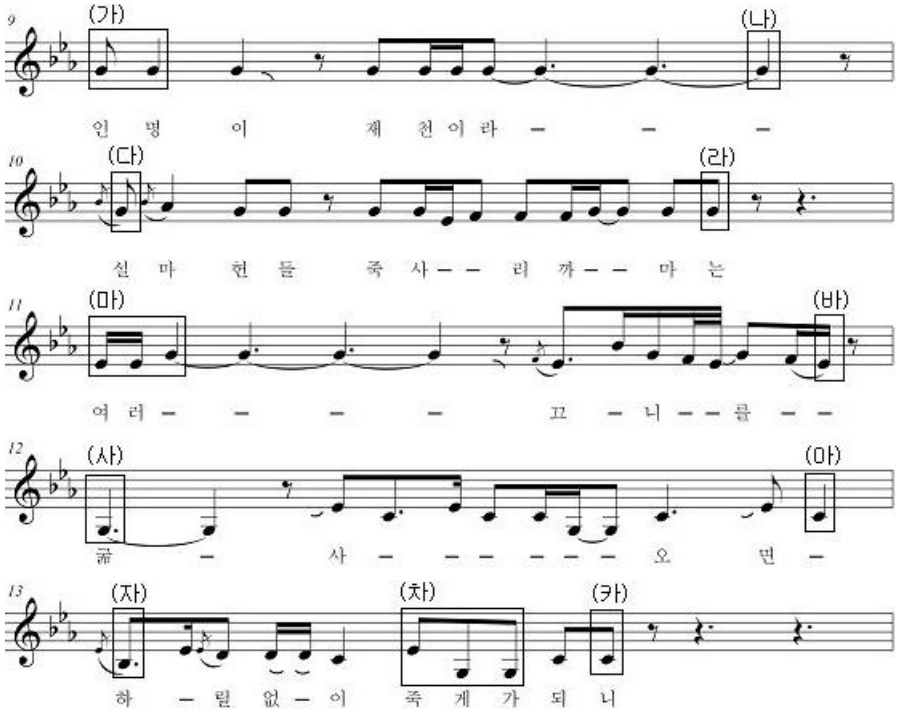
제 10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으로 시작해서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고 리듬꼴이 세분화되는 등 세 번째 내드름과 유사한 선율 진행을 보인다. 이는 제 10장단이 '기경결해' 중 '경' 부분으로, '기' 부분인 세 번째 내드름 선율에서 발전되어 나타난 선율이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e♭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 선율이 제 1박에서 e♭음을 발판 삼아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으로 상행하여 제 4박까지 지속하는데, 이를 통해 기준음 g음을 강조한다. 이후 제 5박에서부터 시김새를 통해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 장단은 기준음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상행하고 하행하면서, '기경결해' 중 음악의 절정인 '결'을 나타낸다.

제 12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단락의 이완을 돕는 선율로, g음을 기준으로 긴장감 있게 선율을 진행한 단락 내 다른 장단과는 달리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제 13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제 4박에서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이, 제 12장단과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출현한다. 이 장단의 선율은 단락을 이완시키는 부분으로 세 번째 내드름 선율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8]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3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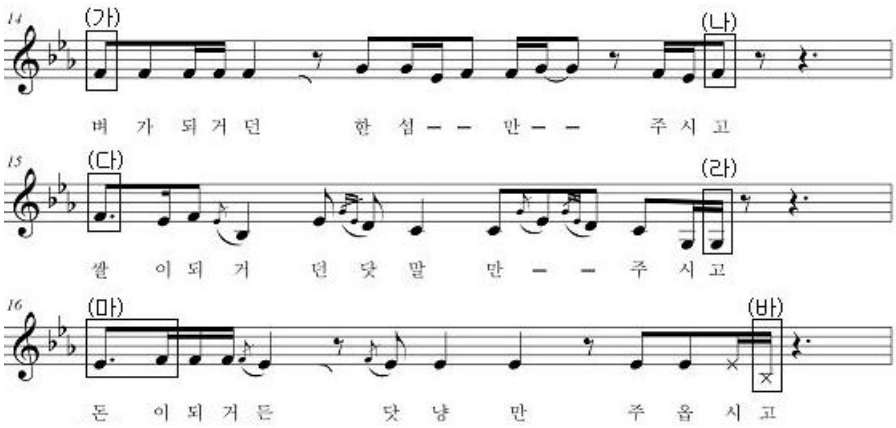
(4) 제 4단락

다음 [악보 9]의 제 14장단은 네 번째 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해서 f음으로 끝난다. 네 번째 내드름은 f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한편, 네 번째 내드름은 제 5박까지만 소리한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며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네 번째 내드름 선율과는 다르게 선율이 전개될 때 시김새를 사용하며,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또한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5박까지만 소리한다.

제 16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되고, b♭ 음으로 끝난다. 제 1박에서 나타나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되나, 곧 f음이 반복되며 네 번째 내드름의 제 1박과 유사한 선율로 진행된다. 또한 이 장단도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5박까지만 소리하는데, 이는 이 단락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24].

[악보 9]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4단락



(5) 제 5단락

다음 [악보 10]의 제 17장단은 제 5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다섯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 선율이 상승한 채 b♭ 음으로 시작하여 e♭ 음으로 끝난다.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 음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b♭ 음에서부터 e♭ 음까지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8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다섯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인 e♭ 음의 영향을 받아 선율이 진행된다. 또한 제 5박까지 다섯 번째 내드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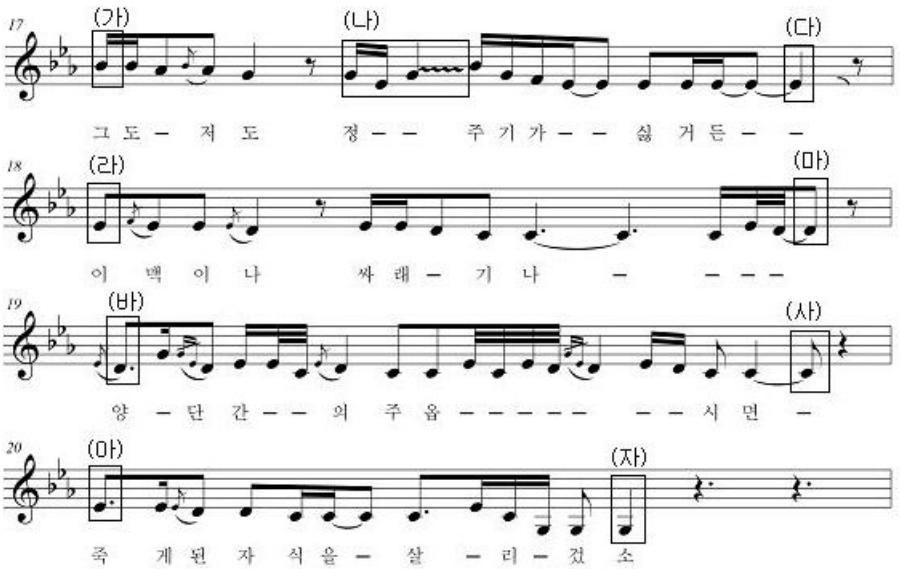
24) 이 단락의 내용은 홍보가 놀보에게 구하는 물건과 그 양을 자세하게 이르는 것으로, 장단마다 제 5박까지만 노래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하행 진행한다.

제 19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c음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다섯 번째 내드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이는 제 19장단이 '기경결해' 중 선율이 발전하는 '결' 부분으로, 시김새의 출현은 잦으나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 20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다섯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인 e♭음으로 시작하여, 다섯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끝난다. 다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하행 진행한다. 그러나 다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10]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5단락



(6) 제 6단락

다음 [악보 11]의 제 21장단은 여섯 번째 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여섯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나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g음이 기준음이며, g음을 반복하는 선율 진행이다. 또한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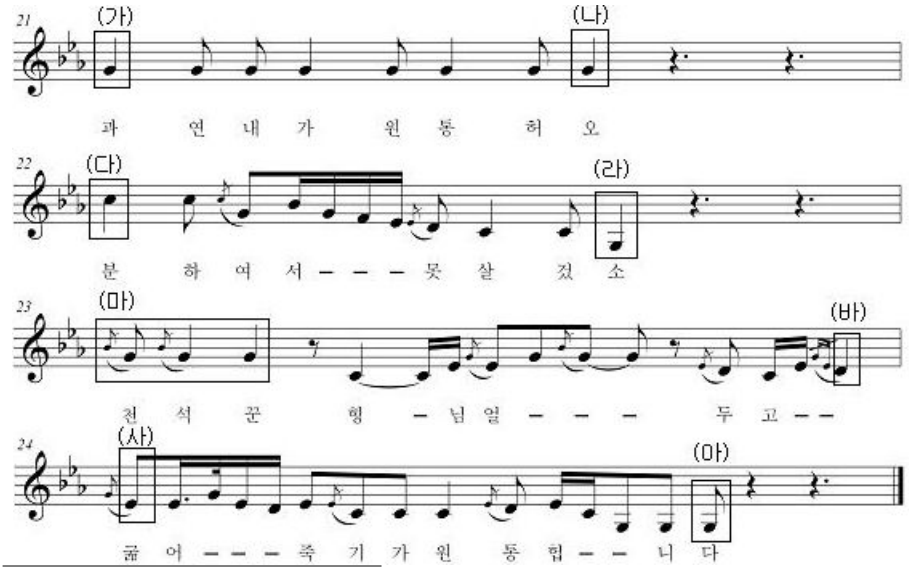
있다.

제 2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c음에서부터 여섯 번째 내드름 선율의 기준음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까지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2박을 제외한 나머지 리듬꼴들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 일치하며, 제 4박까지 소리하는 것도 여섯 번째 내드름과 동일하다.

제 2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마)에서 보듯이 꾸밈음을 통한 여섯 번째 내드름 시작 선율의 반복이 나타난다[25].

제 2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e♭음에서 c음을 거쳐 여섯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까지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선율이 이완되는 '해' 부분으로 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다.

[악보 11] '두 손 합장' 대목의 제 6단락



25) 꾸밈음을 통한 여섯 번째 내드름 시작 선율의 반복으로, 놀보를 나타내는 '천석꾼' 가사를 강조한다.

요컨대, ‘두 손 합장’ 대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e♭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에서 내드름 선율의 영향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f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단락 내에서 기준음 f음과 내드름의 리듬꼴로 영향을 준 모습이 나타났다. 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 기준음 g음이 영향을 주며, 내드름 선율과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났다. 제 4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f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에서 다른 장단들에 기준음 f음으로 선율 진행에 영향을 준다. 제 5단락의 내드름은 g음이 기준음이며, 선율이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단락 내에서 선율의 하행 진행이 영향을 주나,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은 약하다. 제 6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서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4. ‘여보 형수씨’

‘여보 형수씨’는 흥보가 형수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고 통곡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c본청 계면조[26]로 총 16장단이며, ‘기경결해’를 갖춘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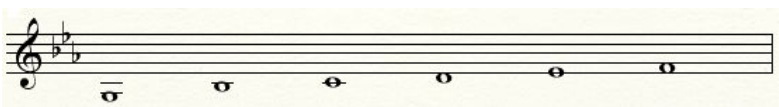
(1) 제 1단락

다음 [악보 12]의 제 1장단은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제 1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g음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 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으로 시작해서 g음으로 끝난다. 제 2장단 선율의 기준음은 g음이며, 선율이 첫 번째 내드름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장단은 첫 번째 내드름 선율에서 발전된 선율이며, 리듬꼴도 첫 번째 내드름의 리듬꼴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 2장단의 가사가 ‘여보 여보 아주머니’로, 첫 번째 내드름의 가사 ‘여보 형수씨’와 유사하다. 그리하여 제 2장단은 첫 번째 내드름과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앞서 ‘어따 이놈아’나 ‘가지마오’ 대목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사한 가사가 반복될 때는 선율과 리듬꼴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 장단은 제 2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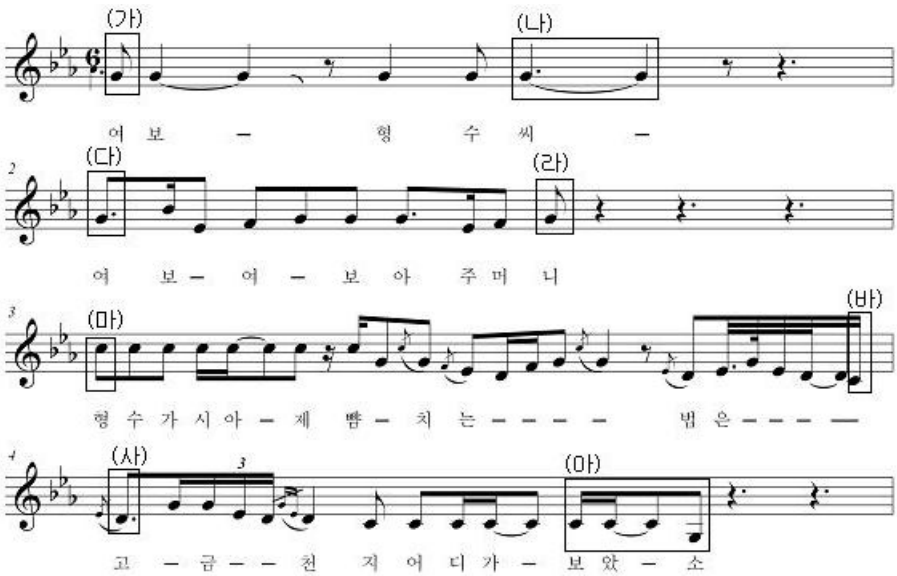
26) 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락의 ‘결’ 부분으로, 복잡한 시김새를 통해 음악적으로 화려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c음을 거치면서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 부분으로, 선율이 점차 하행 진행하면서 단락을 이완시킨다.

[악보 12] ‘여보 형수씨’ 대목의 제 1단락



(2) 제 2단락

다음 [악보 13]의 제 5장단은 내용의 흐름상 단락이 바뀌면서 나타난 제 2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이 두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 두 번째 내드름은 e♭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e♭음을 반복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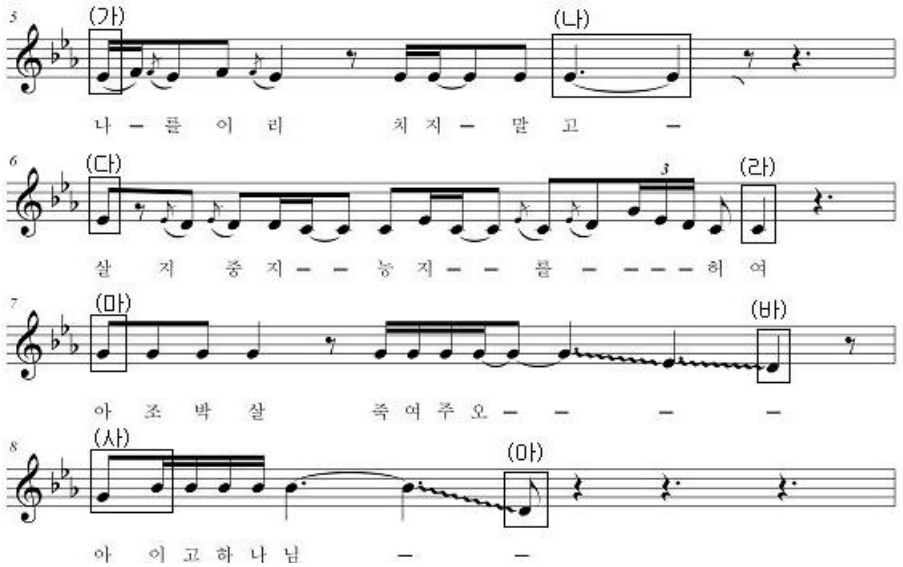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두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e♭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

해’ 중 ‘경’ 부분으로, 선율이 발전하면서 두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g음을 반복하다가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7장단은 ‘기경결해’ 중 ‘결’에 해당하여 선율이 절정에 이르면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8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로 도약한 후 d음으로 끝난다. b♭음으로 도약한 후 긴장된 선율이 흘러내리면서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 장단도 선율이 발전하면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13] ‘여보 형수씨’ 대목의 제 2단락



(3) 제 3단락

다음 [악보 14]의 제 9장단은 제 3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b♭음을 거쳐 g음을 기준으로 전개되며 e♭음으로 끝난다. 한편, 세 번째 내드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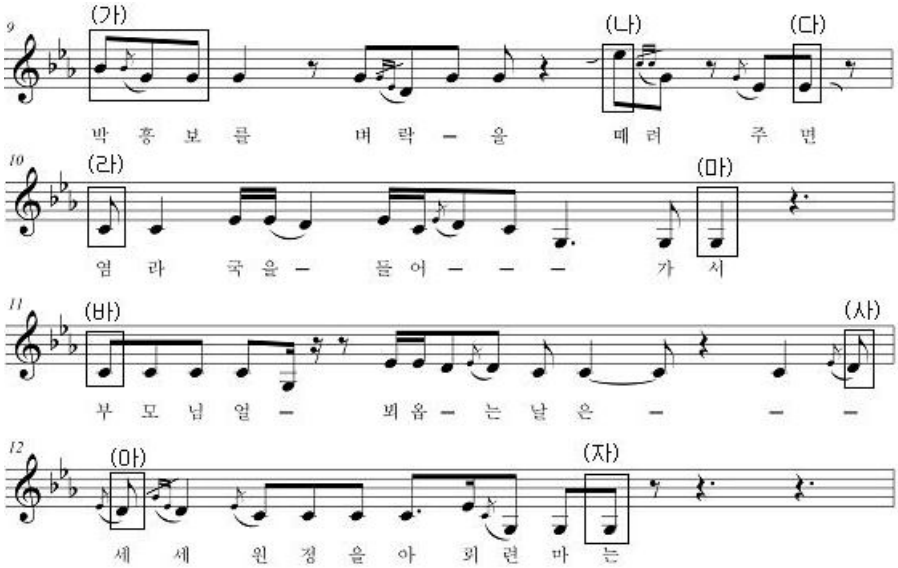
은 (나)에서 보듯이 이 곡에서 가장 높은 음인 e♭음이 출현한다. 이로 인해 세 번째 내드름은, 다른 내드름 선율과 다르게 긴장된 선율이 나타난다.

제 10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해서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단락 내에서 선율이 발전되는 부분으로,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2에서는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도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제 3단락이 내용의 흐름상 가사가 계속 발전하면서, 단락 내 세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14] '여보 형수씨' 대목의 제 3단락



(4) 제 4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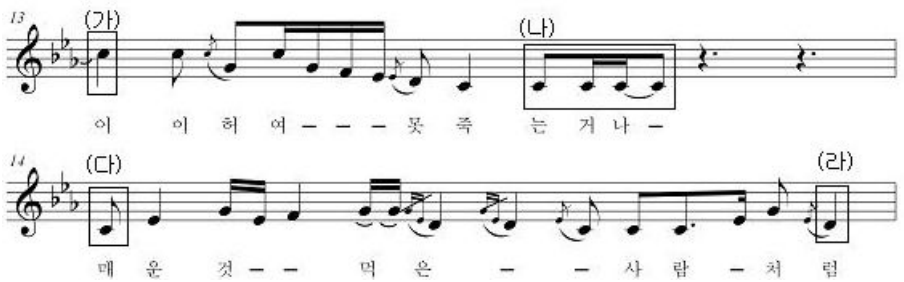
다음 [악보 15]의 제 13장단은 제 4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낮은 c음으로 끝난다. 네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은 c음으로, 선율이 순차적으로 하행 진행하면서 장단 안에서 선율이 이완된다. 이는 제 4단락이 이 대목의 마지막 단락으로, 곡의 이완을 위해 마지막 단락의 내드름에서부터 이완 선율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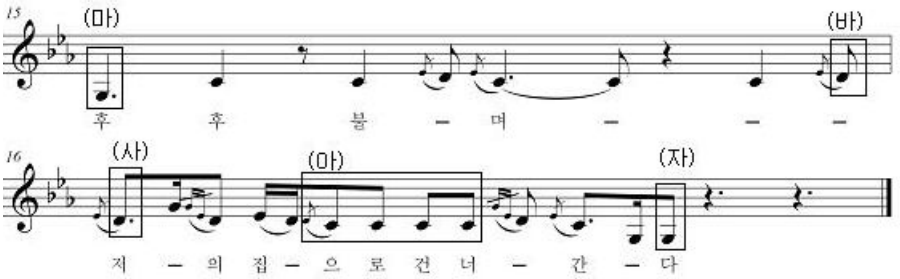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해서 d음으로 끝난다.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c음을 기준으로 전개된다. 이 장단은 단락 내에서 선율이 발전하는 부분으로, 시김새를 통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제 2박에서부터 기준음 c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 장단은 단락 내에서 선율의 이완을 돕는 선율로, 동일한 음을 반복하며 평평하게 선율이 진행된다.

제 16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사)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또한 (아)에서 보듯이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c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에 해당하여 단락 내 선율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악보 15] '여보 형수씨' 대목의 제 4단락





요컨대, ‘여보 형수씨’ 대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에서 기준음인 g음이 영향을 주며, 변형된 내드름 선율이 나타난다. 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e♭음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 제 2단락은 내용의 흐름상 선율이 계속 전개되면서, 단락 내에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g음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 단락 내에 미치는 세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4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c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진행되며,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네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은 단락 전체의 선율 진행에 영향을 준다.

5. ‘박홍보가 좋아라고’

‘박홍보가 좋아라고’는 도승이 홍보 집터를 잡아주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f본청 우조로[27] 총 24장단이며,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제 1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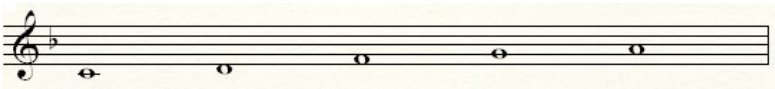
다음 [악보 16]의 제 1장단은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제 1단락의 ‘기’ 부분이며, 이 대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은 a음을 기준으로 한 음을 반복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또한 이 장단은 매우 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첫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a음으로 끝난다. 선율이 기준음 a음까지 점차 상행 진행하며,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상행한 후 g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 선율의 끝 음인 g음으로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또한 제 1-2박의 리듬꼴은 첫 번째 내드름 제 1-2박 리듬꼴과 유사하다.

제 4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특히 (사)에서 보듯이 a음에서 g음으로 가는 선율 진행은, 첫 번째 내드름 제 3-4박 선율 진행과 유사하다. 따라서 제 4장단의 제 1-2박까지는 첫 번째 내드름 선율형이 축소되어 나타나

27) f본청 우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는 것이다. 한편,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 부분으로, 단락의 이완을 위해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악보 16] '박홍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1단락

(2) 제 2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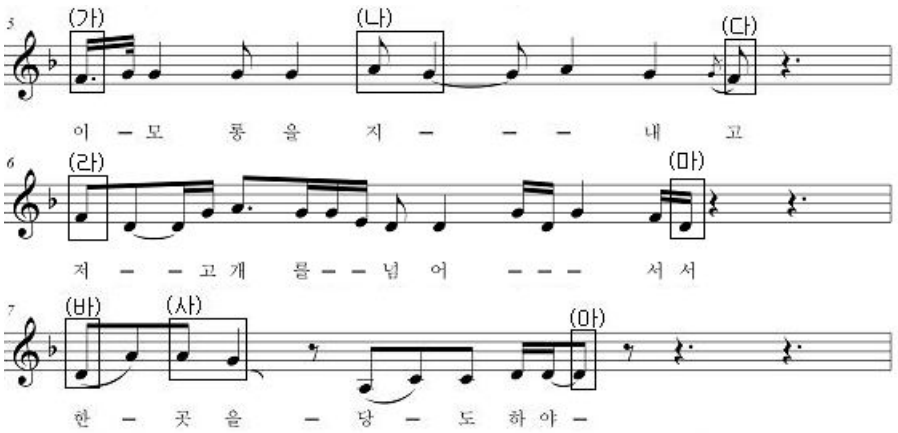
다음 [악보 17]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두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제 5박까지 소리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도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한편, (나)와 (사)에서 나타나듯이 제 7장단의 제 1-2박에서, 두 번째 내드름의 a음에서 g음으로 가는 제 3박의 선율이 나

타난다.

[악보 17]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2단락



(3) 제 3단락

다음 [악보 18]의 제 8장단은 제 3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해서 d음으로 끝난다. 세 번째 내드름은 a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한편 (나)에서 보듯이, 세 번째 내드름 제 3박에서 c음이 한 옥타브 차이를 두고 출현한다[28]. 이는 선율이 c음으로 도약 진행하면서 c음을 강조하고, 다음 장단에 출현할 선율을 예시한 것이다.

제 9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a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상행한 후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c음을 반복,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다.

제 10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에서 시작하여 c음으로 하행한 후 a음으로 끝난다. 선율이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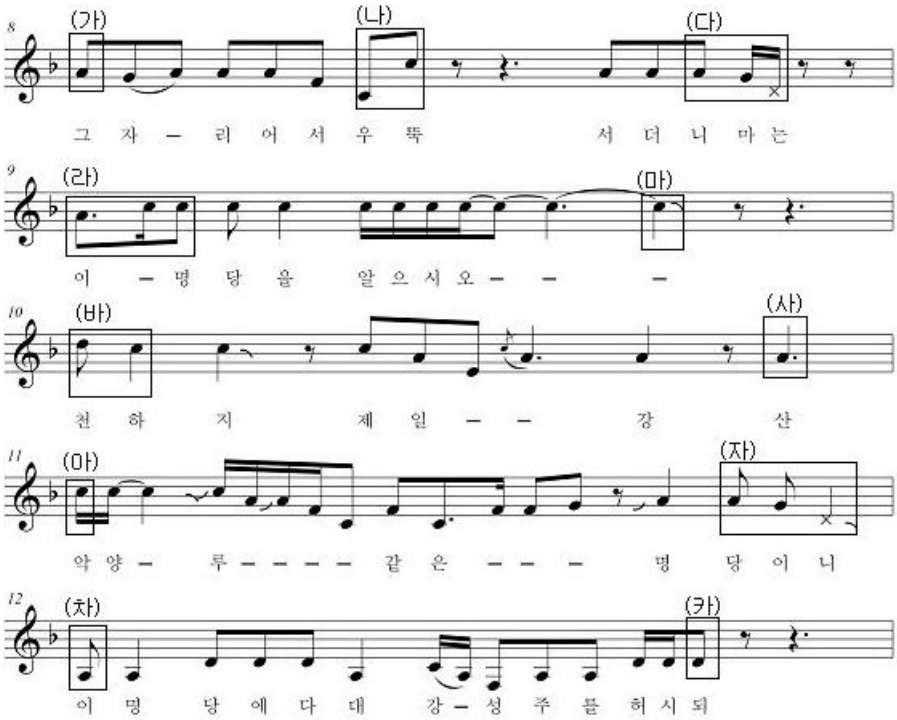
제 11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28) 가사 '우뚝'을 강조하는 효과이다.

시작해서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특히 제 5-6박의 선율 진행은 (다)와 (자)에서 보듯이, 세 번째 내드름 제 5-6박의 선율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제 12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 a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a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 부분으로 단락의 이완을 위해 낮은 음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선율이 이완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18]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3단락



(4) 제 4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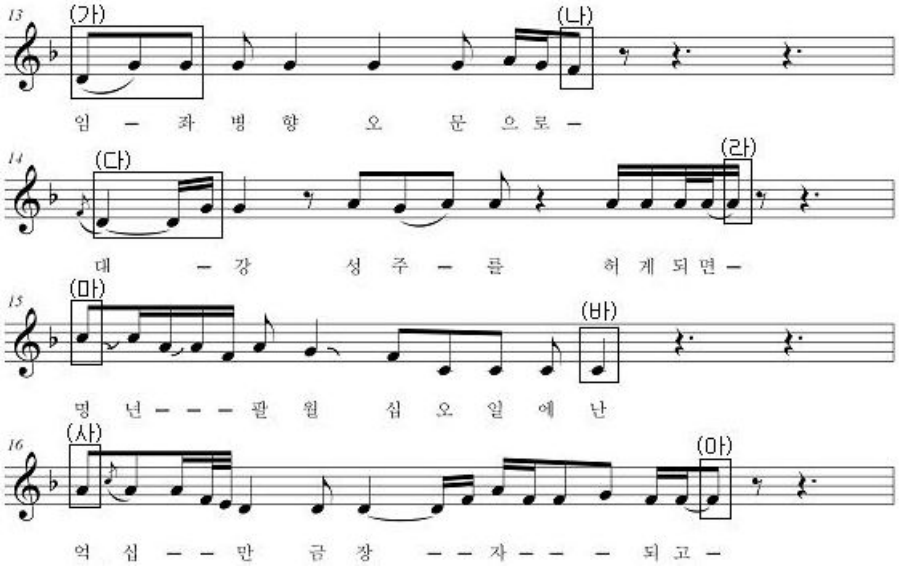
다음 [악보 19]의 제 13장단은 제 4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에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네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은 g음으로, g음을 반복하다가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에서 시작하여 a음으로 끝난다. 특히 제 1박의 선율은 네 번째 내드름의 제 1박 선율을 변형한 것으로, d음에서 g음으로 상행하는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5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이보다 한 옥타브 낮은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점차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한편,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16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계속 전개되면서,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19]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4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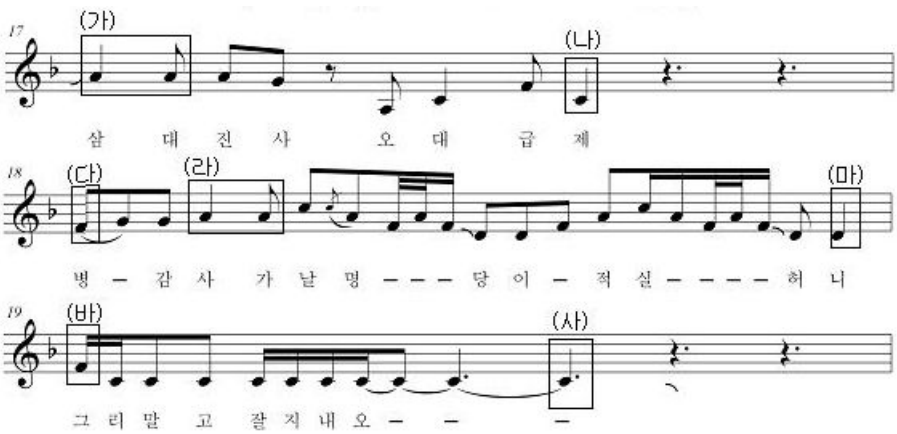
(5) 제 5단락

다음 [악보 20]의 제 17장단은 제 5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다섯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a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18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다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특히 (라)에서 보듯이, 제 2박의 선율과 리듬꼴은 다섯 번째 내드름의 제 1박 선율, 리듬꼴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발전하는 부분으로, 많은 시김새를 통해 복잡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9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c음을 반복하는 단순한 선율 진행이며, 다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그러나 제 19장단은 단락이 이완되는 부분으로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20]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5단락



(6) 제 6단락

다음 [악보 21]의 제 20장단은 제 6단락의 '기'부분으로, 이 대목의 여섯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여섯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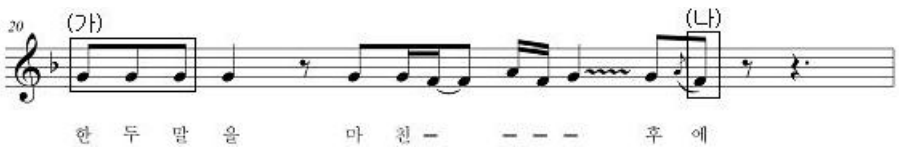
제 21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특히 (다)에서 보듯이 제 1박의 선율과 리듬꼴은, 여섯 번째 내드름의 제 1박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여섯 번째 내드름의 제 1박이 변형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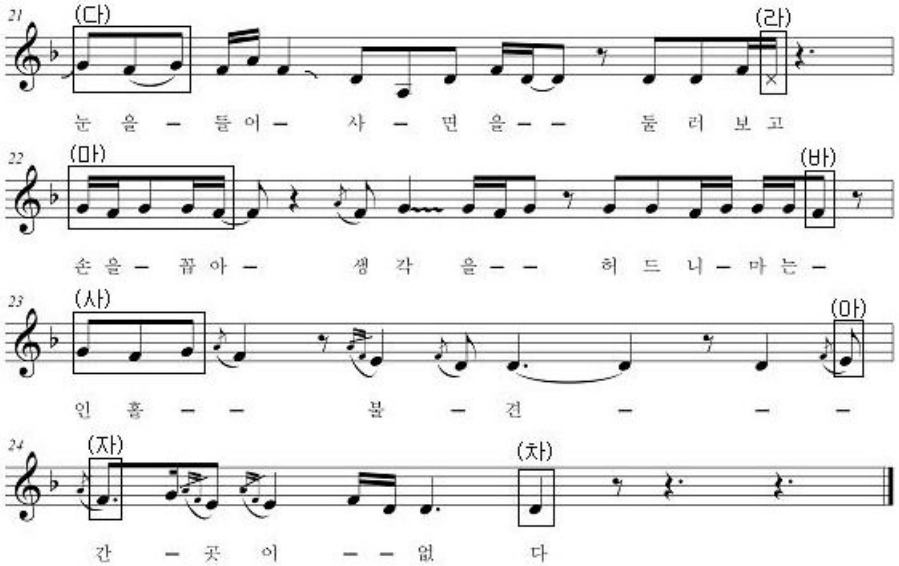
제 22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특히 (마)에서 보듯이 제 1박의 선율과 리듬꼴은, 여섯 번째 내드름의 제 1박을 변형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장단은 여섯 번째 내드름처럼 g음을 기준으로 하여 선율이 전개되고, 출현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단락 내 선율 진행의 통일감을 준다.

제 23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 특히 (사)에서 보듯이 제 1박은, 여섯 번째 내드름 제 1박과 유사한 선율과 리듬꼴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섯 번째 내드름의 시작 선율은 단락 내 시작 선율에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4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차)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 부분으로, 선율을 이완시키면서 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한편, 제 23, 24장단에서는 선율이 계면길로 바뀌어 종지한다.

[악보 21]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목의 제 6단락





요컨대, ‘박흥보가’ 대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a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내드름의 선율이 단락 내 다른 장단들의 선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이며, 단락 내에서 내드름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a음이며, 기준음은 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 영향력이 있다. 제 4단락의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 단락이 길어지면서 단락 내 네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5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a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에서 다섯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이는 대목이 길어지면서 단락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6단락의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내드름의 시작 선율이 다른 장단에서 변형되어 나타나, 단락 내에서 내드름 선율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떴다 보아라’

‘떴다 보아라’는 홍보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고쳐주어 그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가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f본청 우조[29]로 총 28장단이며, 7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제 1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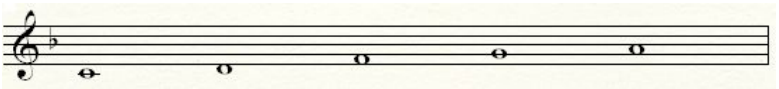
다음 [악보 22]의 제 1장단은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제 1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이 첫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에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은 a음으로, 기준음을 반복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간결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첫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a음으로 끝난다. 기준음 a음까지 점차 상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특히, (마)에서 보듯이 제 1-2박은, 첫 번째 내드름의 제 1-2박처럼 a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는 내드름의 선율과 리듬꼴이 변형된 형태로, 제 1-2박은 첫 번째 내드름의 제 1-2박과 연관성이 있다. 한편, 이 장단도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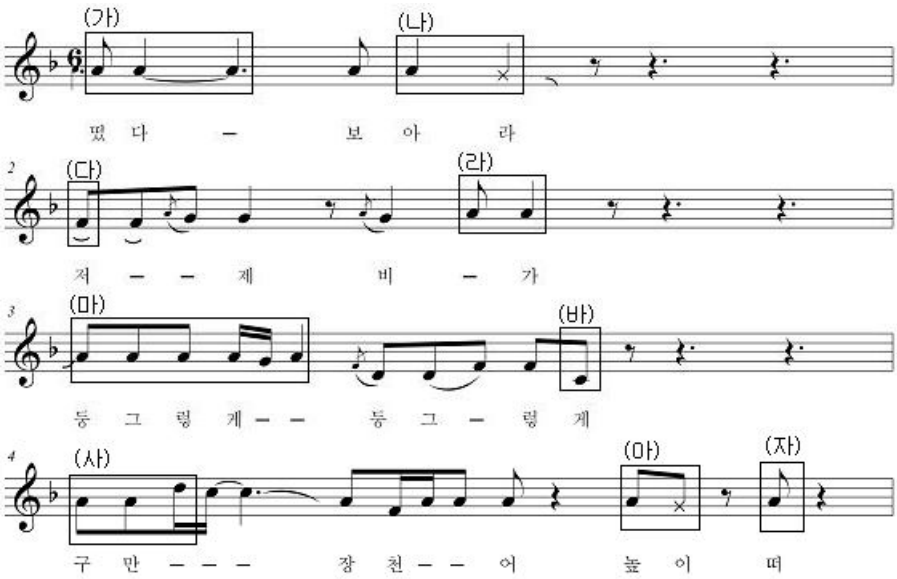
제 4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사)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첫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a음으로 시작하여 a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첫 번

29) f본청 우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이 기준음이며, (사)에서 보듯이 d음에서부터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편 (아)에서 나타나듯이 제 5박의 선율 진행은, 첫 번째 내드름의 제 3-4박의 선율 진행과 동일하다.

[악보 22]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1단락



(2) 제 2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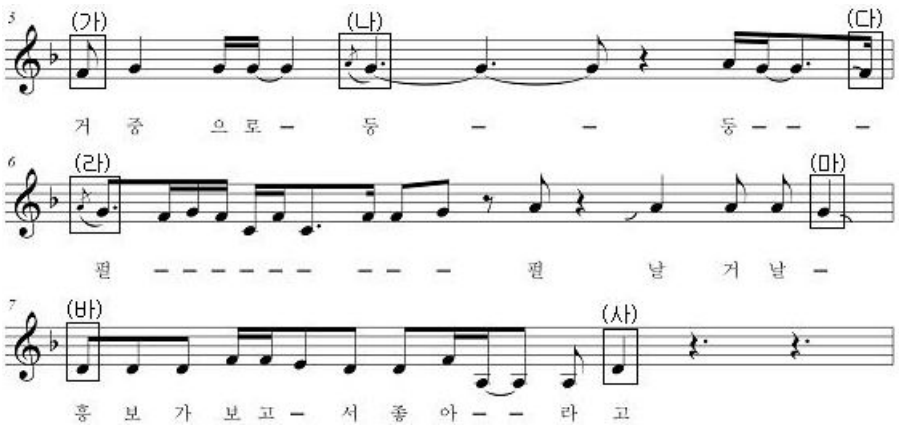
다음 [악보 23]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 그리고 (다)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에서 시작하여 g음을 거쳐 다시 f음으로 끝난다.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나)에서 보듯이 한 음을 지속하는 평평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도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특히 (라)에서 보듯이 이 장단의 시작 선율은, (나)에서 나타나듯 두 번째 내드름 제 3박의 선율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이 다음 장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결결해' 중 선율이 이완되는 '해'에 해당하여, 단락의 선율을 이완시키면서 두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23]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2단락



(3) 제 3단락

다음 [악보 24]의 제 8장단은 문장의 흐름상 단락이 바뀌면서 나타난 제 3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이 음을 반복하다가 g음으로 끝난다. 세 번째 내드름은 한 음을 반복,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은 g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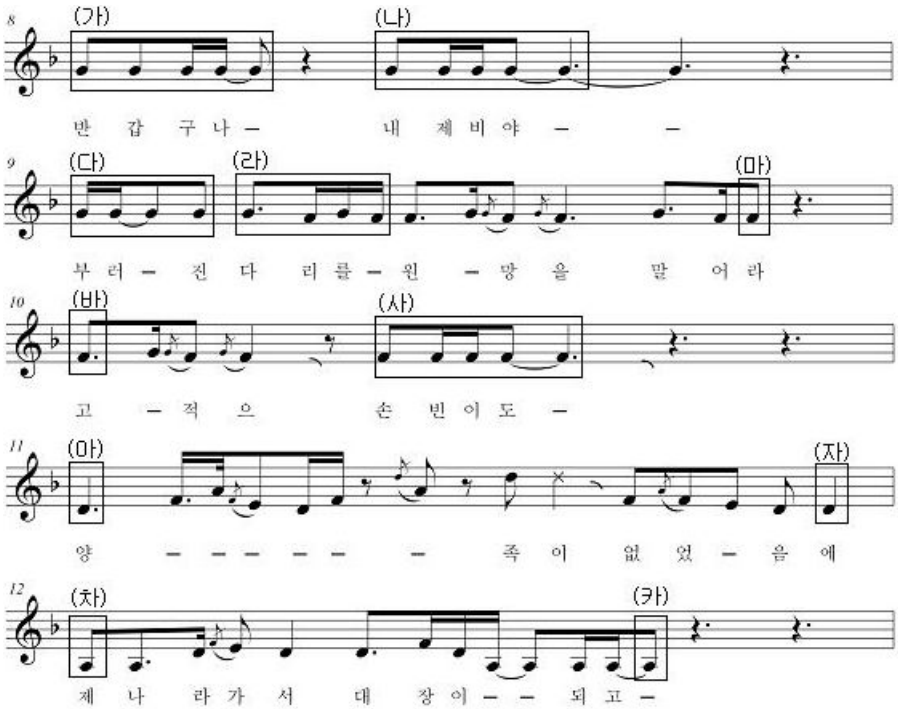
제 9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특히 (다)와 (라)에서 보듯이, 제 1-2박의 선율과 리듬꼴은, 세 번째 내드름의 선율과 리듬꼴에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제 9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 연관성이 있다.

제 10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세 번째 내드름과는 다르게 선율이 f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한편 (사)에서 보듯이 제 3-4박의 리듬꼴은, (나)에서 나타나듯 세 번째 내드름의 제 3-4박의 리듬꼴과 동일하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d음에서 한 옥타브 높은 d음으로 상행했다, 다시 한 옥타브 낮은 d음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제 11장단은 '기경결해' 중 음악의 절정인 '결'에 해당하여, 복잡한 선율의 변화로 인해 세 번째 내드름의 영향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2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해서 a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단락을 이완시키는 선율로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은 없다.

[악보 24]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3단락



(4) 제 4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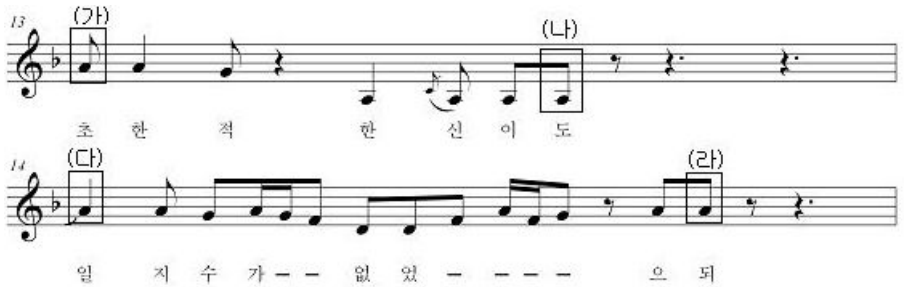
다음 [악보 25]의 제 13장단은 단락의 내용이 바뀌면서 나타난 제 4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그보다 한 옥타브 낮은 a음으로 끝난다. 네 번째 내드름은 a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선율이 급격히 하행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한편, 이 장단은 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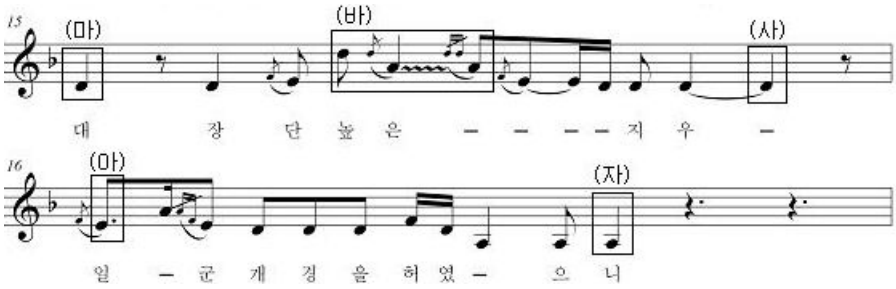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해서 a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경'에 해당하며,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한편 제 1-3박은 선율이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한편,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시작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d음으로 도약하였다가 a음을 거쳐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 장단은 음악의 절정인 '결'에 해당하여, 복잡한 선율 변화가 생기면서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6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a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 부분으로,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편,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악보 25]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4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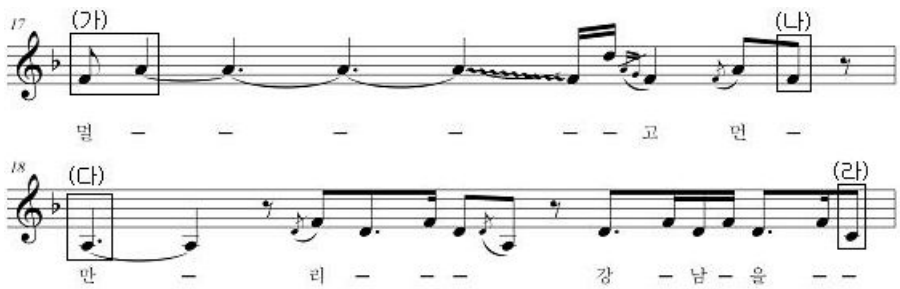
(5) 제 5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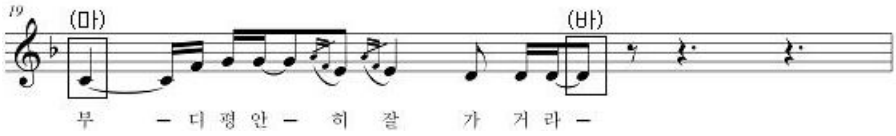
다음 [악보 26]의 제 17장단은 제 5단락이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다섯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을 거쳐 a음으로 전개되며 다시 f음으로 끝난다. 다섯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은 a음으로, a음을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8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다섯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 a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a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계속 발전하면서 다섯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9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단락 안에서 선율이 이완되는 부분으로, 다섯 번째 내드름의 영향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26]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5단락





(6) 제 6단락

다음 [악보 27]의 제 20장단은 단락의 내용이 바뀌면서 나타난 제 6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여섯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해서 g음을 거친 후 다시 f음으로 끝난다. 여섯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1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a음으로 끝난다. (라)에서 나타나듯, 이 장단의 시작 선율은, (나)에서 보듯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제 3박과 유사하다. (라)는 (나)와 동일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으며, a음에서 g음으로 진행되는 선율로 되어 있다.

제 22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f음으로 시작하며, 선율이 급격히 하락한 후 a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 시작음은 같으나, 단락 내 선율이 계속 전개되면서 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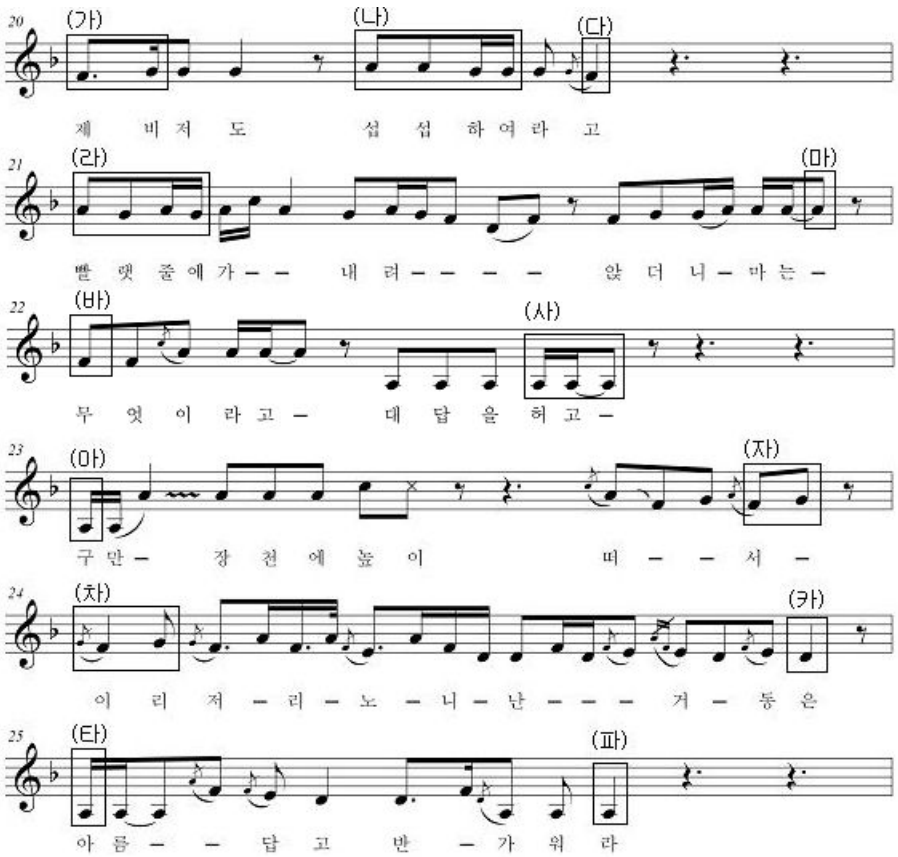
제 23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제 1박에서 한 옥타브 차이를 두고 선율이 도약하여 상행한 후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또한 (자)에서 보듯이 제 6박의 선율은, (가)에서 나타난 여섯 번째 내드름의 시작 선율과 유사하다.

제 24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g음을 거친 후 d음으로 끝난다. (차)에서 나타나듯 이 장단의 시작 선율은, (가)에서 보듯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시작 선율과 유사하다. 그러나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발전되면서, 시작 선율 이후의

선율 진행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5장단은 제 6단락의 마지막 장단으로, 아래 악보의 (타)와 (파)에서 보듯이 a음으로 시작해서 a음으로 선율이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에 해당하여, 단락을 이완시키는 선율이다. 그리하여 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27]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6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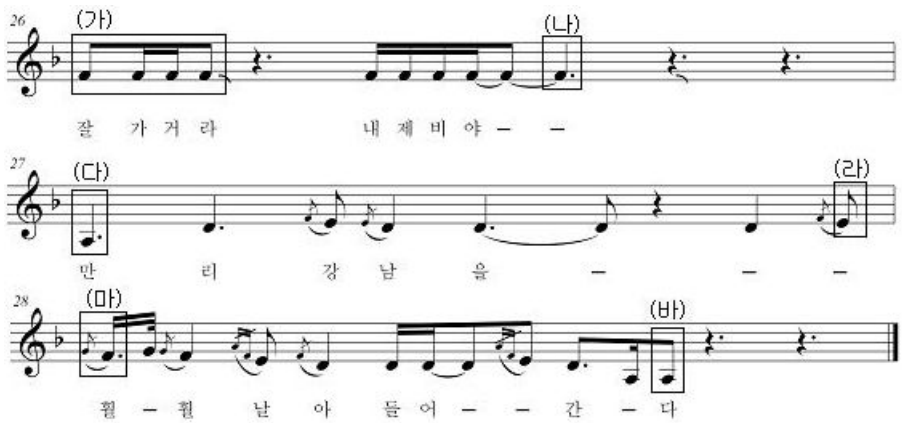
(7) 제 7단락

다음 [악보 28]의 제 26장단은 제 7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일곱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일곱 번째 내드름은 한 음을 반복,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이로 인해 일곱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은 f음이다. 또한 일곱 번째 내드름은, 제 3단락의 '기' 부분인 제 8장단과 유사한 가사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제 8장단처럼 f음을 반복, 지속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유사한 가사가 반복될 때, 선율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7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a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일곱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8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a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의 시작음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f음이나, 단락의 선율을 이완시키면서 일곱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한편, 제 26, 27, 28장단에서는 선율이 계면길로 바뀌면서 이 대목이 끝난다.

[악보 28] '떴다 보아라' 대목의 제 7단락



요컨대, ‘떴다 보아라’ 대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a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한 음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며, 단락 전체에 첫 번째 내드름 선율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이며, 단락 내 다른 장단에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영향이 나타난다. 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으로, g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단락 내에서 세 번째 내드름의 선율과 리듬꼴이 영향을 준다. 제 4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a음으로 급격히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단락 내에서 다른 장단들에 기준음 a음과, 하행하는 선율 진행으로 영향을 준다. 제 5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a음으로, 단락 내에서 다섯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6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단락 내에서 여섯 번째 내드름의 선율과 리듬꼴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다. 제 7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f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음을 반복하는 선율이다. 그러나 단락 내에서 일곱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대목이 길어지면서 단락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대목의 뒷부분에 위치한 단락에서는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7. ‘시르렁 실건(첫 번째 박타령)’

‘시르렁 실건’은 흥보가 첫째 박을 타는 내용으로, 박타령이라 불리우며 흥보가 중 가장 눈대목으로 꼽힌다. 첫 번째 박타령은 가사가 구어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렴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대목은 c본청 계면조[30]로 총 32장단이며, ‘기경결해’를 갖춘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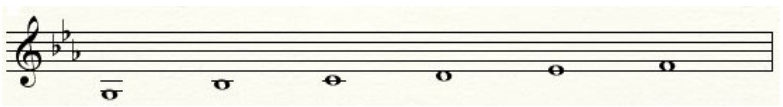
(1) 제 1단락

다음 [악보 29]의 제 1장단은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제 1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에서부터 흘러내리듯 하행하여 g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은 톱 소리를 묘사한 부분으로, 기준음은 g음이나 불분명한 음으로 선율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첫 번째 내드름은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제 1단락의 기준음인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 선율의 끝 음은 첫 번째 내드름 선율의 끝 음과 같다. 또한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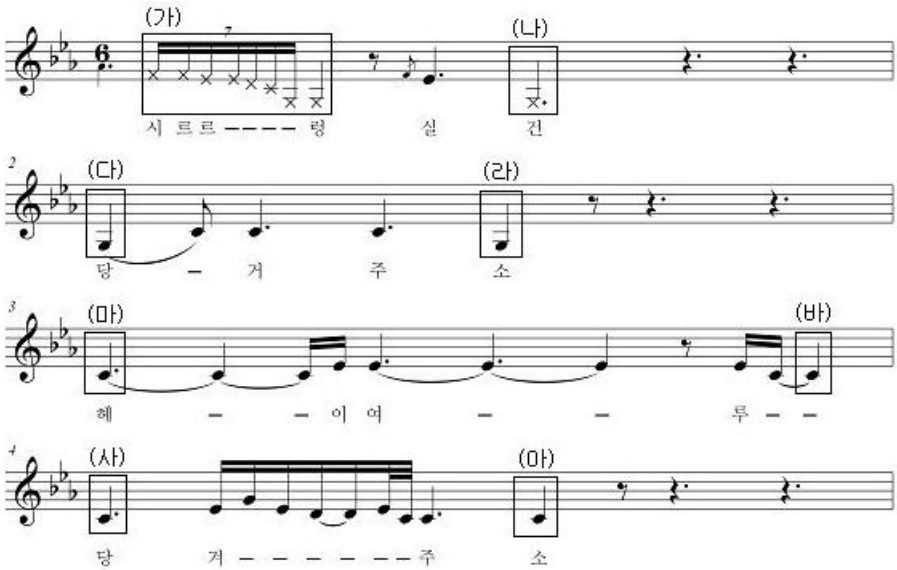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제 3박에서부터 e♭음을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 앞의 두 장단과는 다르게 제 6박까지 소리한다. 이는 제 3장단이 ‘기경결해’ 중 선율이 발전하면서 절정으로 가는 ‘결’ 부분으로, 선율이 제 6박까지 계속 펼쳐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첫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30) 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c음을 사이에 두고, 제 2박에서 복잡한 시김새를 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악보 29]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1단락



(2) 제 2단락

다음 [악보 30]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이 음을 반복하다가 g음으로 끝난다. 두 번째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으로, 동일한 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또한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g음을 거친 후 다시 e♭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도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특히 (라)에서 보듯이 제 3-4박의 선율과 리듬꼴은, (나)에서 나타나듯 두 번째 내드름의

제 3-4박과 유사하다. 제 6장단의 제 3-4박은 두 번째 내드름의 제 3-4박의 선율과 리듬꼴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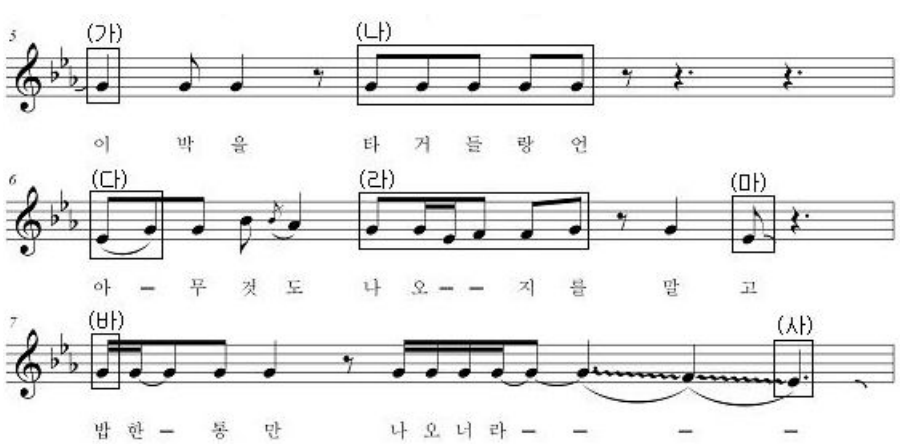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과 같이 기준음이 g음으로, g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는 제 7장단이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기'의 반복이다. 한편 제 4박에서부터는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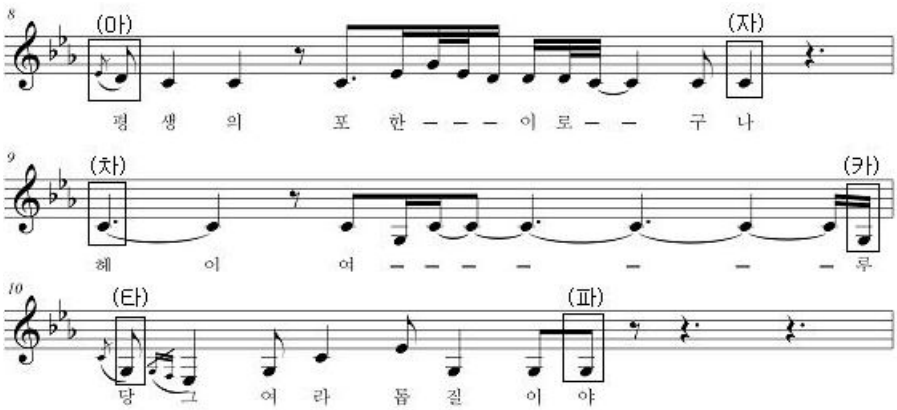
제 8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 부분으로, 선율을 이완시키면서 두 번째 내드름과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9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두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다시 후렴구의 시작으로, 제 1단락의 제 3-4장단과 선율의 시작이 같다. 그러나 제 9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0장단은 아래 악보의 (타)와 (파)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또한 제 10장단은 제 9장단과 마찬가지로 후렴구이면서, 단락의 이완시키는 부분이다.

[악보 30]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2단락





(3) 제 3단락

다음 [악보 31]의 제 11장단은 단락의 내용이 바뀌면서 나타난 제 3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세 번째 내드름은 c음을 기준으로 반복, 지속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c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또한 선율이 제 4박의 g음까지 점차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 1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나타나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단락 내에서 선율이 점차 전개되는 부분으로 세 번째 내드름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c음이 기준음이며, c음을 사이에 두고 선율이 전개된다. 이는 세 번째 내드름 선율에서 변화되어 발전한 것으로, 제 14장단은 '기'의 변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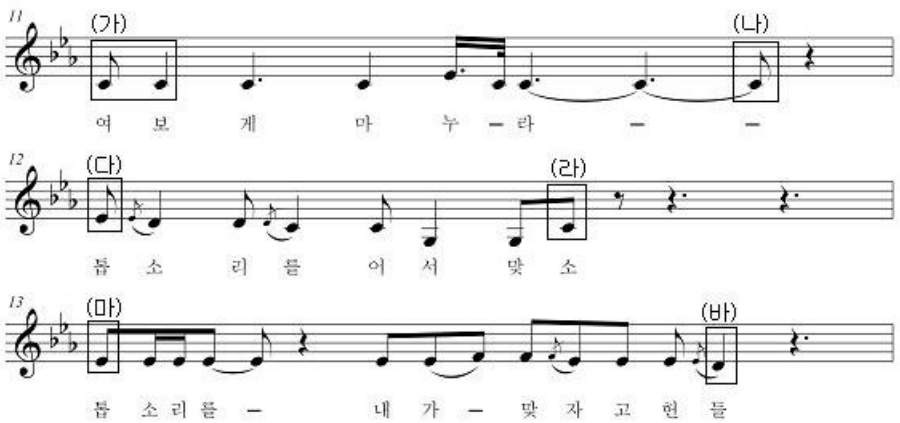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차)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발전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한편, 제 1-2박의 리듬꼴은 세 번째 내드름의 제 1-2박 리듬꼴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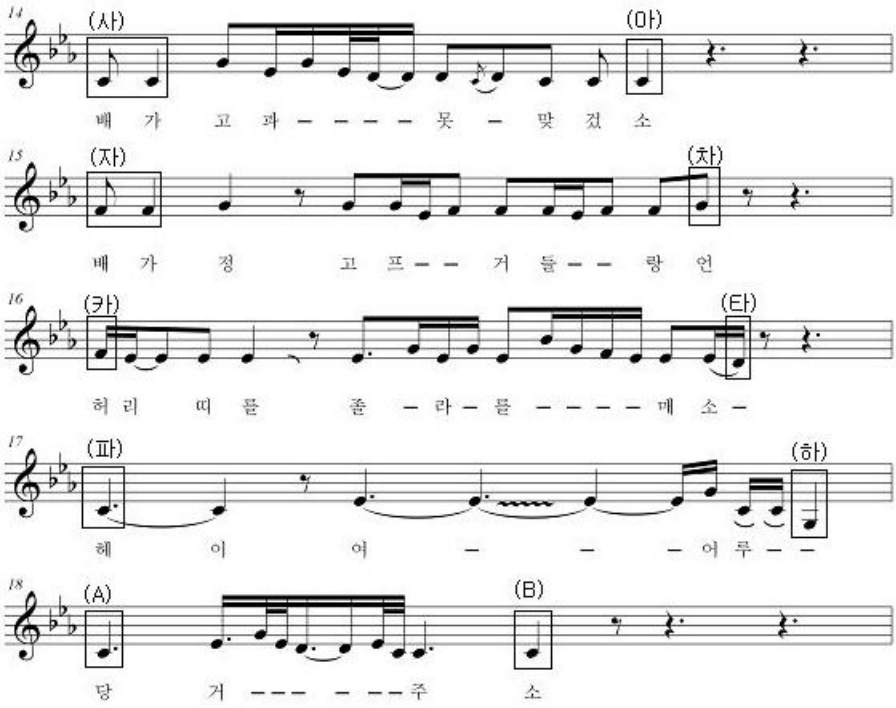
제 16장단은 아래 악보의 (카)와 (타)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e♭음을 기준으로 전개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계속 전개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는 다른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7장단은 아래 악보의 (파)와 (하)에서 보듯이, 선율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c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후렴구로, 같은 후렴구인 제 1단락의 제 3장단과 선율 진행이 유사하다.

제 18장단은 아래 악보의 (A)와 (B)에서 보듯이, 선율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도 역시 후렴구로, 같은 후렴구인 제 1단락의 제 4장단과 선율 진행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악보 31]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3단락





(4) 제 4단락

다음 [악보 32]의 제 19장단은 제 4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 네 번째 내드름은 (나)에서 보듯이, f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제 20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f음을 거쳐 e♭음으로 끝난다.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f음을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특히 (라)에서 보듯이, 제 3-4박의 선율 진행은, (나)에 나타나듯 네 번째 내드름의 제 2-3박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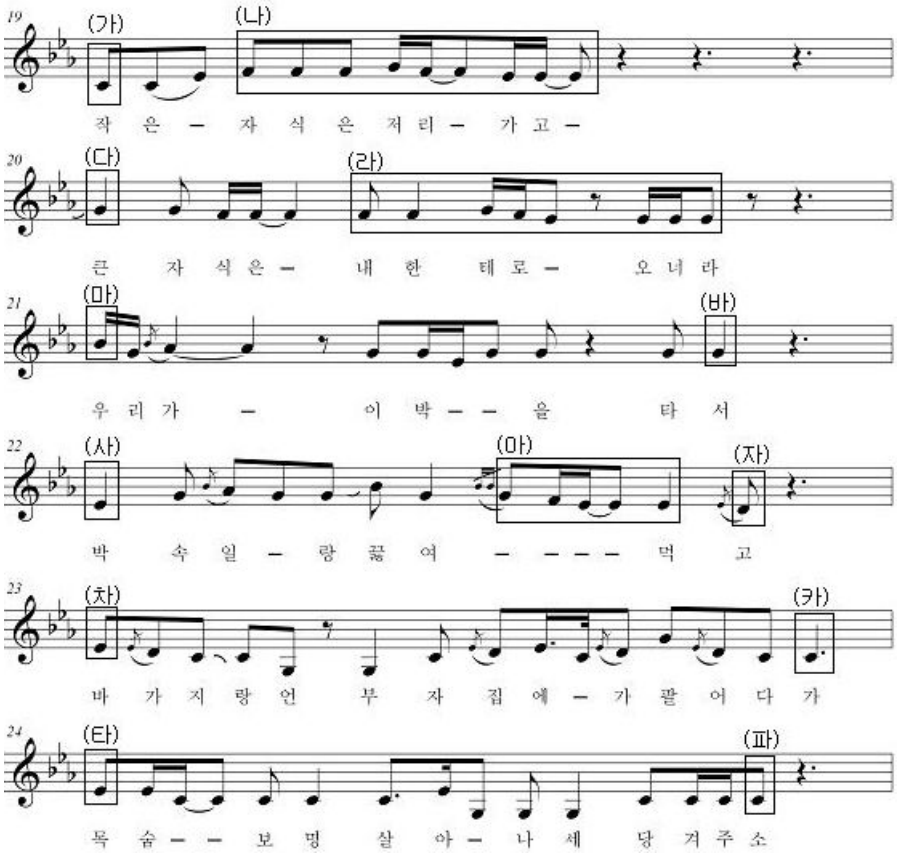
제 21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b♭음에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2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아)에서 보듯이 제 4박의 선율 진행이 네 번째 내드름의 제 3박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편, 제 3박에서부터 선율의 하행 진행이 나타난다.

제 23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계속 발전하는 부분으로,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4장단은 아래 악보의 (타)와 (파)에서 보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제 1박에서부터 제 4박까지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 장단은 단락을 이완시키는 역할로,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32]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4단락



(5) 제 5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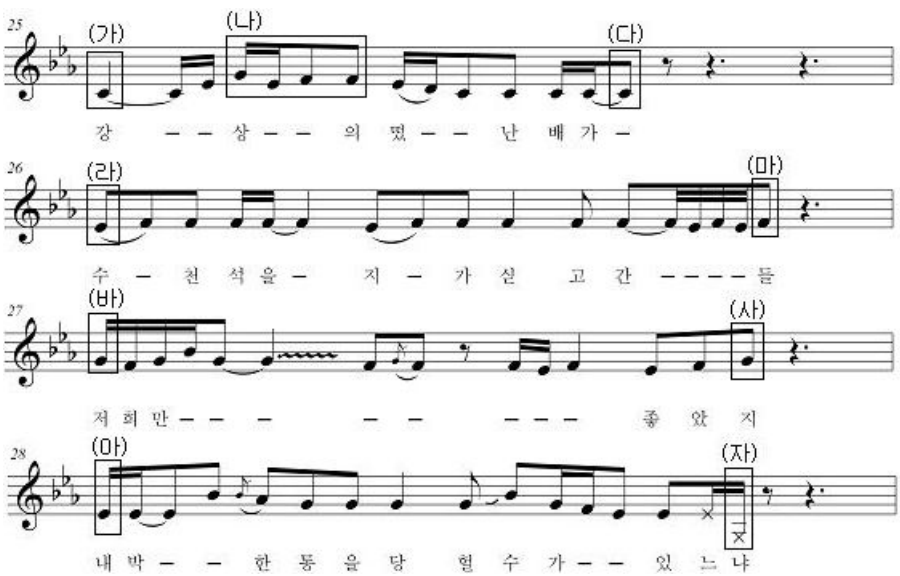
다음 [악보 33]의 제 25장단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제 5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다섯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다섯 번째 내드름은 c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에서는 (나)에서 나타난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제 27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도 (나)에서 나타난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이 변형되어 나타난 선율이다.

제 28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에 해당하며, 제 2박에서부터 선율이 점차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선율의 하행 진행으로 단락을 이완시키면서, 다섯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33]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5단락



(6) 제 6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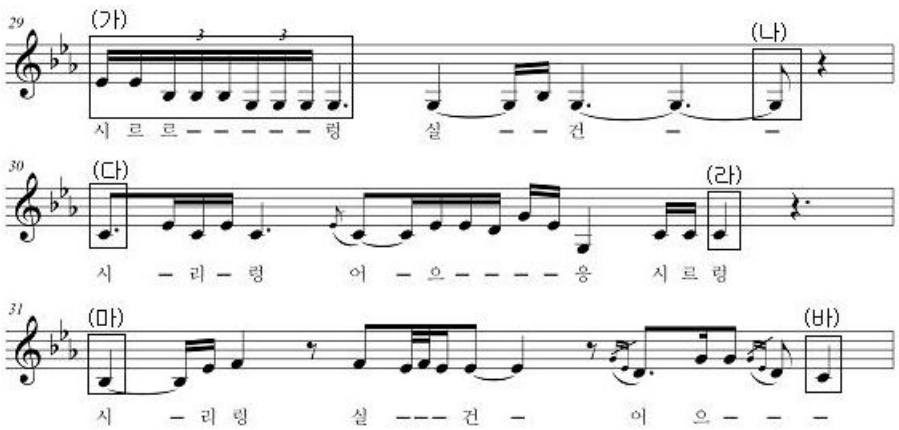
다음 [악보 34]의 제 29장단은 제 6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여섯 번째 내드름이다. 여섯 번째 내드름은 다시 톱 소리를 묘사한 내용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부터 하행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g음을 기준으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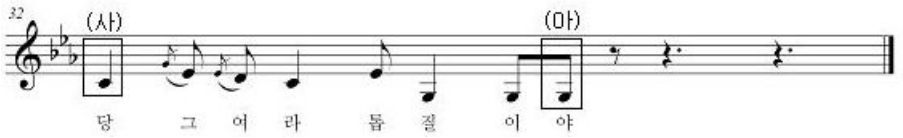
제 30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톱 소리를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 장단은 c음을 기준으로 한 선율 진행으로, 여섯 번째 내드름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제 31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역시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톱 소리를 묘사하였다. 그러나 여섯 번째 내드름과는 다른 선율 진행으로, 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은 약하다.

제 32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 부분으로, 선율이 점차 하행 진행하며 단락을 이완시킨다. 한편, 이 장단의 끝 선율은, (나)와 (아)에서 보듯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과 동일하다.

[악보 34] '시르렁 실건' 대목의 제 6단락





요컨대, ‘시르렁 실건’ 대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이고, 불분명한 음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이는 첫 번째 내드름이 톱 소리를 묘사한 소리이기 때문이다. 제 1단락은 이 대목에서 후렴구(제 3-4장단)을 포함하고 있어, 단락 내에 미치는 내드름의 영향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으로 g음을 반복하는 선율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에서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변형, 반복이 나타나나, 후렴구에서는 그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c음으로, c음을 반복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단락 내에서 기준음 c음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선율이 계속 전개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4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f음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에서 네 번째 내드름 선율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러나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계속 변화하면서,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5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c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다섯 번째 내드름의 부분적인 선율이, 단락 내 다른 장단의 선율 진행에 영향을 준다. 제 6단락의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 제 6단락은 톱 소리를 묘사한 이 대목의 마지막 단락이다. 그리하여 단락이 이완되면서, 단락 내 여섯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8. ‘시리렁 실건(두 번째 박타령)’

‘시리렁 실건’은 흥보가 두 번째 박을 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가사는 앞의 첫 번째 박타령과 유사하게 대화체로 되어 있으며, 톱 소리를 묘사한 후렴구가 특징이다. 이 대목은 c본청 계면조[31]로 총 28장단이며, 6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제 1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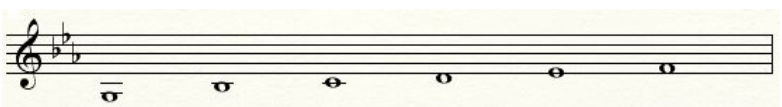
다음 [악보 35]의 제 1장단은 톱소리를 묘사한 부분으로, 제 1단락의 ‘기’에 해당하며 이 대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을 반복하다가 f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진행되며, 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 4박까지 소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에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경’에 해당하여,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발전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한 음으로 지속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편, 제 3장단은 변화가 많은 ‘결’ 부분으로, 첫 번째 내드름과의 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제 6박까지 선율이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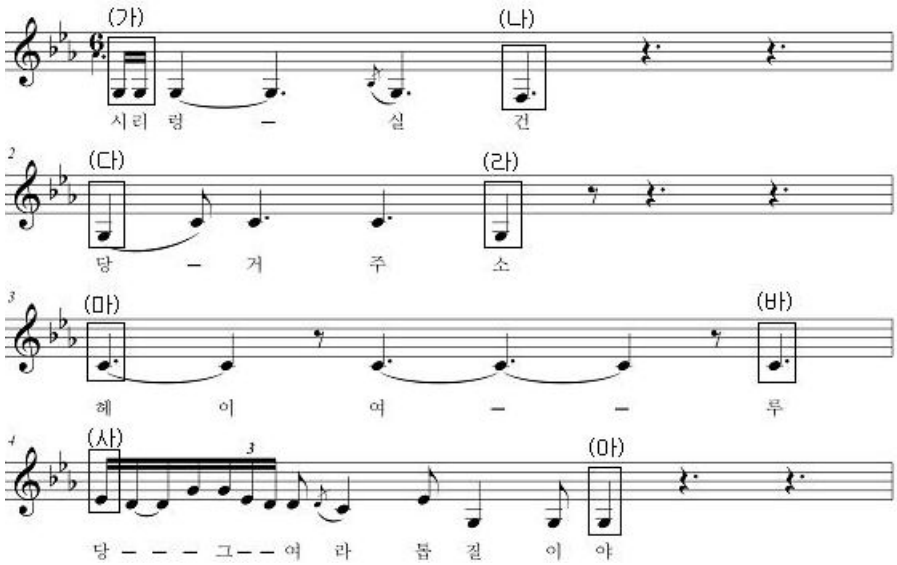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첫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해’ 부분

31) 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으로, 하행하는 선율이 나타나면서 단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악보 35]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1단락



(2) 제 2단락

다음 [악보 36]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의 '기'에 해당하며, 이 대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이 음으로 반복하다가 g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은 g음이며, 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제 4박까지 소리하는 구조로 전형적인 내드름의 형태가 나타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두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시작하여 e♭ 음으로 끝난다. (다)에서 보듯이 이 장단의 시작 리듬은, 두 번째 내드름이 시작 리듬과 동일하다. 한편, 제 2박에서부터 선율의 하행 진행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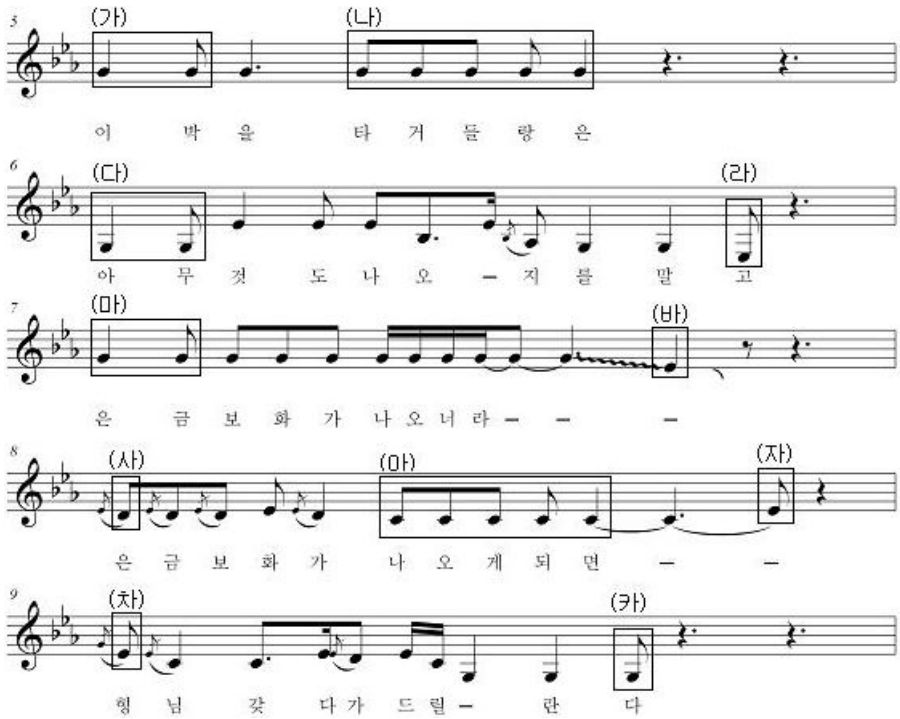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을 반복하다가 e♭ 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의 시작 리듬은 (마)와 (가)에서 보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시작 리듬과 동일하다. 또한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기준음 g음을 반복하는 선율로 나타난다. 이

로 인해, 제 7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 선율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 4박에서부터 선율이 점차 하행 진행한다.

제 8장단에서는 아래 악보의 (사)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해서 c음을 거쳐 e♭음으로 상승하며 끝난다. 이 장단은 두 번째 내드름의 선율과 큰 연관성은 없다. 그러나 (아)에서 보듯이 제 3-4박의 리듬꼴은, (나)에서 보듯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3-4박 리듬꼴과 동일하다.

제 9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두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에 해당하여, 제 2박에서부터 선율이 점차 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제 9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면서, 두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36]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2단락



(3) 제 3단락

다음 [악보 37]의 제 10장단은 대화의 주체가 홍보에서 홍보 마누라로 바뀌면서 나타난 단락이며, 이 대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그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끝난다. 세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에서 시작하여 e♭ 음으로 끝난다. 또한 (라)에서 보듯이 제 2박은, 세 번째 내드름의 (가)와 유사하다. 그리하여 이 장단은 제 2박에서부터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점차 하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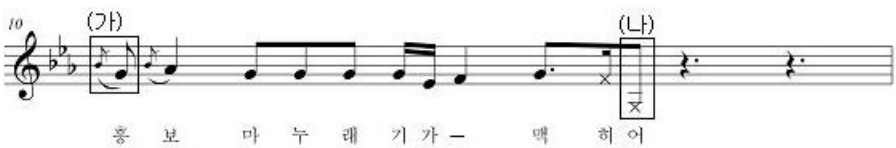
제 12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e♭ 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계속 전개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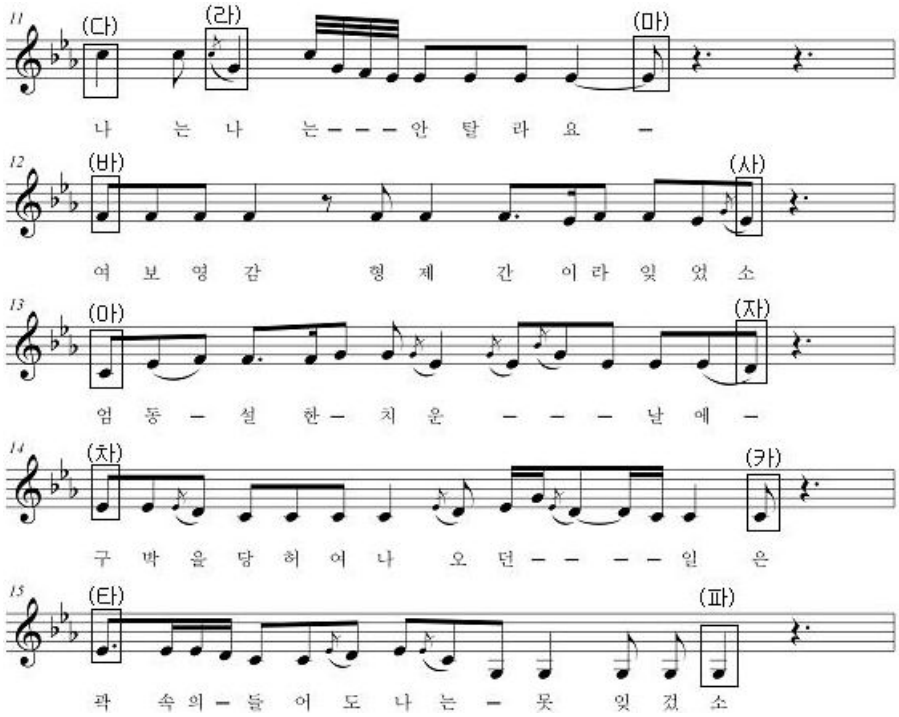
제 13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앞의 제 12장단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계속 전개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차)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앞의 제 12, 13장단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계속 발전하면서 세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 박타령의 가사는 대화체로 이루어져 가사만으로 분위기와 상황 전달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타)와 (파)에서 보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 부분으로 점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다. 한편 제 15장단 선율의 끝 음은, 세 번째 내드름 선율의 끝 음과 동일하다.

[악보 37]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3단락





(4) 제 4단락

다음 [악보 38]의 제 16장단은 대화의 주체가 다시 홍보로 바뀌면서 나타난 제 4단락의 '기'에 해당하며, 이 대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해서 b♭음을 거쳐 c음으로 끝난다. 네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은 b♭음이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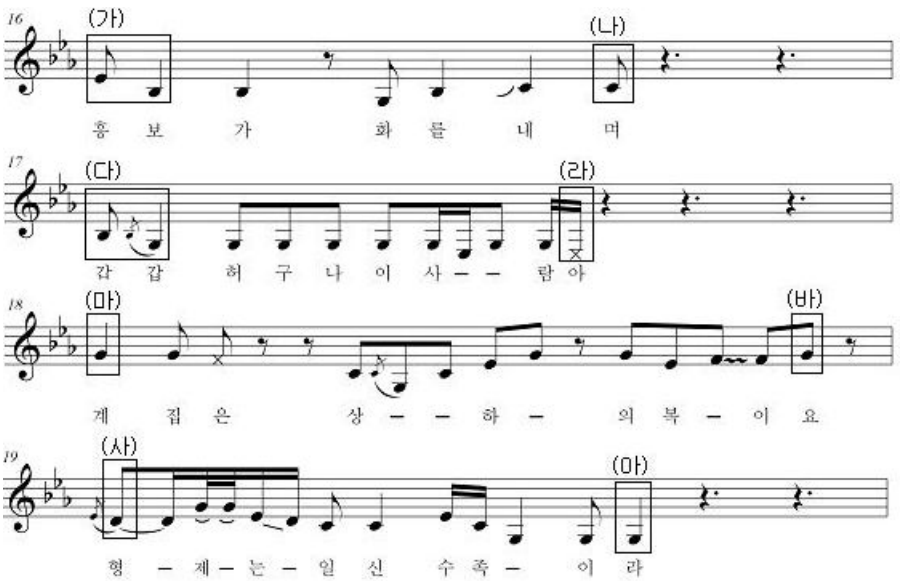
제 17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g음을 거친 후 e♭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네 번째 내드름과 다르게 g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제 18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을 중심으로 선율이 전개되다가 다시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계속 발전하는 부분으로,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다. 네 번

째 단락은 구어체로 구성된 가사의 특징으로 인해, 가사에 영향을 받아 선율이 진행된다. 따라서 제 17, 18 장단은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9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 부분으로, 선율이 점차 하행 진행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그리하여 제 19장단은 단락을 이완시키면서, 네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38]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4단락



(5) 제 5단락

다음 [악보 39]의 제 20장단은 제 5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다섯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해서 이 음으로 선율을 진행되다 g음으로 끝난다. 다섯 번째 내드름은 e♭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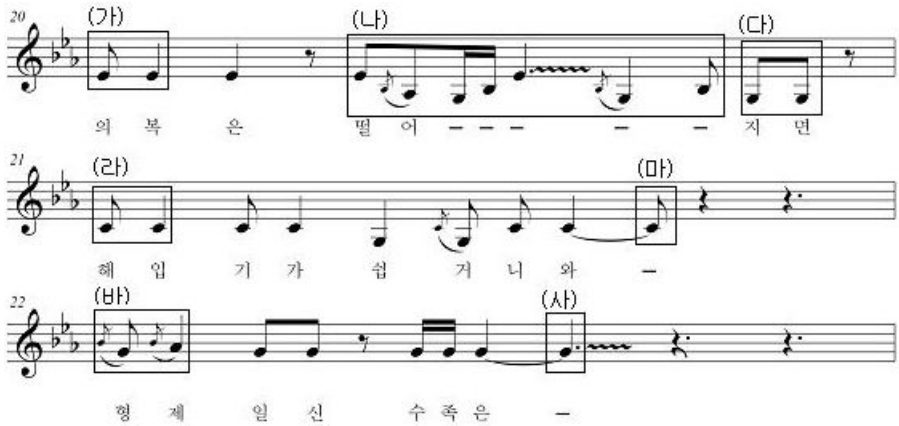
제 21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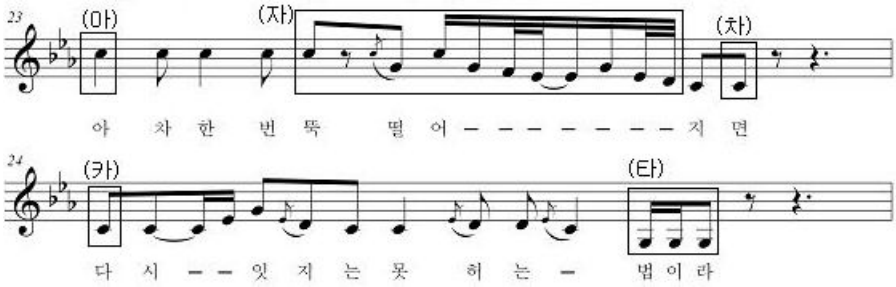
제 22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동일한 음을 반복하다가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g음을 반복하는 선율로 다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3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차)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그보다 한 옥타브 낮은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순차적으로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제 23장단은 음악의 절정인 '결' 부분으로, (자)에서 보듯이 시김새를 통한 복잡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자)의 가사는 '뚝 떨어'로, 이와 유사한 가사가 다섯 번째 내드름의 (나)에 출현한다. (나)의 가사 '떨어'는, (자)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시김새를 통한 선율 진행이 나타났다. 이 장단은 선율이 보다 발전하면서 다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24장단은 아래 악보의 (카)와 (타)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의 끝 선율은 다섯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과 마찬가지로 g음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선율 진행에는 다섯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39]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5단락





(6) 제 6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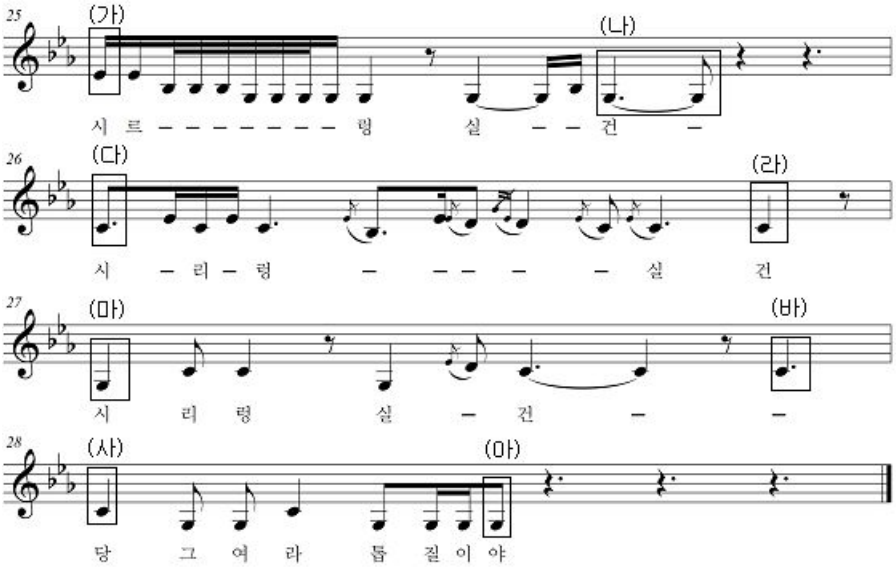
다음 [악보 40]의 제 25장단은 ‘시리렁 실건’ 마지막 단락의 ‘기’에 해당하며, 이 대목의 여섯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에서 점차 하행 진행하여 g음으로 끝난다. 여섯 번째 내드름은 톱 소리를 묘사한 부분으로,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제 2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톱 소리를 묘사한 선율로, 선율이 계속 전개되면서 여섯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여섯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도 역시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톱 소리를 묘사한 선율이다. 그리하여 선율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장단은 여섯 번째 내드름의 영향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28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여섯 번째 내드름이 기준음인 g음으로 끝난다. 여섯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또한 이 장단은 선율이 이완되는 ‘해’ 부분으로, 선율이 하행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악보 40] ‘시리렁 실건’ 대목의 제 6단락



요컨대, ‘시리렁 실건’ 대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 다른 장단에 기준음 g음이 영향을 준다. 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으로 g음을 반복하는 선율이 나타나며, 간단한 리듬꼴로 되어 있다. 두 번째 내드름은 선율과 리듬꼴로 단락 내에 영향을 준다. 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단락 내에서 세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네 번째 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b♭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단락 내에서 네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다섯 번째 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e♭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서 다섯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대목이 길어져서 단락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대목의 뒷부분에 위치한 단락에서는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다. 제 6단락의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톱 소리가 포함된 단락의 특징으로 인해, 여섯 번째 내드름이 단락 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9. ‘동산 앞’

‘동산 앞’은 셋째 박을 탄 후 박에서 나온 일꾼들이 흥보의 새 집을 짓는 장면으로 주로 풍경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e♭본청 우조[32]로 총 16장단이며, ‘기경결해’를 갖춘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제 1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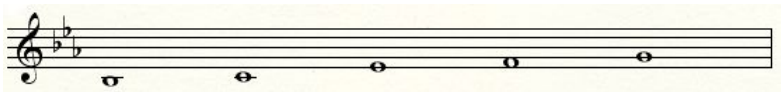
다음 [악보 41]의 제 1장단은 제 1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에서 c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로 끝난다. c음이 선율의 기준이 되어 점차 하행하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꾸민 후 c음에서 시작되며, g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c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점차 하행 진행한다. 한편, (다)와 (라)에서 보듯이, 제 1-3박까지는 내드름과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기’가 반복되며 선율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c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제 2박에서부터 선율이 하행 진행한다. 또한 첫 번째 내드름처럼 제 4박까지 소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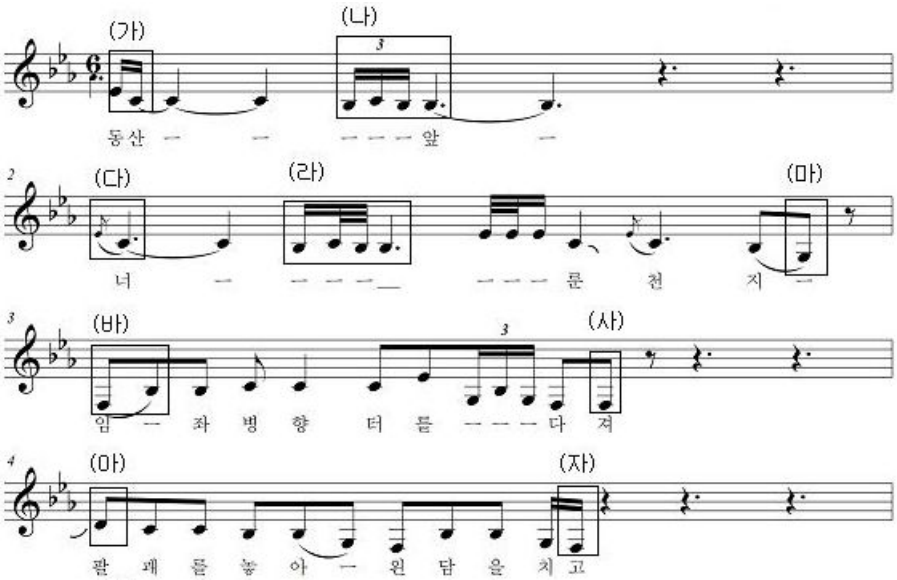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점차 하행 진행하면서 단락을 이완 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첫 번째 내드름처럼

32) e♭본청 우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악보 41] '동산 앞' 대목의 제 1단락



(2) 제 2단락

다음 [악보 42]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33]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해서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e♭음으로 끝난다. 두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제 1박의 선율과 리듬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1박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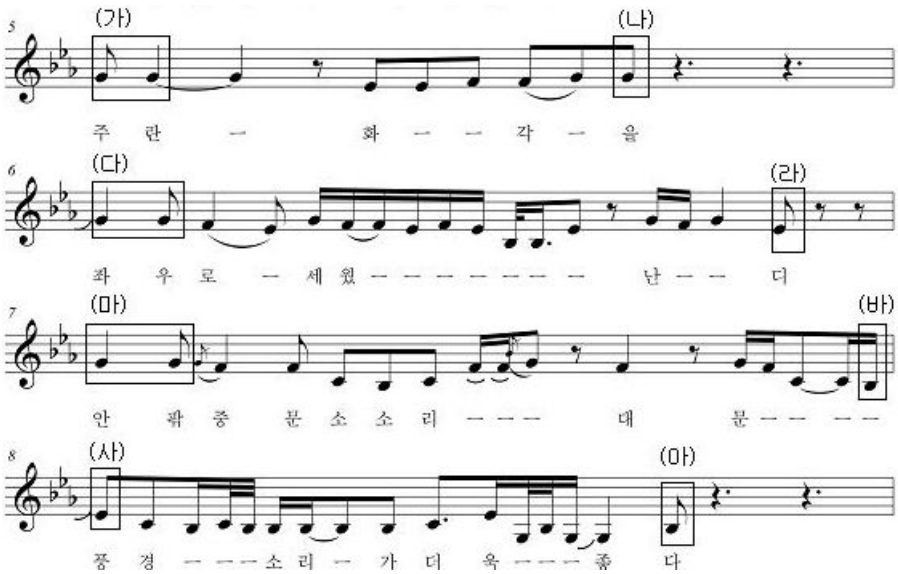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

33) 본격적으로 집 주위를 묘사하는 내용으로 음악의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나타난 단락이다.

하여 b♭음으로 끝난다. 제 6장단과 마찬가지로 선율이 g음을 기준으로 전개되며, 제 1박의 선율과 리듬이 두 번째 내드름의 제 1박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두 번째 내드름의 시작 선율과 리듬이 단락 내 다른 장단들의 시작 선율과 리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락 내 선율 진행에 통일감이 생기며, 두 번째 내드름이 다음 장단의 선율 진행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제 8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b♭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단락을 이완 시켜주는 '해' 부분으로, 선율이 하행 진행되면서 두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42] '동산 앞' 대목의 제 2단락



(3) 제 3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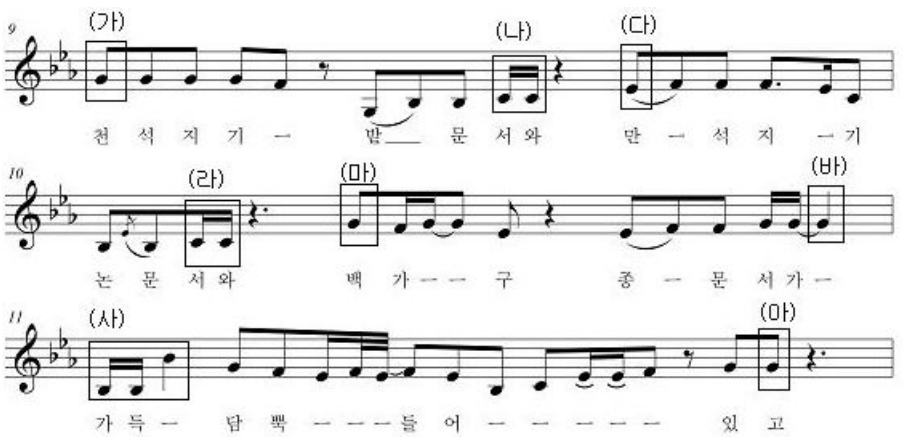
다음 [악보 43]의 제 9장단은 제 3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하여 이 음

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세 번째 내드름의 선율은 가사의 흐름상 제 4박까지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다)에서 보듯이 제 5박에서부터 다른 선율이 등장하고, 이 선율은 다음 장단인 제 10장단의 제 2박까지이다. 세 번째 내드름 선율은 하행 진행하여 (나)에서 보듯이 c음으로 끝난다. 또한 다음 장단의 선율도 하행 진행하여 (라)에서 보듯이 c음으로 끝난다.

제 10장단의 제 3박에서부터 가사의 흐름상 선율이 새로 전개되는데, (마)와 (바)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선율은 세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하여 전개된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b♭음으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높은 b♭음으로 도약했다가, 점점 선율이 하행하여 g음으로 끝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 장단은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이 계속 변화하면서 단락 내에 미치는 내드름 선율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43] '동산 앞' 대목의 제 3단락



(4) 제 4단락

다음 [악보 44]의 제 12장단은 내용의 흐름상 묘사하는 공간[34]이 바뀌

면서 나타난 제 4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다)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네 번째 내드름은 c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상행했다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나며, 제 4박까지 소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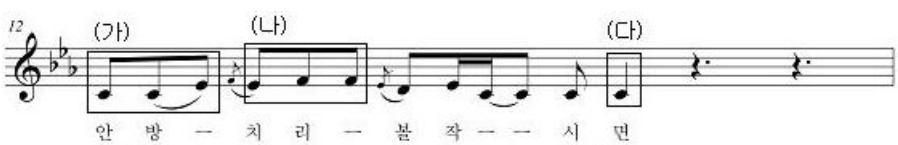
제 13장단은 아래 악보의 (라)와 (마)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b♭ 음으로 끝난다. 제 1박의 리듬꼴이 네 번째 내드름의 제 1박 리듬과 동일하나, 네 번째 내드름 선율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단락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율의 전개가 계속되면서,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한편, 네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제 4박까지 소리한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바)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하여 f음으로 끝난다. (바)와 (사)에서 나타나듯이 제 1박과 제 3박의 선율은, (나)에서 보듯이 네 번째 내드름의 제 2박 선율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장단은 선율이 발전되는 부분으로, 네 번째 내드름과 다르게 제 6박까지 소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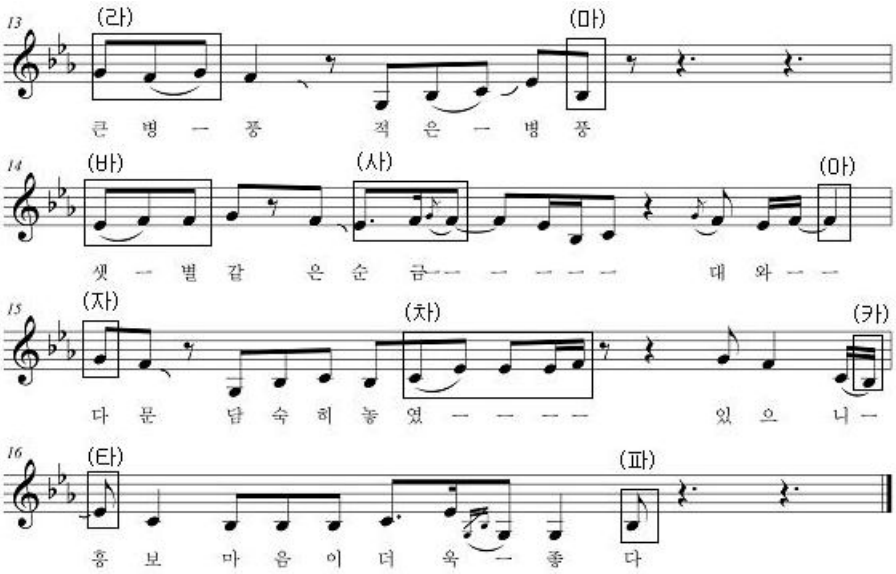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카)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하행한 뒤, 점차 상행하다 b♭ 음로 끝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한편, (차)에서 보듯이 제 3-4박의 선율은 네 번째 내드름의 제 1-2박의 선율과 유사하다.

제 16장단은 이 곡의 마지막 장단으로 아래 악보의 (타)와 (파)에서 보듯이, e♭ 음으로 시작하여 b♭ 음으로 종지한다. 이 장단은 선율이 하행 진행하며 단락을 이완시키면서, 네 번째 내드름 선율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악보 44] '동산 앞' 대목의 제 4단락



34) 이 단락은 안방 치레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단락이다. 또한 네 번째 단락은 음악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낮은 음으로 선율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동산 앞' 대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c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 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게 기준음을 통한 선율 진행에 영향을 준다. 제 2단락의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두 번째 내드름의 시작 선율과 리듬이 단락 내 다른 장단에 영향을 미친다. 제 3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단락 내 다른 장단에 기준음 g음이 선율 진행에 영향을 준다. 제 4단락의 내드름은 c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 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서 내드름 선율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10. ‘여보시오 시숙님’

‘여보시오 시숙님’은 흥보 마누라에게 놀보가 권주가를 시키자 흥보 마누라가 화를 내며 통곡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c본청 계면조[35]로 총 16장단이며, ‘기경결해’를 갖춘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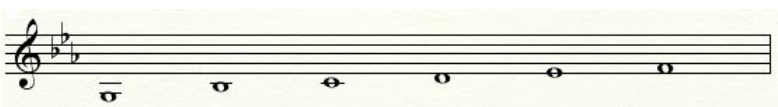
(1) 제 1단락

다음 [악보 45]의 제 1장단은 ‘기경결해’의 형식을 갖춘 제 1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첫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첫 번째 내드름은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진행되는데, g음을 반복, 지속하면서 단순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g음으로 시작해서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첫 번째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제 1박에서 첫 번째 내드름과는 다른 선율과 리듬꼴이 출현하나, 이후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제 2장단이 첫 번째 내드름에서 발전된 선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따 이놈아’나 ‘여보 형수씨’ 대목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드름과 유사한 가사가 반복될 때는 선율도 유사하게 전개되는 양상이 보인다. 판소리는 가사가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비슷한 가사가 반복될 때, 출현음이나 리듬꼴의 변화를 주면서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할 수 있다.

제 3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사)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그보다 한 옥타브 낮은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바)에서 보듯이, 첫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으로 선율이 펼쳐져 있으며, 이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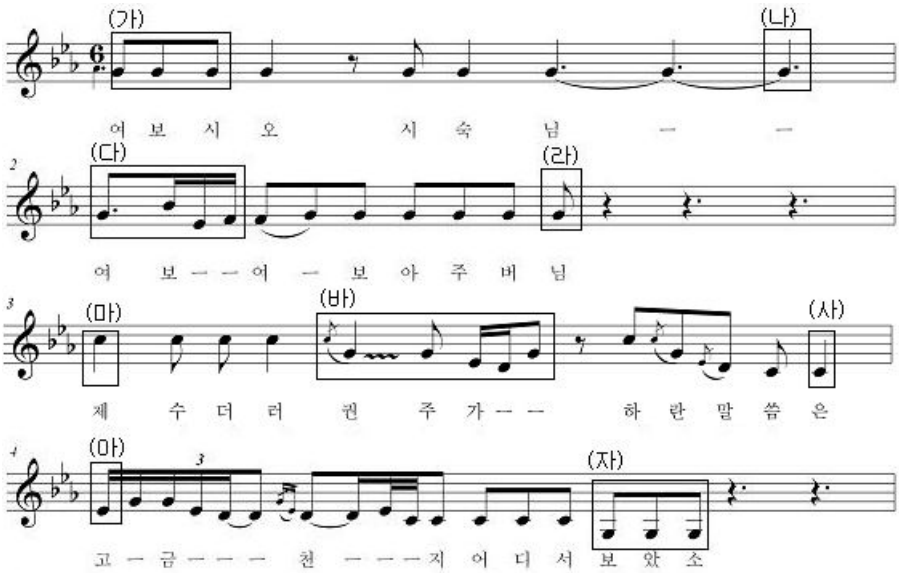
35) c본청 계면조의 구성음 악보는 다음과 같다.



차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4장단은 아래 악보의 (아)와 (자)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첫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g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에 해당하여, 이완을 위해 선율이 하행 진행하면서 첫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45] '여보시오 시숙님' 대목의 제 1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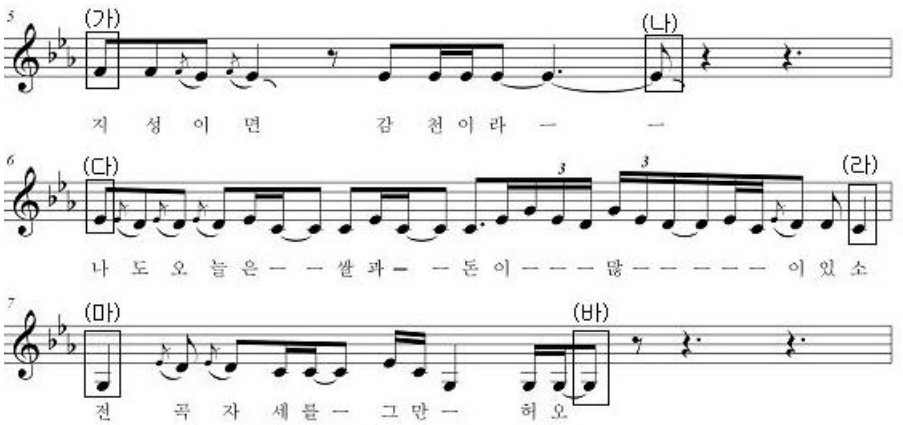
(2) 제 2단락

다음 [악보 46]의 제 5장단은 제 2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두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f음으로 시작하여 e♭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진행되다 e♭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e♭음을 반복하며 평평한 선율 진행으로 나타난다.

제 6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해서 c음으로 끝난다. 선율이 두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e♭음으로 전개되며, 많은 시김새를 통해 하행 진행하면서 선율을 발전시킨다.

제 7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 부분으로 선율이 이완되면서 두 번째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46] '여보시오 시숙님' 대목의 제 2단락



(3) 제 3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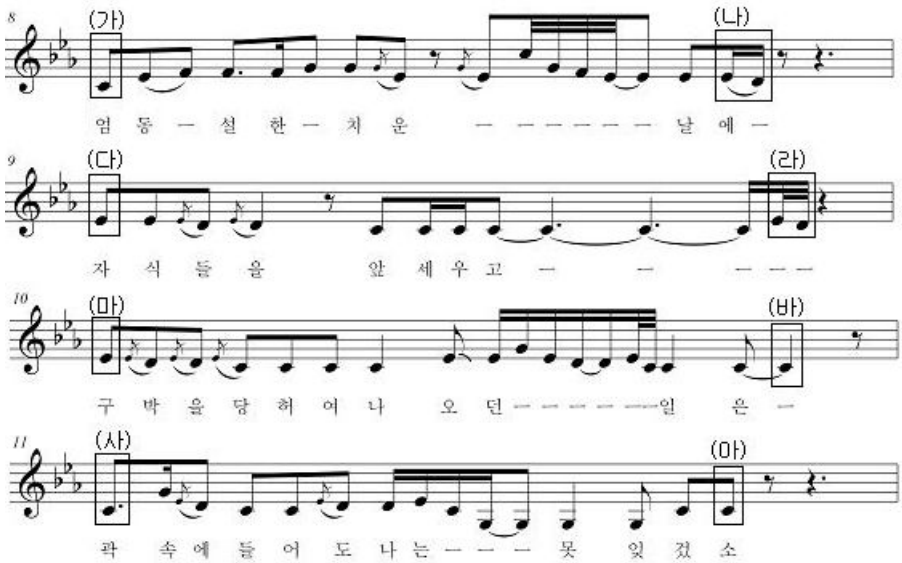
다음 [악보 47]의 제 8장단은 제 3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세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해서 e♭ 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펼쳐지다가 d음으로 끝난다. 선율이 점차 상행했다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9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e♭ 음으로 시작하여 d음으로 끝난다. 특히, (나)와 (라)에서 보듯이, 이 장단의 끝 선율은 세 번째 내드름의 끝 선율과 동일하다.

제 10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세 번째 내드름의 기준음인 e♭ 음으로 시작하여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음악의 절정인 '결'에 해당하여, 많은 시김새를 통해 선율이 발전한다. 그리하여 선율이 발전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11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c음으로 시작하여 g음까지 하행 진행했다 다시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 부분으로, 선율이 이완되면서 세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47] '여보시오 시숙님' 대목의 제 3단락



(4) 제 4단락

다음 [악보 48]의 제 12장단은 제 4단락의 '기' 부분으로, 이 대목의 네 번째 내드름이다. 아래 악보의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한 옥타브 낮은 g음으로 끝난다.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되며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4단락은, 제 2단락이나 제 3단락과는 다르게 시작음이 g음으로 상승되어 있다. 이는 내용의 흐름상, 홍보 마누라가 다시 격한 감정으로 역정을 내면서 분위기가 전환되기 때문이다.

제 13장단은 아래 악보의 (다)와 (라)에서 보듯이, 선율이 e♭음으로 시작하여 네 번째 내드름 선율의 끝 음과 같은 g음으로 끝난다. 네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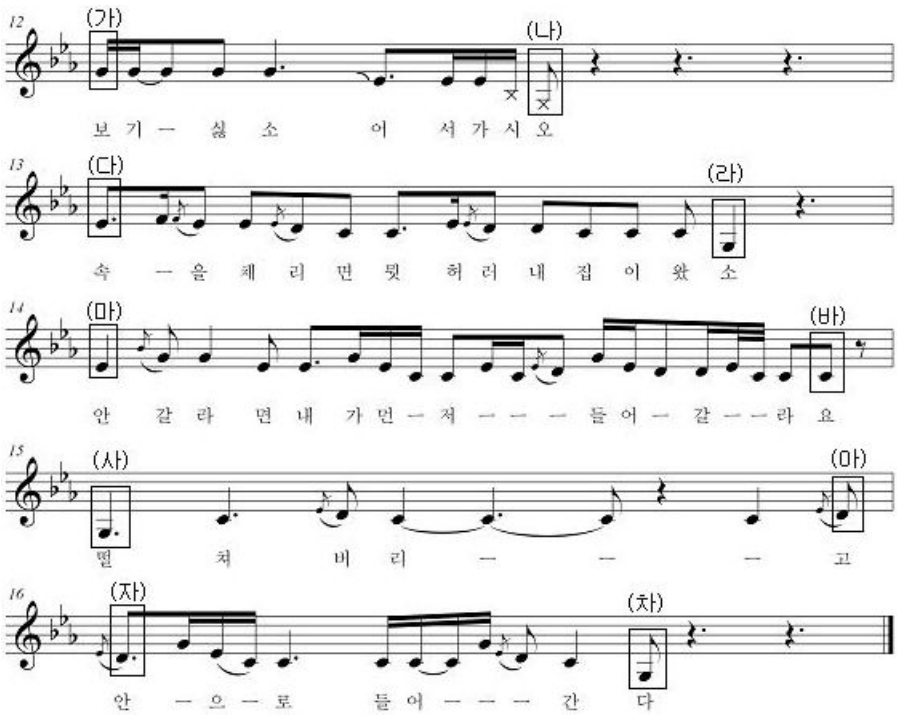
내드름과 마찬가지로 선율은 점차 하행 진행하나, 네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14장단은 아래 악보의 (마)와 (바)에서 보듯이, 선율이 e♭ 음으로 시작해서 c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결'에 해당하며, 시김새를 통해 선율이 발전하면서 네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15장단은 아래 악보의 (사)와 (아)에서 보듯이, 선율이 g음으로 시작하여 c음을 거친 후 d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단락 내에서 이완을 돕는 선율로, 네 번째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16장단은 아래 악보의 (자)와 (차)에서 보듯이, 선율이 d음으로 시작해서, 네 번째 내드름 선율과 마찬가지로 g음으로 끝난다. 이 장단은 '기경결해' 중 '해'에 해당하며, 선율이 점차 하행 진행하면서 이완된다. 그리하여 선율이 이완되면서 내드름 선율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악보 48] '여보시오 시숙님' 대목의 제 4단락



요컨대, ‘여보시오 시숙님’ 대목 제 1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이 g음이며, 간단한 리듬꼴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내 다른 장단들에서 내드름의 선율이 변형되어, 내드름과 유사한 선율 진행이 나타난다. 제 2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e♭음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다. 제 2단락은 내용이 발전되는 부분으로, 단락 내에서 두 번째 내드름의 영향력은 약하게 나타난다. 제 3단락의 내드름은 e♭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전개된다. 제 3단락 또한 내용이 발전되면서, 단락 내 내드름 선율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난다. 제 4단락의 내드름은 기준음 g음을 기준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으며, 하행하는 선율 진행이다. 단락 내에서 네 번째 내드름 선율의 영향력은 약하다. 이는 본 대목이 길어지면서 단락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대목의 뒷부분에 위치한 단락인 제 4단락에서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박록주제 흥보가’ 中 모든 진양조 대목을 ‘기경결해’의 단락별로 각각의 내드름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내드름이 각 단락 안에서 다른 장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각 진양조 대목들의 내드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양조에서 내드름은 ‘기경결해’ 중 ‘기’에 해당한다. 내드름은 ‘기경결해’의 단락마다 그 시작 선율을 보여주는 역할과 동시에 기준음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음악적 흐름의 파악이 가능하다.

둘째, 내드름은 대부분 동일한 음을 반복하거나 한 음으로 지속하며, 진양조 장단의 간결한 리듬꼴로 나타난다.

셋째, 내드름은 단락 안에서 다른 장단들에 영향력을 갖는데, 내드름의 기준음 또는 내드름의 선율을 토대로 선율이 축소되거나 꾸밈음이 더해지는 등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다.

넷째, 내드름은 단락 내 다른 장단에서(경, 결, 해) 반복, 변형되어 나타날 선율 또는 리듬꼴을 예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단락 내에서 선율이 전개되거나 발전되는 부분, 또는 단락을 이완시켜주는 장단에서는 내드름과의 연관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현상은 대목이 길어져서 단락 수가 많아지면, 대목의 뒷부분에 위치한 단락에서 나타난다. 또한, 단락의 구성 장단 수가 5장단(6박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현상이 보인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판소리 ‘박록주제 흥보가’의 진양조 대목 내드름의 특성과 영향에 관한 것으로, 판소리 내드름의 음악적 내용에 대해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다른 제나 다른 바탕 또는 다른 장단 등 그 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학술 논문

김석배, 「박록주 <흥보가>의 정립과 사설의 특징」, 판소리연구 Vol.21 No.-, 판소리학회, 2006.

유선미, 「판소리를 수용한 산조의 음악 양식에 관한 연구」, 판소리연구, Vol.29 No.-, 판소리학회, 2010.

이보형.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 한국음악연구 Vol.29 No.1, 한국국악학회, 2001.

_____.「단모리 내드름의 리듬 확대현상 연구」, 한국음반학 Vol.- No.11, 한국고음반연구회, 2001.

2. 학위 논문

김기홍, “판소리 진양조 장단과 세마치 장단의 비교연구: 판소리 고법적 측면에서”,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문숙희, “가야금산조의 긴장과 이완: 최옥산류 진양조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이재화, “거문고산조의 선율구조: 한갑득류 진양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5.

채수정, “판소리 다섯 바탕의 중모리 대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3. 음반

박록주, 『판소리 명창 박록주 흥보가』, 지구레코드, 1967.

부록악보

<박록주제 홍보가 中 진양조 대목>

1. 어따 이놈아

2. 가지마오

3. 두 손 합장

4. 여보 형수씨

5. 박흥보가 좋아라고

6. 떴다 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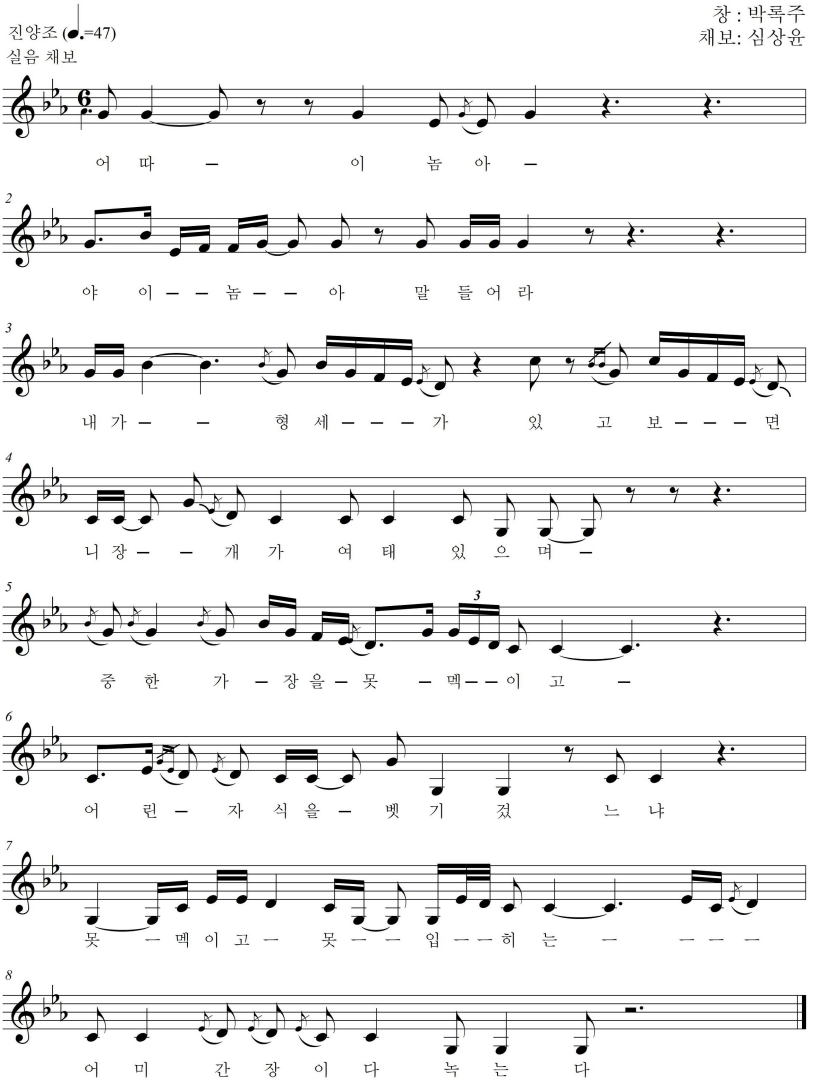
7. 시리렁 실건(첫 번째 박타령)

8. 시르렁 실건(두 번째 박타령)

9. 동산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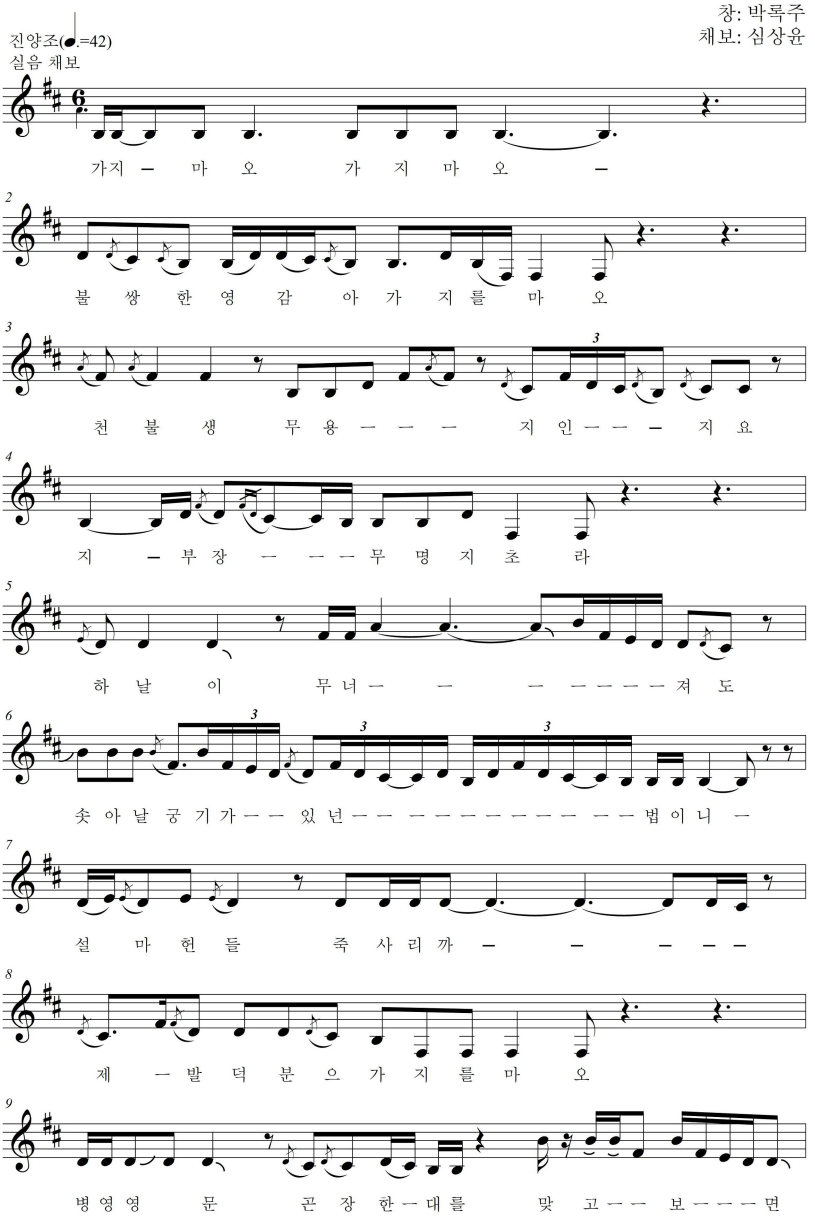
10. 여보시오 시숙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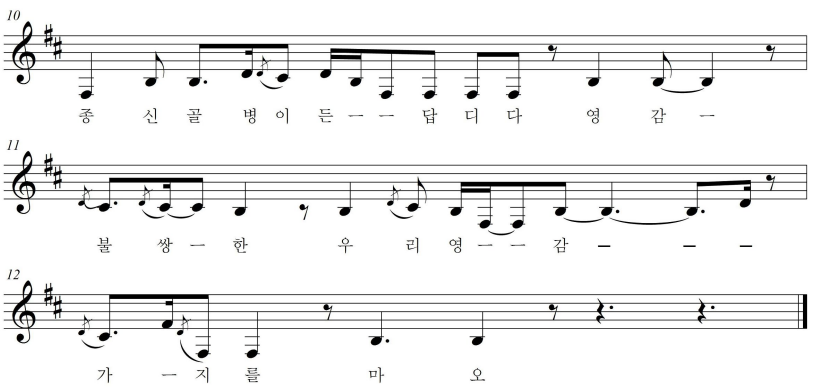
1.어따 이놈아


진양조 (♩.=47)
실음 채보
창 : 박록주
채보: 심상윤
어 따 — 이 놈 아 —
야 이 — — 놈 — — 아 말 들 어 라
내 가 — — 형 세 — — — 가 있 고 보 — — — 면
니 장 — — 개 가 여 태 있 으 며 —
중 한 가 — 장 을 — 못 — 멕 — — 이 고 —
어 린 — 자 식 을 — 벳 기 겄 느 냐
못 — 멕 이 고 — 못 — — 입 — — 히 는 — — — —
어 미 간 장 이 다 녹 는 다

2. 가지마오

창: 박록주
채보: 심상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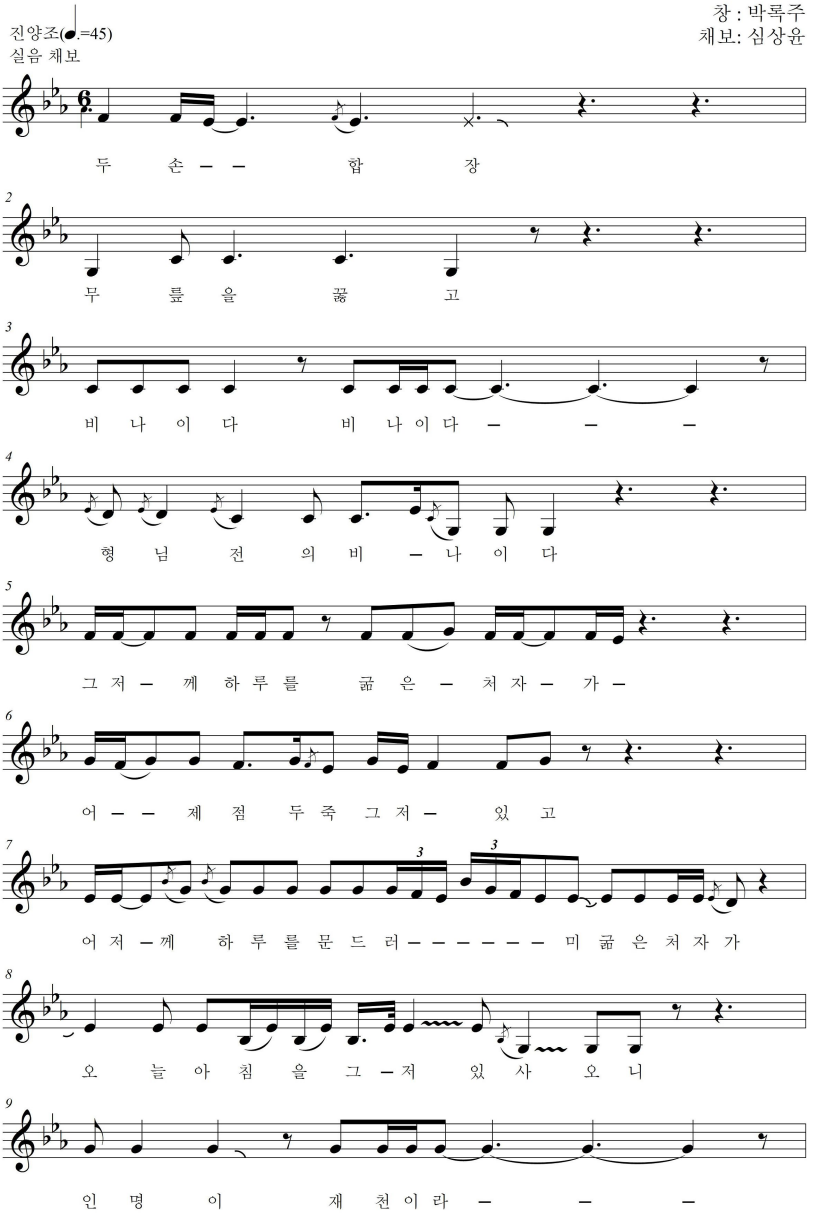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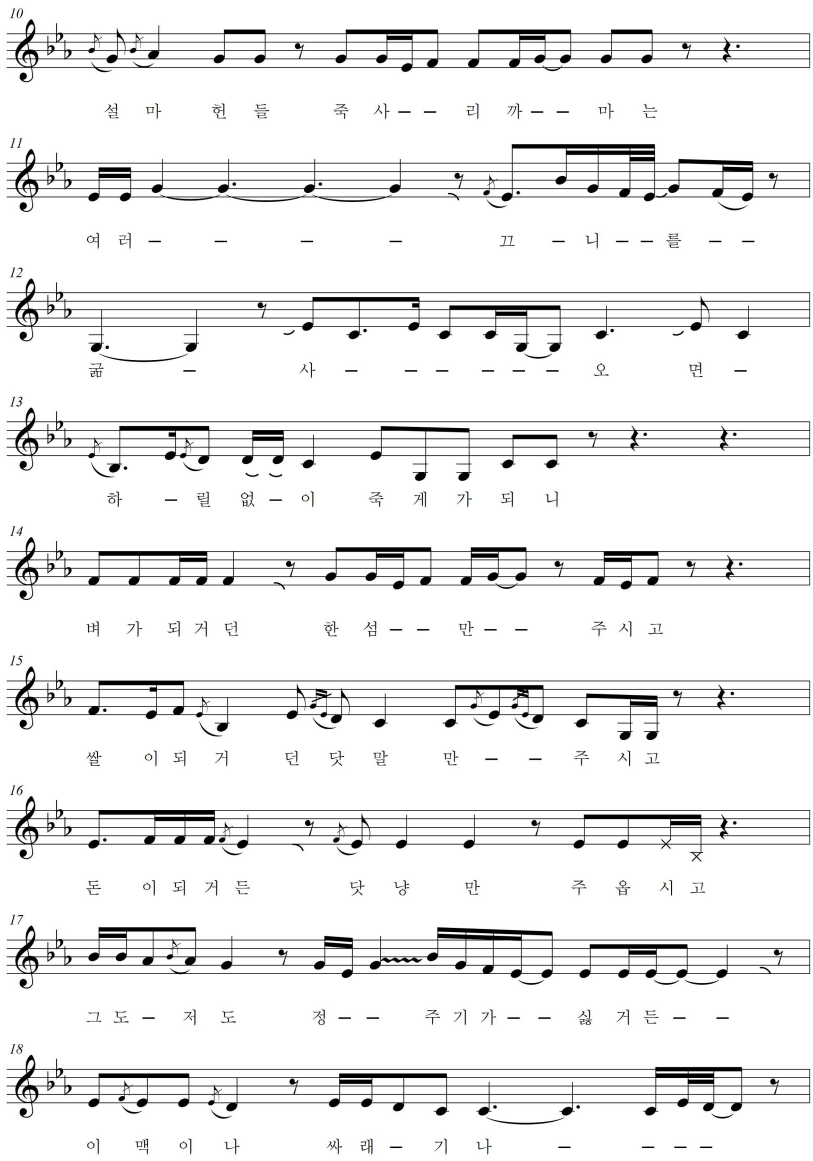

10
종 신 골 병 이 든 ㅡ ㅡ 답 디 다 영 감 ㅡ
11
불 쌍 ㅡ 한 우 리 영 ㅡ ㅡ 감 ㅡ ㅡ ㅡ
12
가 ㅡ 지 를 마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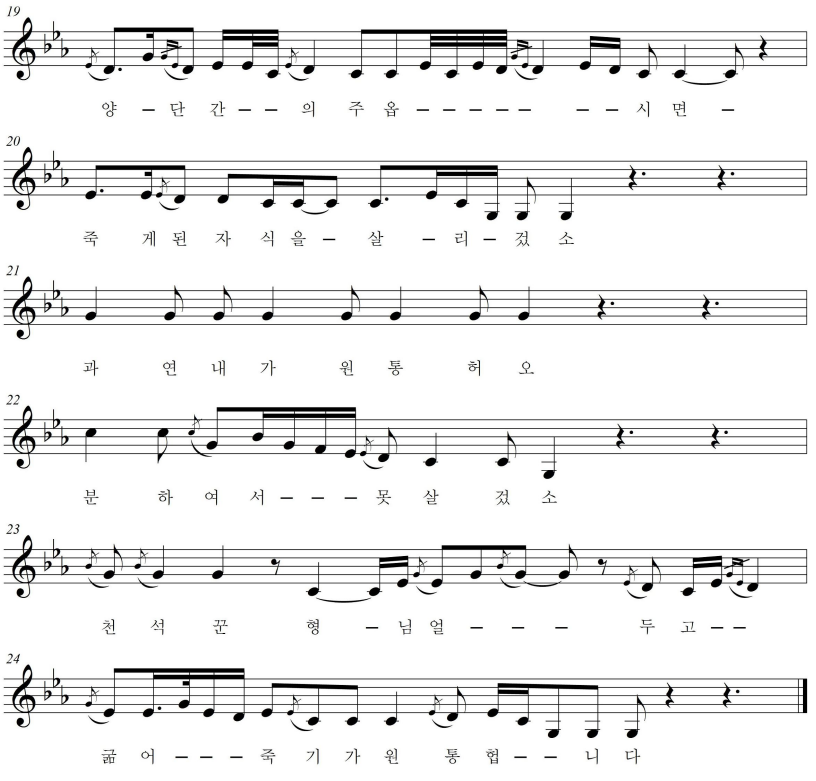
3.두 손 합장

창 : 박록주
채보: 심상윤

진양조(♩.=45)
실음 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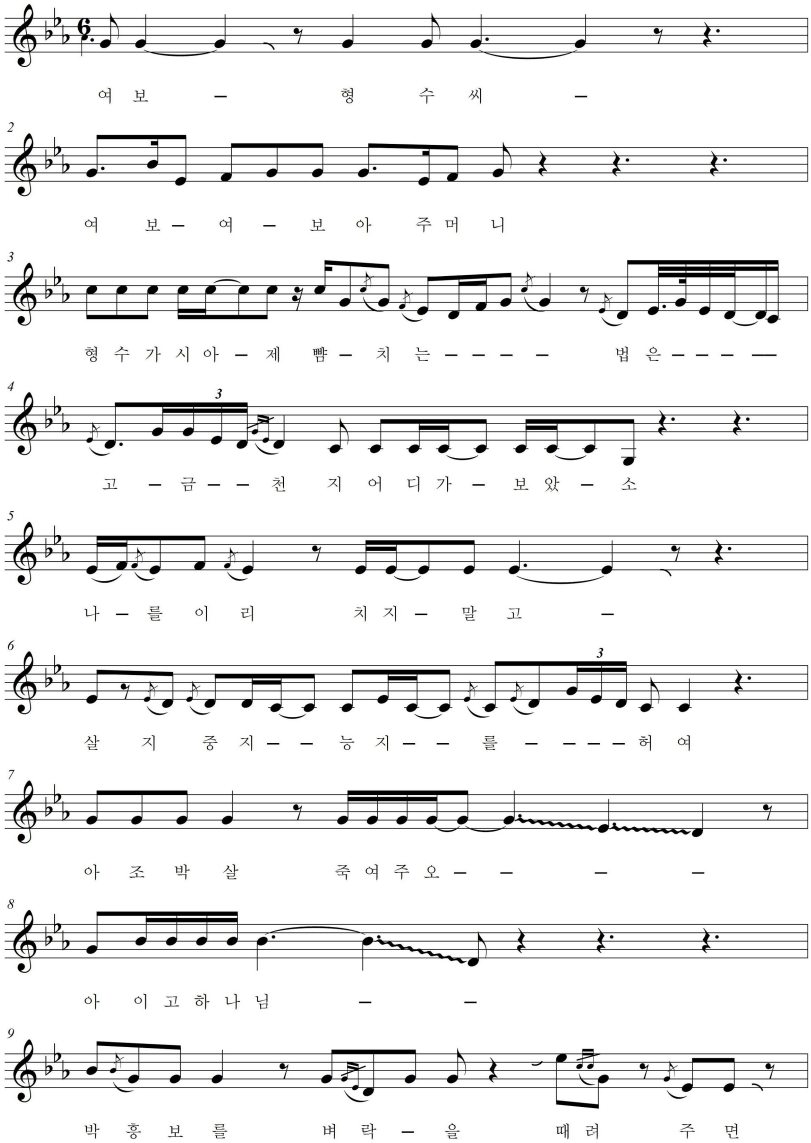

10
설 마 헌 들 죽 사 – – 리 까 – – 마 는
11
여 러 – – – – 끄 – 니 – – 를 – –
12
긂 – 사 – – – – – 오 면 –
13
하 – 릴 없 – 이 죽 게 가 되 니
14
벼 가 되 거 던 한 섬 – – 만 – – 주 시 고
15
쌀 이 되 거 던 닷 말 만 – – 주 시 고
16
돈 이 되 거 든 닷 냥 만 주 옵 시 고
17
그 도 – 저 도 정 – – 주 기 가 – – 싫 거 든 – –
18
이 맥 이 나 싸 래 – 기 나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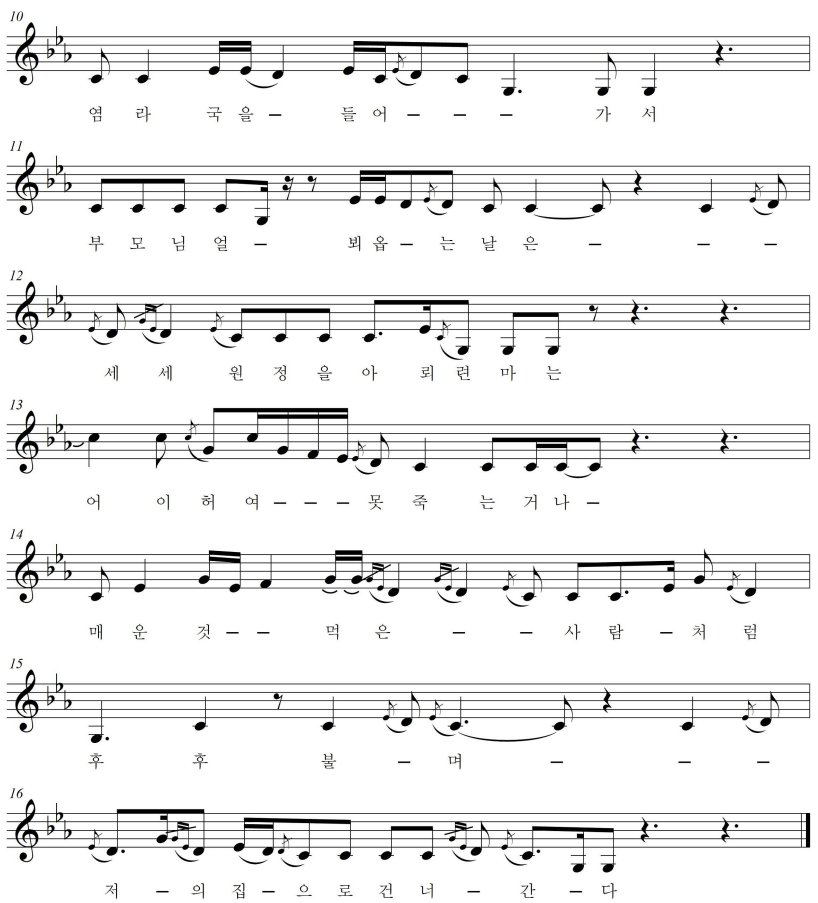

19
양 – 단 간 – – 의 주 옵 – – – – – – – 시 면 –
20
죽 게 된 자 식 을 – 살 – 리 – 겄 소
21
과 연 내 가 원 통 허 오
22
분 하 여 서 – – – 못 살 겄 소
23
천 석 꾼 형 – 님 얼 – – – 두 고 – –
24
굶 어 – – – 죽 기 가 원 통 협 – – 니 다

4. 여보 형수씨

창: 박록주
채보: 심상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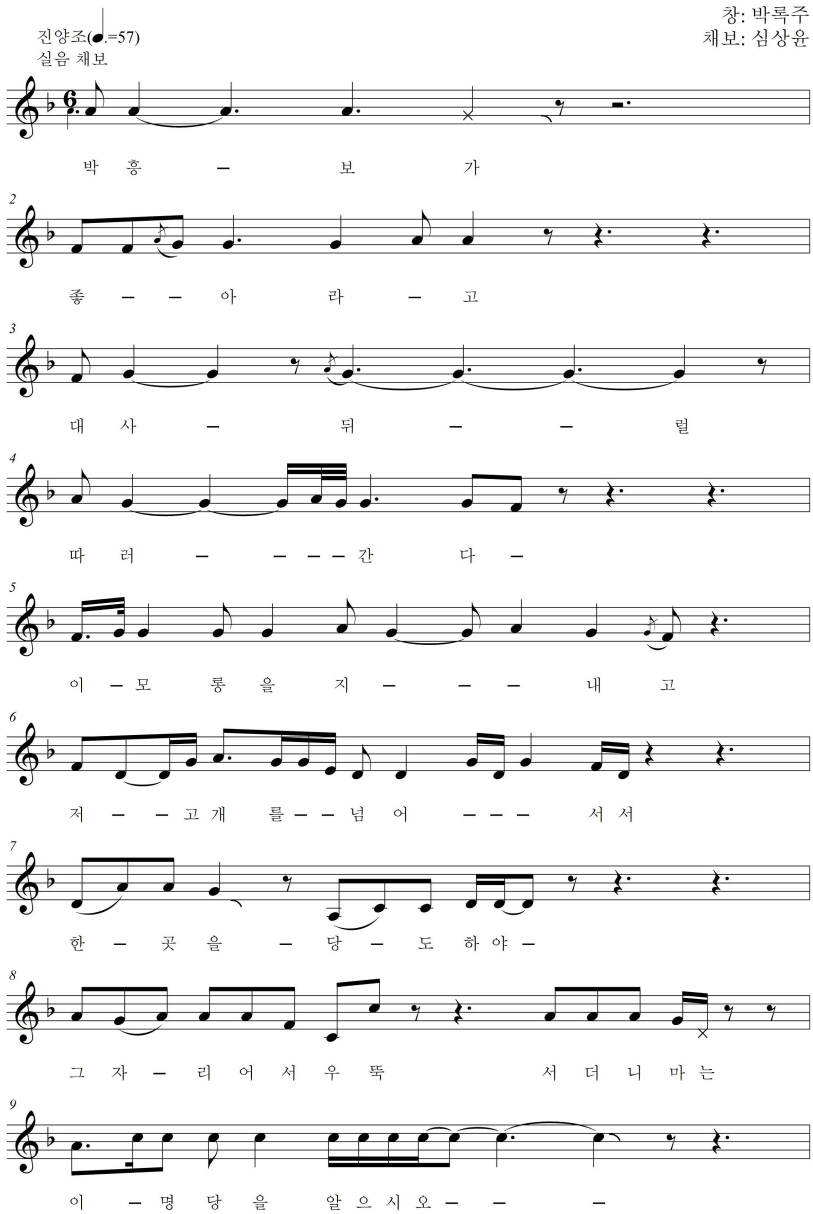
진양조(♩.=47)
실음 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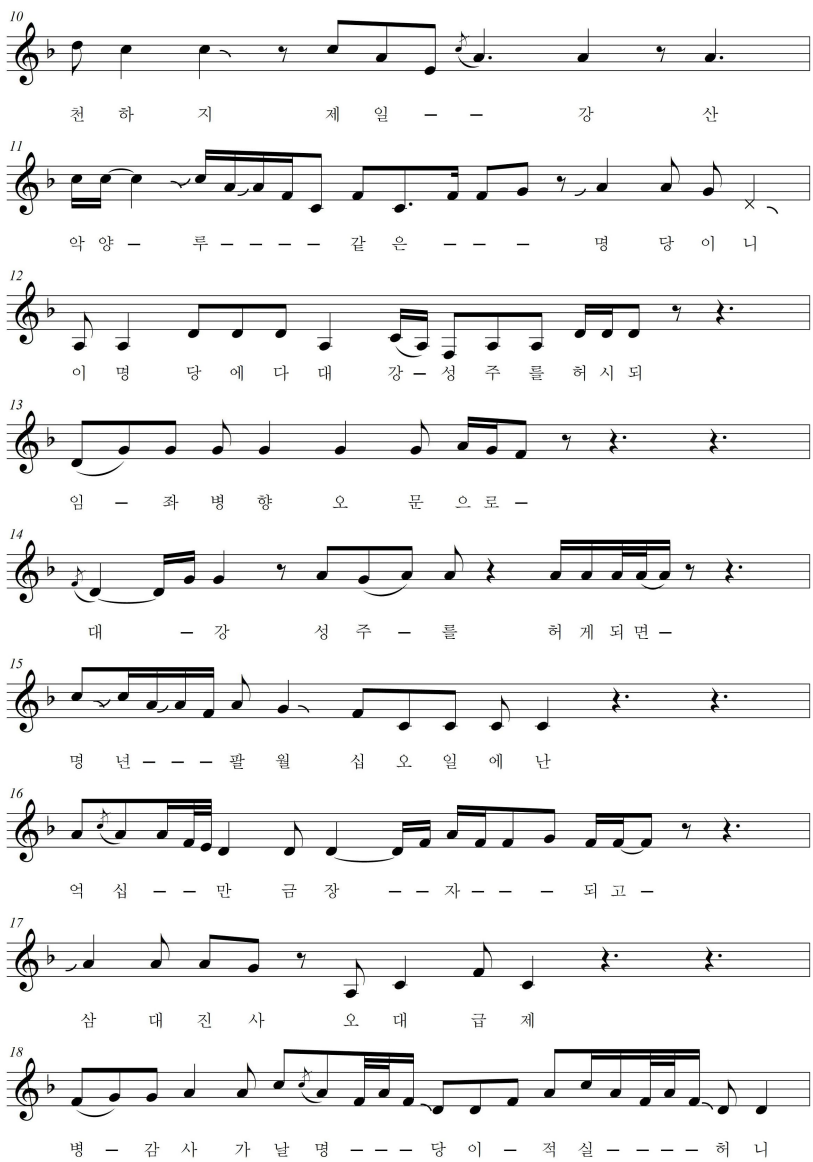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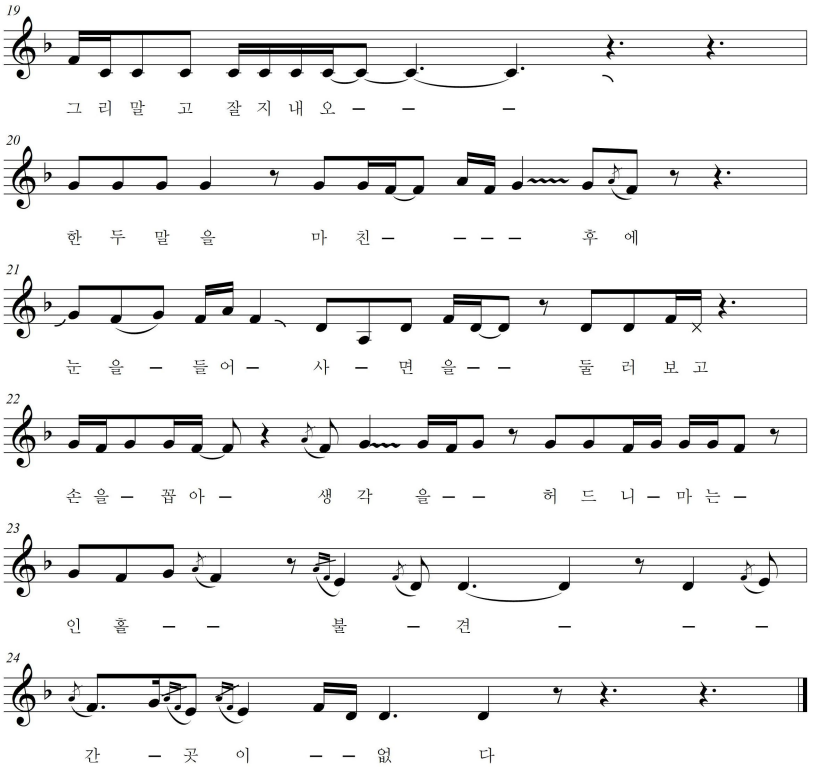

10
염 라 국 을 – 들 어 – – – 가 서
11
부 모 님 얼 – 뵈 옵 – 는 날 은 – – –
12
세 세 원 정 을 아 뢰 련 마 는
13
어 이 허 여 – – – 못 죽 는 거 나 –
14
매 운 것 – – 먹 은 – – 사 람 – 처 럼
15
후 후 불 – 며 – – –
16
저 – 의 집 – 으 로 건 너 – 간 – 다

5.박흥보가 좋아라고

창: 박록주
채보: 심상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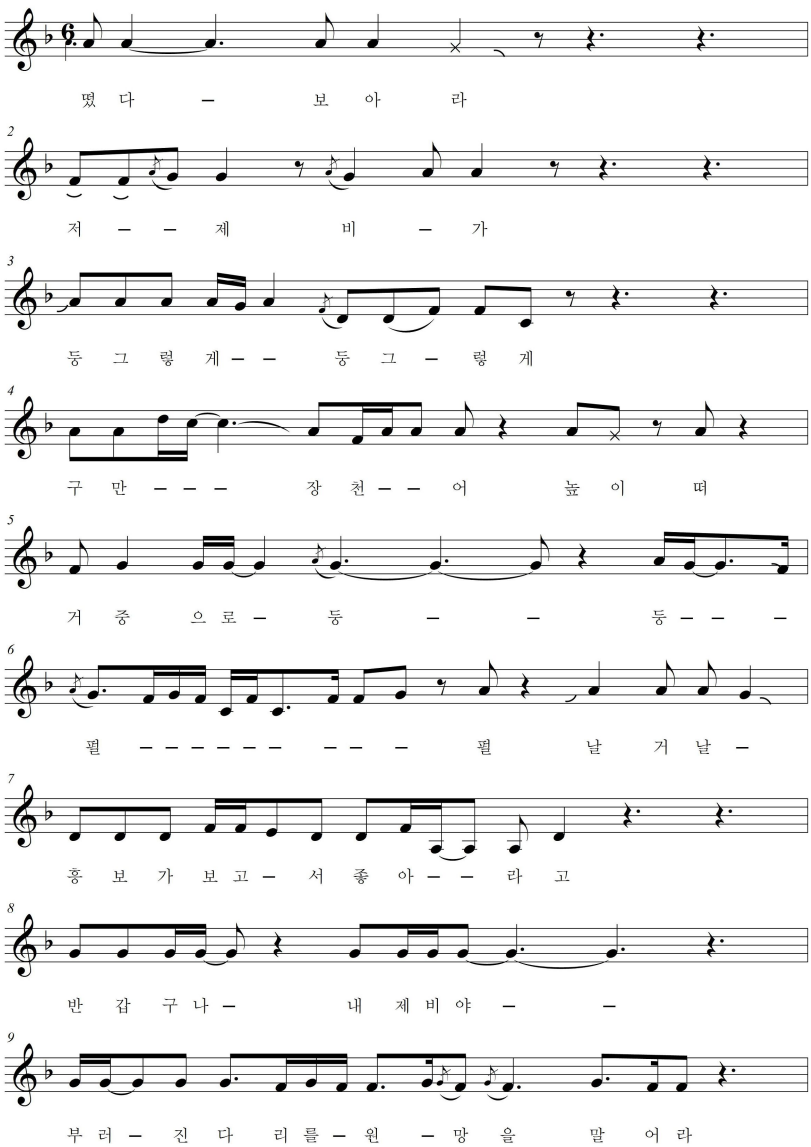

10
천 하 지 제 일 — — 강 산
11
악 양 — 루 — — — — 같 은 — — — 명 당 이 니
12
이 명 당 에 다 대 강 — 성 주 를 허 시 되
13
임 — 좌 병 향 오 문 으 로 —
14
대 — 강 성 주 — 를 허 게 되 면 —
15
명 년 — — — 팔 월 십 오 일 에 난
16
억 십 — — 만 금 장 — — 자 — — — 되 고 —
17
삼 대 진 사 오 대 급 제
18
병 — 감 사 가 날 명 — — — 당 이 — 적 실 — — — — 허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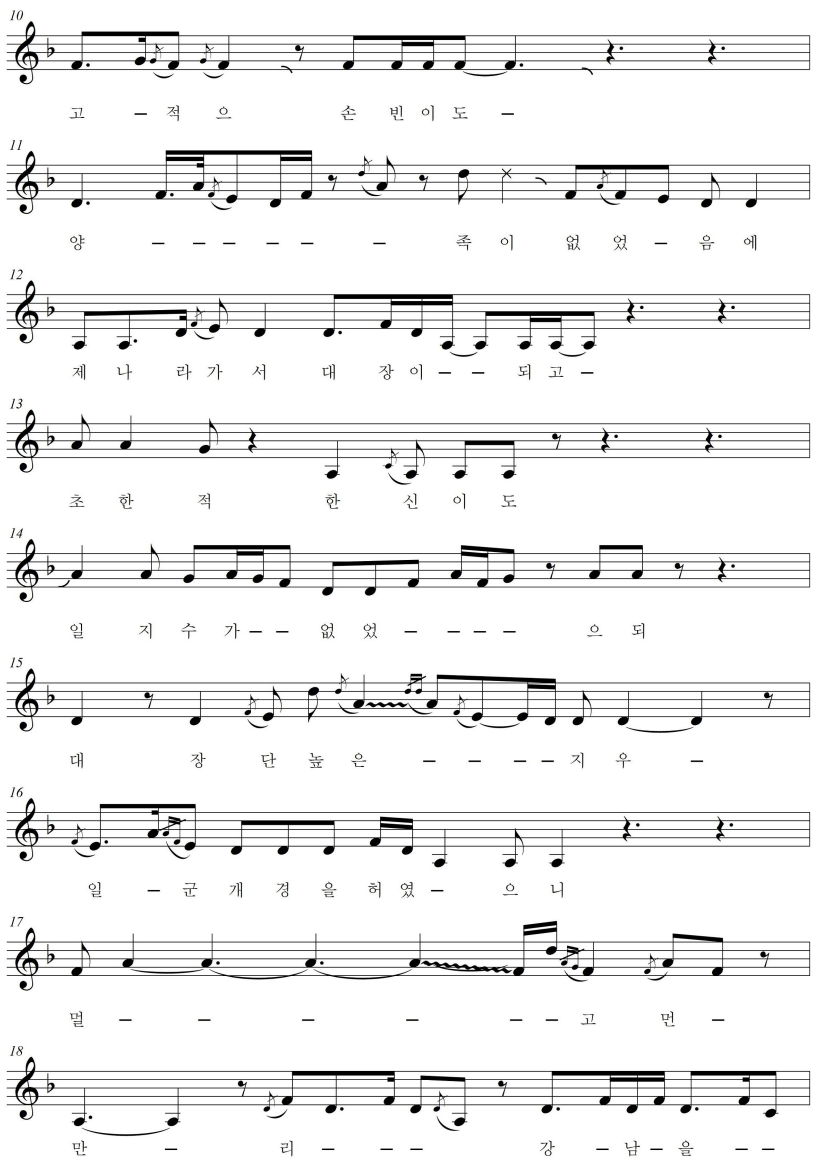

19
그 리 말 고 잘 지 내 오 – – –
20
한 두 말 을 마 친 – – – – 후 에
21
눈 을 – 들 어 – 사 – 면 을 – – 둘 러 보 고
22
손 을 – 꼽 아 – 생 각 을 – – 허 드 니 – 마 는 –
23
인 홀 – – 불 – 견 – – –
24
간 – 곳 이 – – 없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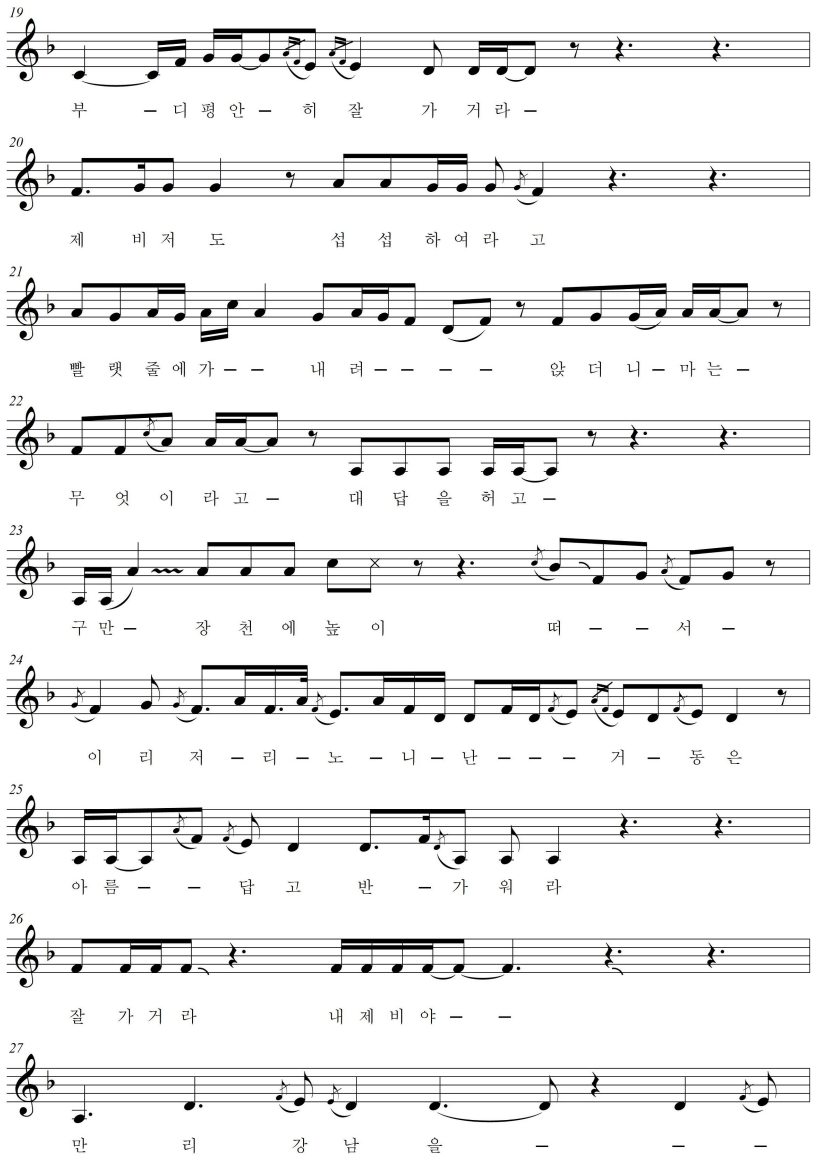
6.떴다 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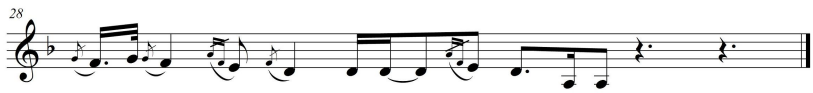
진양조(♩.=48)
실음 채보

창 : 박록주
채보: 심상윤




10
고 – 적 으 손 빈 이 도 –
11
양 – – – – – – 족 이 없 었 – 음 에
12
제 나 라 가 서 대 장 이 – – 되 고 –
13
초 한 적 한 신 이 도
14
일 지 수 가 – – 없 었 – – – – 으 되
15
대 장 단 높 은 – – – – 지 우 –
16
일 – 군 개 경 을 허 였 – 으 니
17
멀 – – – – – – 고 먼 –
18
만 – 리 – – – 강 – 남 – 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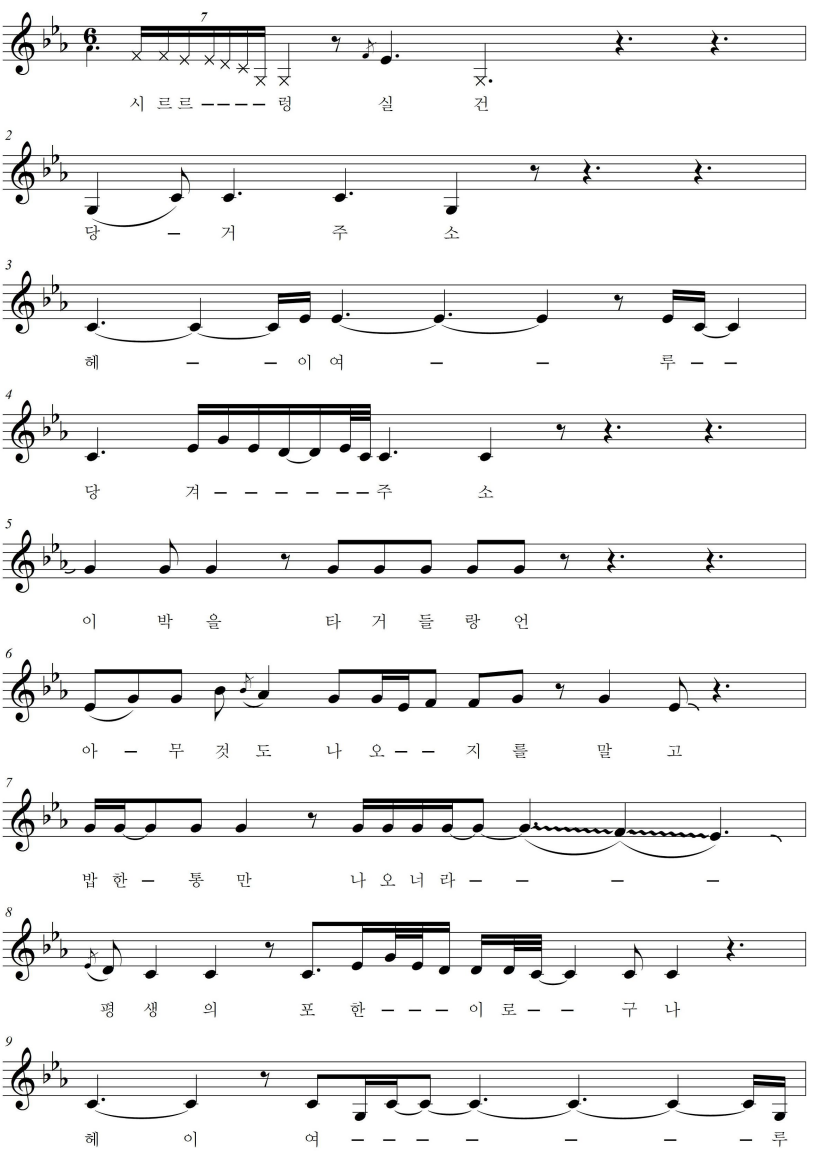

19
부 – 디 평 안 – 히 잘 가 거 라 –
20
제 비 저 도 섭 섭 하 여 라 고
21
빨 랫 줄 에 가 – – 내 려 – – – – 앉 더 니 – 마 는 –
22
무 엇 이 라 고 – 대 답 을 허 고 –
23
구 만 – 장 천 에 높 이 떠 – – 서 –
24
이 리 저 – 리 – 노 – 니 – 난 – – – 거 – 동 은
25
아 름 – – 답 고 반 – 가 워 라
26
잘 가 거 라 내 제 비 야 – –
27
만 리 강 남 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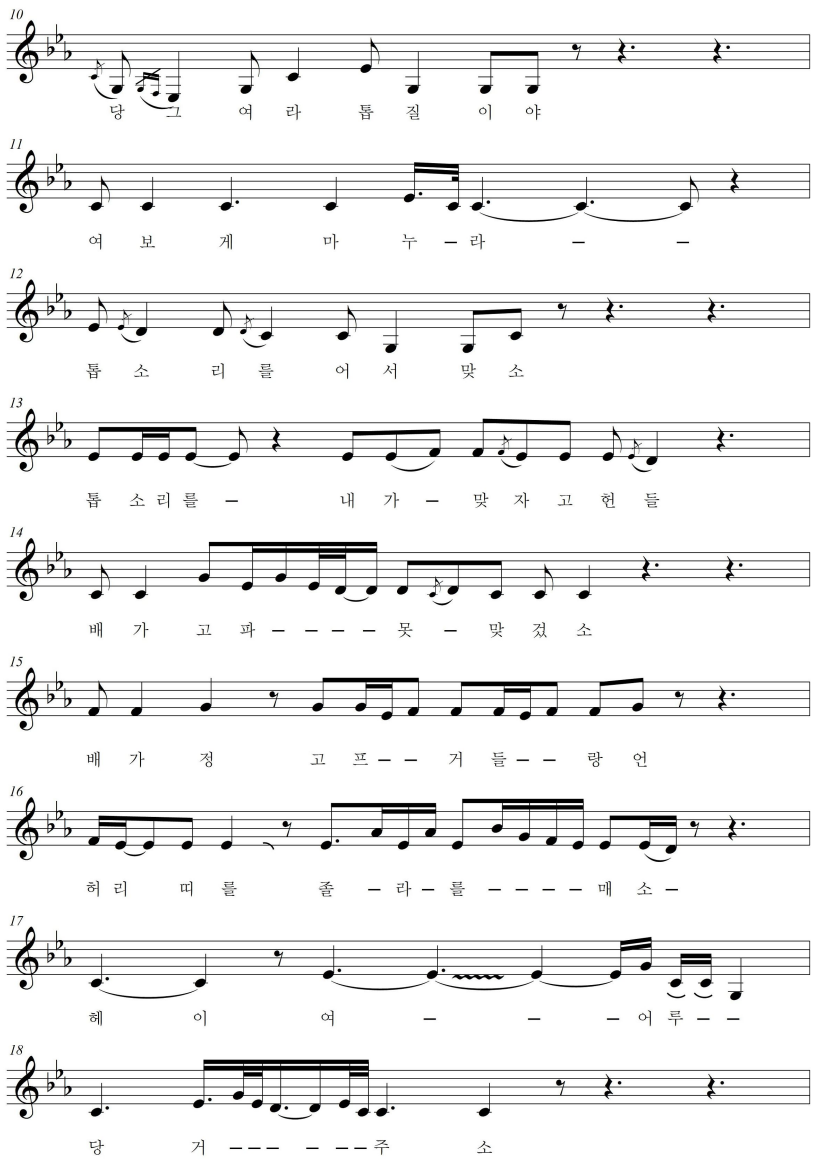

28
훨 – 훨 날 아 들 어 – – 간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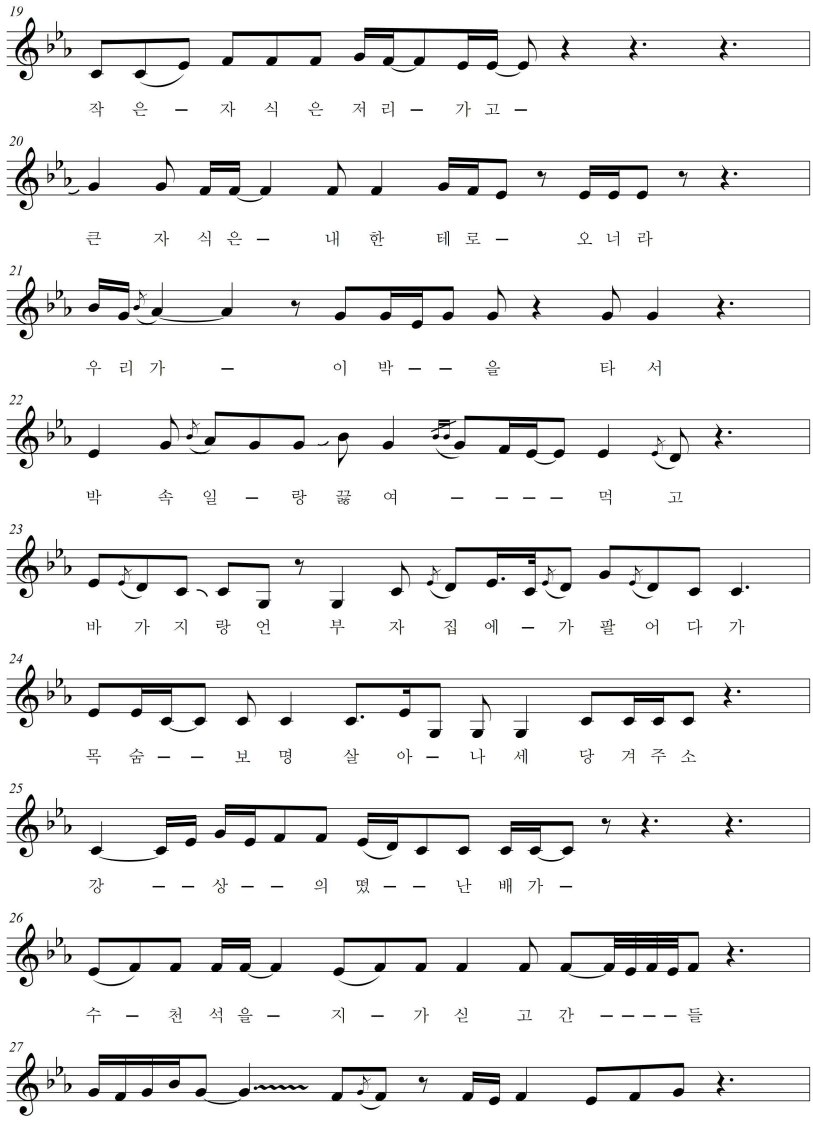
7. 시르렁 실건 (첫 번째 박타령)

진양조(♩.=53)
실음 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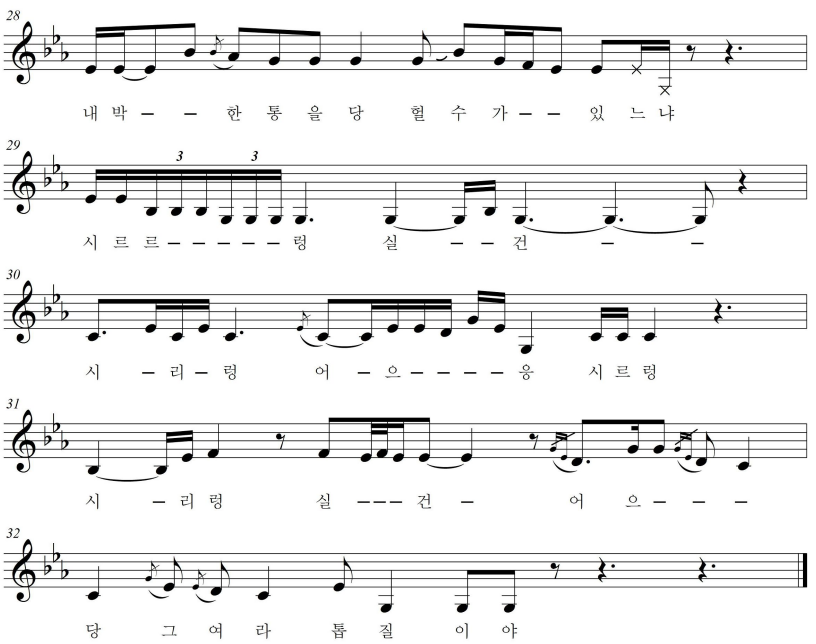
창 : 박록주
채보: 심상윤




10
당 그 여 라 톱 질 이 야
11
여 보 게 마 누 ㅡ 라 ㅡ ㅡ
12
톱 소 리 를 어 서 맞 소
13
톱 소 리 를 ㅡ 내 가 ㅡ 맞 자 고 현 들
14
배 가 고 파 ㅡ ㅡ ㅡ ㅡ 못 ㅡ 맞 겄 소
15
배 가 정 고 프 ㅡ ㅡ 거 들 ㅡ ㅡ 랑 언
16
허 리 띠 를 졸 ㅡ 라 ㅡ 를 ㅡ ㅡ ㅡ ㅡ 매 소 ㅡ
17
혜 이 여 ㅡ ㅡ ㅡ 어 루 ㅡ ㅡ
18
당 거 ㅡ ㅡ ㅡ ㅡ ㅡ 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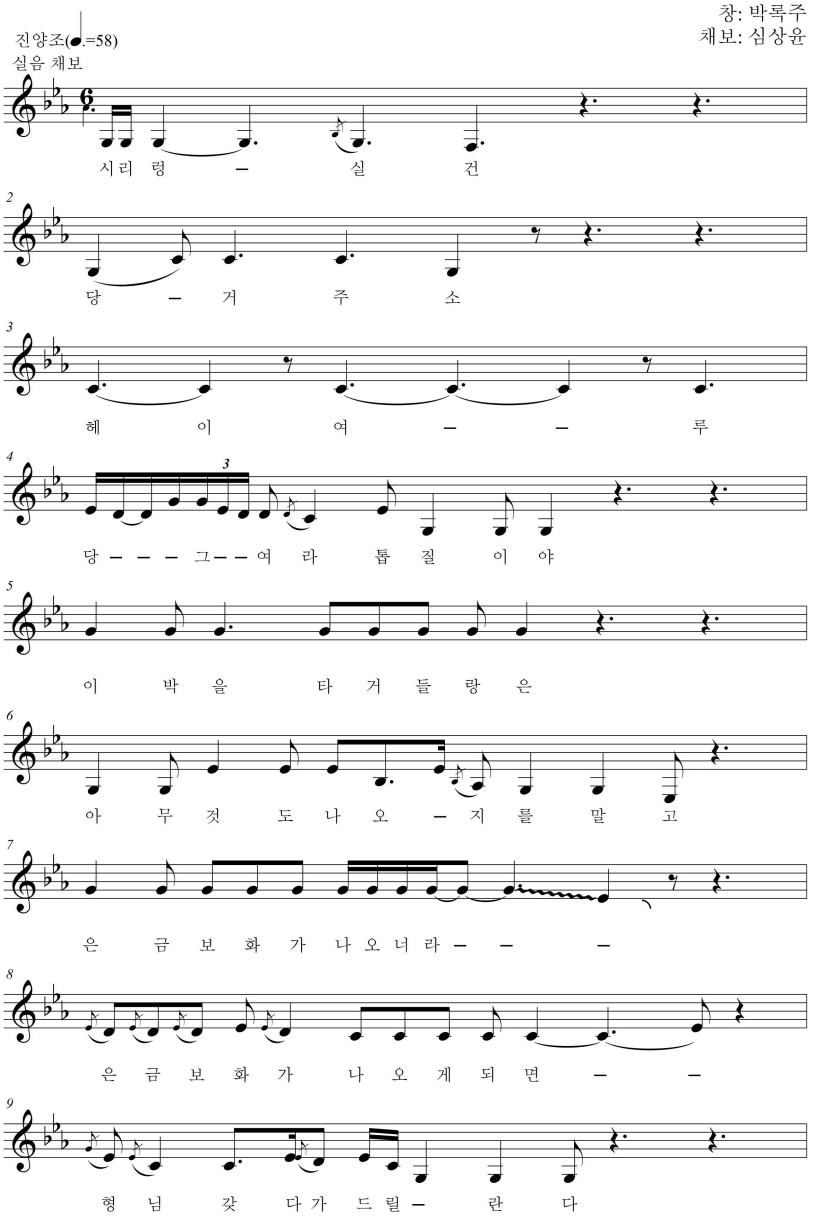

19
작 은 – 자 식 은 저 리 – 가 고 –
20
큰 자 식 은 – 내 한 테 로 – 오 너 라
21
우 리 가 – 이 박 – – 을 타 서
22
박 속 일 – 랑 끓 여 – – – – 먹 고
23
바 가 지 랑 언 부 자 집 에 – 가 팔 어 다 가
24
목 숨 – – 보 명 살 아 – 나 세 당 겨 주 소
25
강 – – 상 – – 의 떴 – – 난 배 가 –
26
수 – 천 석 을 – 지 – 가 싣 고 간 – – – – 들
27
저 희 만 – – – – – – – – – 좋 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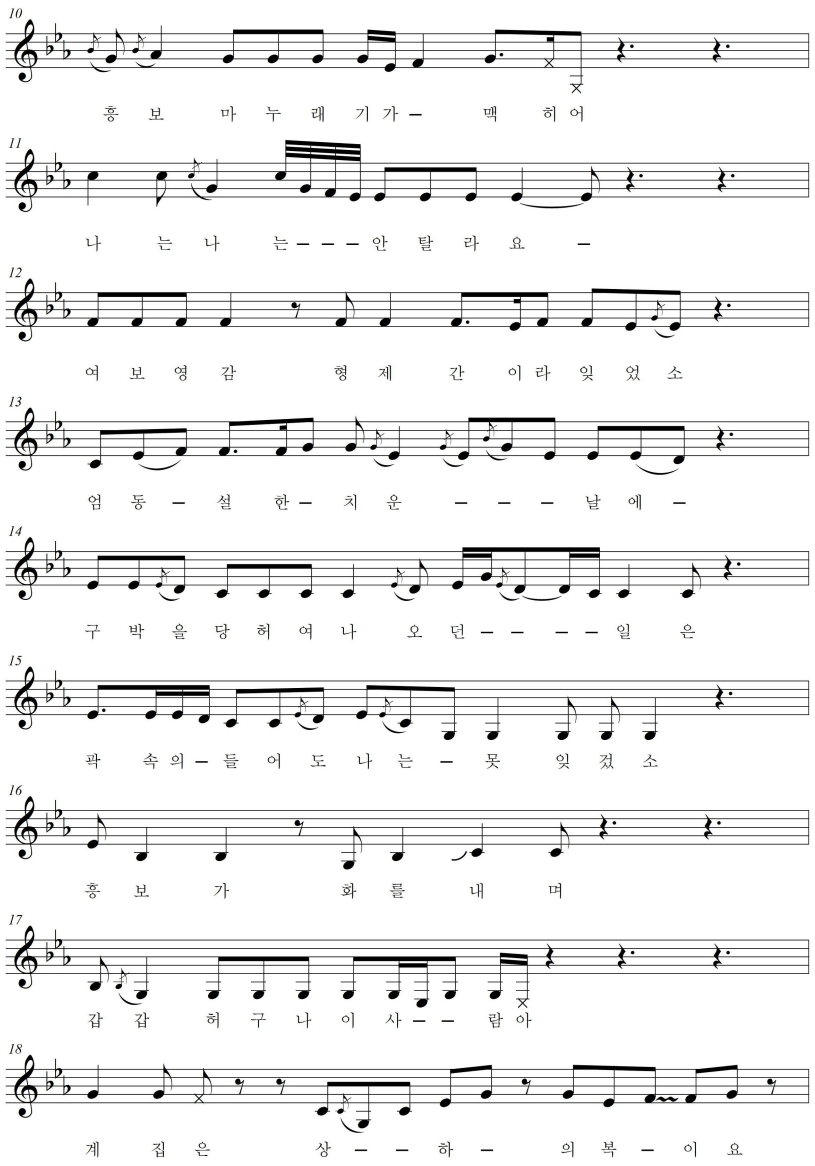
7. 시르렁 실건 (첫 번째 박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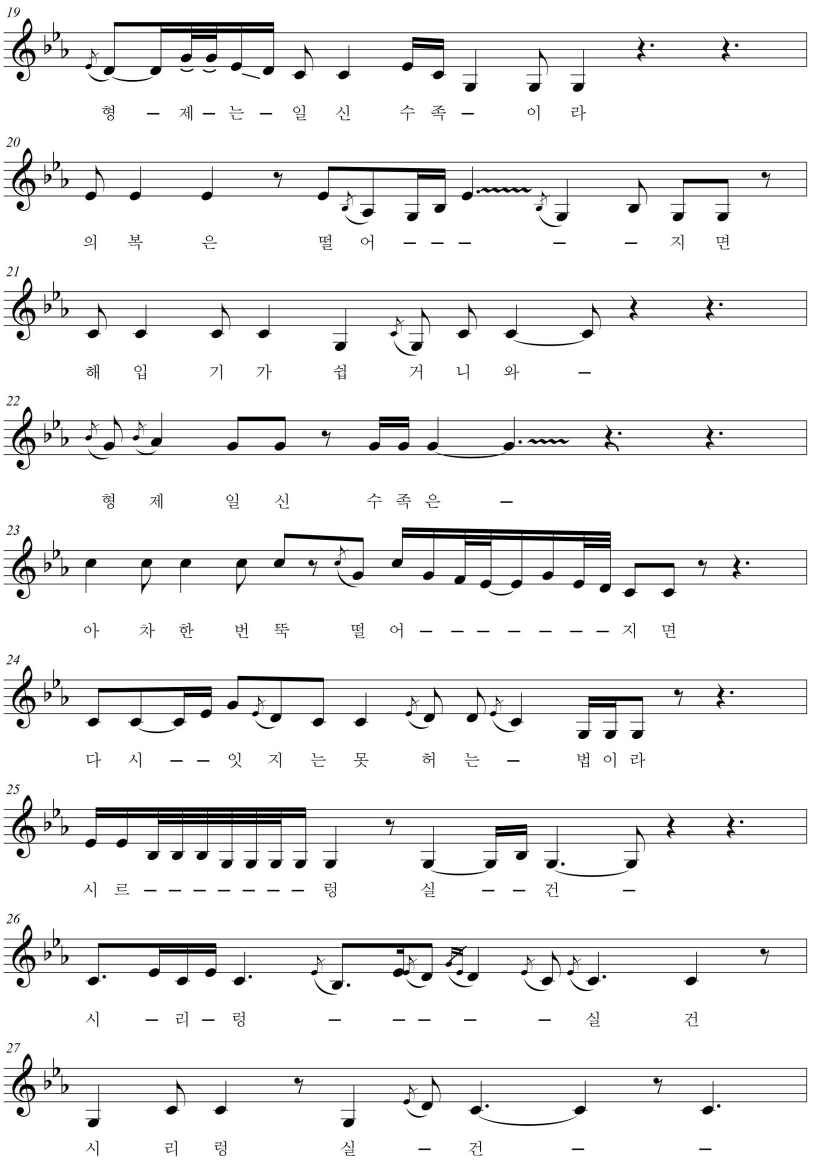


8. 시리렁 실건 (두 번째 박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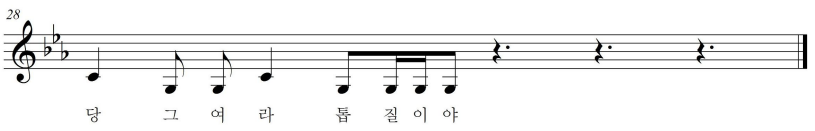
창: 박록주
채보: 심상윤




10
흥 보 마 누 래 기 가 – 맥 히 어
11
나 는 나 는 – – – 안 탈 라 요 –
12
여 보 영 감 형 제 간 이 라 잊 었 소
13
엄 동 – 설 한 – 치 운 – – – 날 에 –
14
구 박 을 당 허 여 나 오 던 – – – – 일 은
15
꽉 속 의 – 들 어 도 나 는 – 못 잊 겄 소
16
흥 보 가 화 를 내 며
17
갑 갑 허 구 나 이 사 – – 람 아
18
계 집 은 상 – – 하 – 의 복 – 이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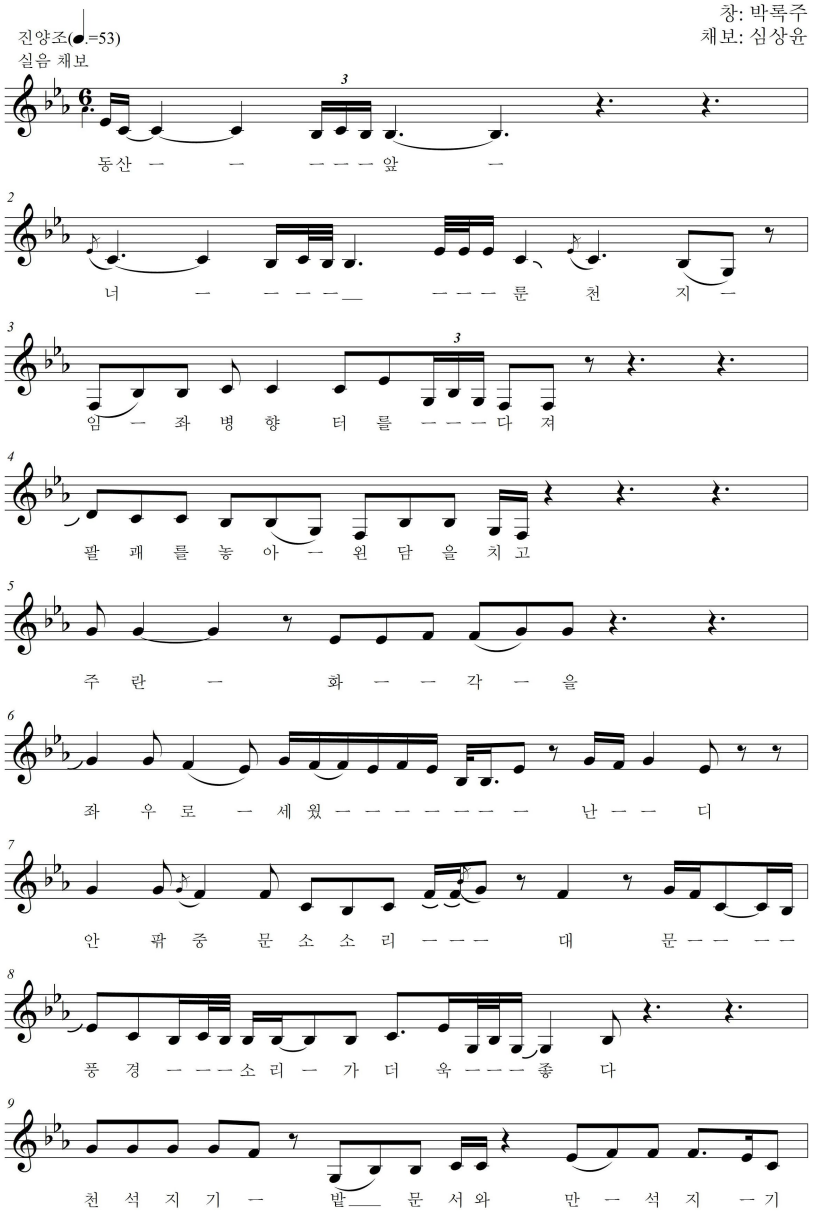

19
형 – 제 – 는 – 일 신 수 족 – 이 라
20
의 복 은 떨 어 – – – – – 지 면
21
해 입 기 가 쉽 거 니 와 –
22
형 제 일 신 수 족 은 –
23
아 차 한 번 뚝 떨 어 – – – – – – – 지 면
24
다 시 – – 잇 지 는 못 허 는 – 법 이 라
25
시 르 – – – – – – – 렁 실 – – 건 –
26
시 – 리 – 렁 – – – – – 실 건
27
시 리 렁 실 – 건 – –

4 8. 시리렁 실건 (두 번째 박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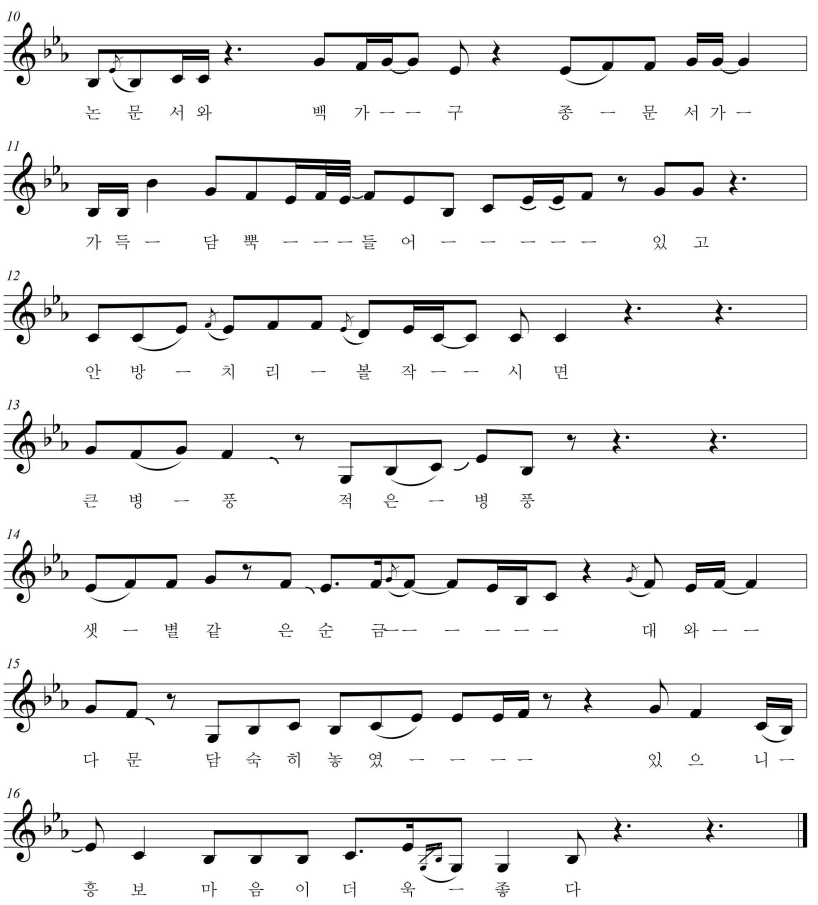


9. 동산 앞

창: 박록주
채보: 심상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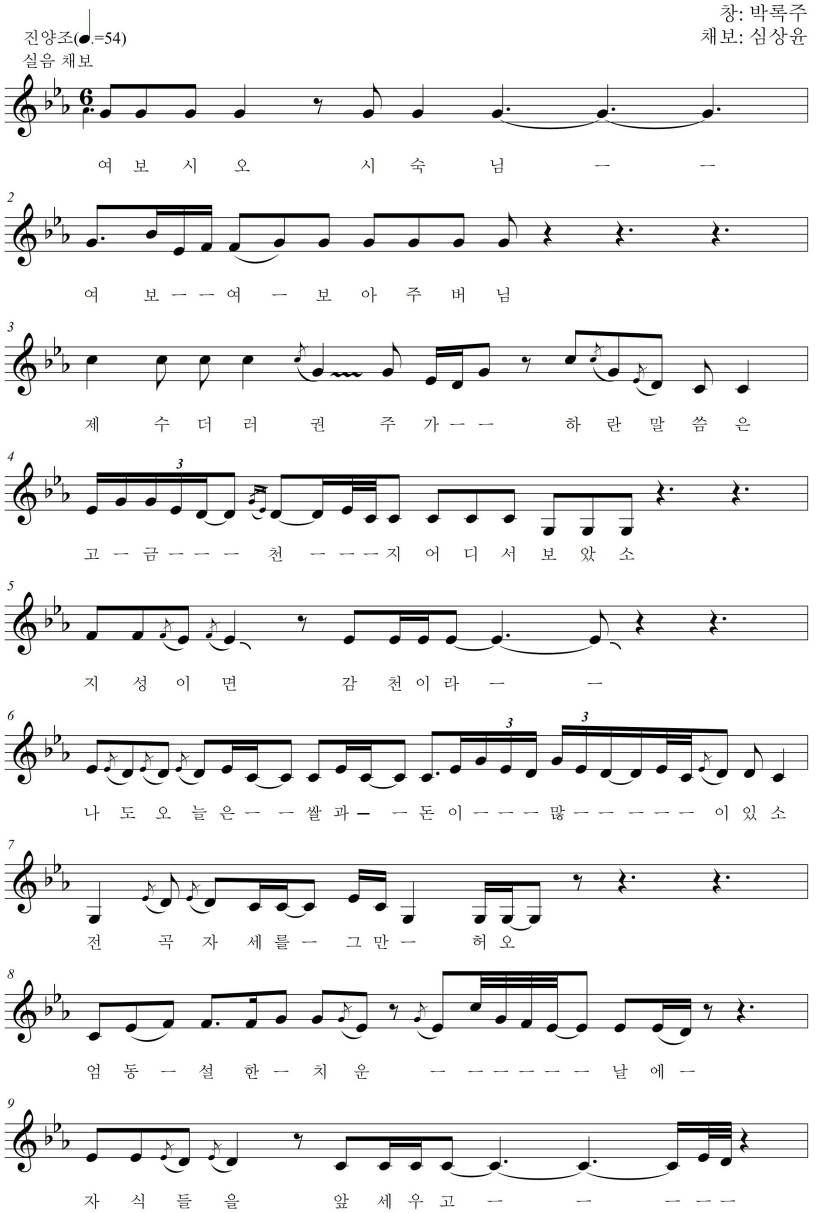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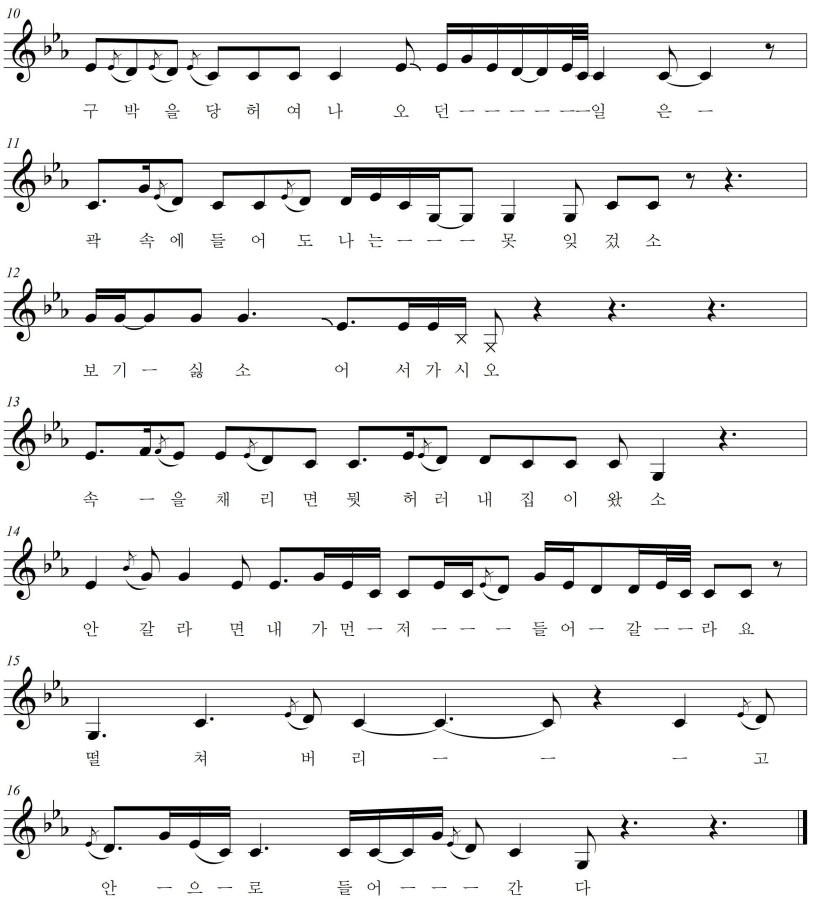
9.동산 앞


10
논 문 서와 백 가 ㅡ ㅡ 구 종 ㅡ 문 서 가 ㅡ
11
가 득 ㅡ 담 뿍 ㅡ ㅡ ㅡ들 어 ㅡ ㅡ ㅡ ㅡ ㅡ 있 고
12
안 방 ㅡ 치 리 ㅡ 볼 작 ㅡ ㅡ 시 면
13
큰 병 ㅡ 풍 적 은 ㅡ 병 풍
14
샛 ㅡ 별 같 은 순 금ㅡ ㅡ ㅡ ㅡ ㅡ 대 와 ㅡ ㅡ
15
다 문 담 숙 히 놓 였 ㅡ ㅡ ㅡ ㅡ 있 으 니 ㅡ
16
흥 보 마 음 이 더 욱 ㅡ 좋 다

10. 여보시오 시숙님

창: 박록주
채보: 심상윤




10
구 박 을 당 허 여 나 오 던 ㅡ ㅡ ㅡ ㅡ ㅡ ㅡ 일 은 ㅡ
11
곽 속 에 들 어 도 나 는 ㅡ ㅡ ㅡ 못 잊 겄 소
12
보 기 ㅡ 싫 소 어 서 가 시 오
13
속 ㅡ 을 채 리 면 뭣 허 러 내 집 이 왔 소
14
안 갈 라 면 내 가 먼 ㅡ 저 ㅡ ㅡ ㅡ 들 어 ㅡ 갈 ㅡ ㅡ 라 요
15
떨 처 버 리 ㅡ ㅡ ㅡ 고
16
안 ㅡ 으 ㅡ 로 들 어 ㅡ ㅡ ㅡ 간 다

Abstract

Research of Beginning of Chinyangjo in Park Rok Joo's Heungbo-ga

Shim, Sang Yun
Department of Musicology
Korean Vocal Music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nsori is a Korean traditional art that is expressed through Sori(song), Aniri(narration) and balim(gesture) by a single Sorikun(a singer) accompanied by a Gosu(a drummer). It consists of part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a story and each part is also comprised of several paragraphs. Each paragraph has '*Naedreum*' (introductory melody). Naedreum in Pansori is the melody of the first rhythm of each paragraph.

Among Pansori 'Park Rok Joo's Heungbo-ga', this study examines each of Naedreum of each paragraph of the Ki-Kyung-Kyul-Hae(beginning-progress-climax-end) of Jinyangcho 10 parts to establish the musical contents that Pansori Naedreum suggest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he following is revealed in relation to Naedreum of each Jinyangcho part.

First, Naedreum of Jinyangcho belongs to Ki of

Ki-Kyung-Kyul-Hae. Naedreum plays a role of showing standard tone as well as introductory melody for every part of Ki-Kyung-Kyul-Hae. Through this, one can understand the musical flow of the paragraph.

Second, Naedreum is mostly characterized with repetition of the same tone or persistence of a single tone, which are expressed in a simple rhythmical style of Jinyangcho melody.

Third, it has impact on other rhythms in paragraph.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tone or melody of Naedreum, it is expressed in changed musical forms such as the reduction or addition of melody.

Fourth, Naedreum plays a role of foretelling repetition, changed melody or rhythmical style in other melodies (Kyung-Kyul-Hae) of a paragraph. However, Naedreum is weakly related with the beginning spot of melody or rhythm that relaxes a paragraph. This phenomenon occurs at the end of a part when it gets long and thus has more paragraphs. In addition, it occurs even when the number of paragraph of a part is more than 5 rhythms(the standard is 6 beats)

As show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impact of Naedreum of Jinyangcho part in Pansori 'Park Rok Joo's Heungbo-ga'. It has significance in that it examined the musical contents of Naedreum in Pansori.

Key words: Park Rok Joo, Heungbo-ga, Jinyangcho, Naedreum, Ki-Kyung-Kyul-Hae.